건축사 05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66년창간
통권제517호

칼 럼 틈새시장 개척
에세이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것들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다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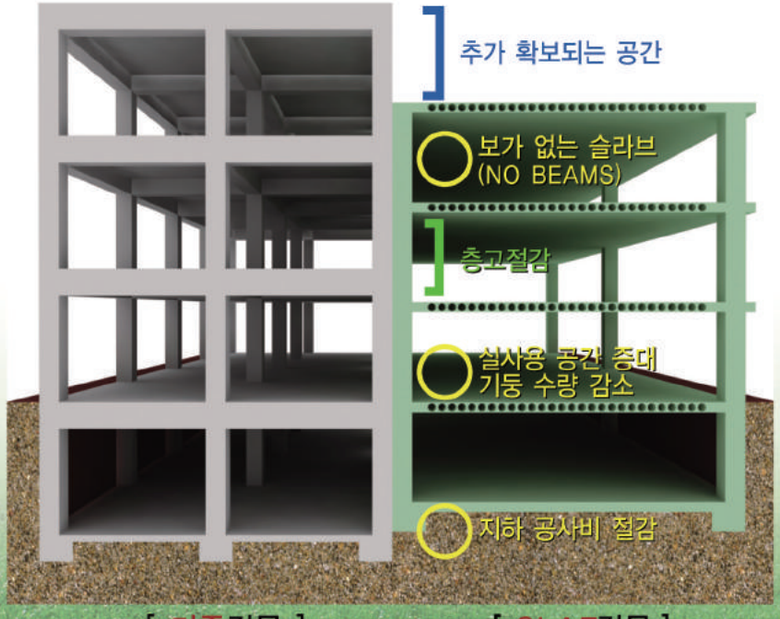
에너포르
www.kkpc.com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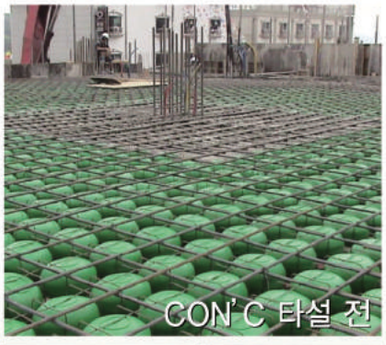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데크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78-2883
TEL. (02)555-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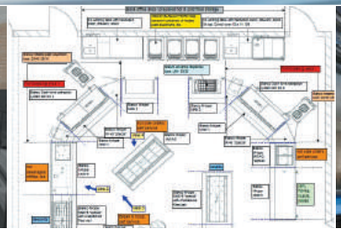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TEL : 02)333-4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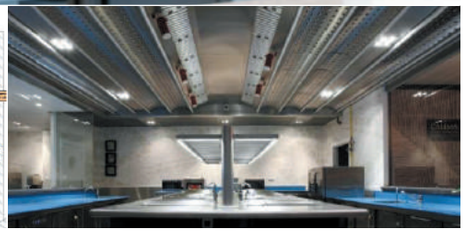
■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주방설비시스템, 주방천정환기시스템 설계전문

Korea Kitchen Design





Innovative Kitchen Design, Dynamic Food Service Design and Ventilated Ceiling System

(주)코리아키친디자인은 보다 전문화되고 선진화된 주방설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첨단 설계프로그램 및 전문 해외 컨설팅사와 제휴를 통한 Internationa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고품격 주방설비 및 주방천정환기시스템 천정을 필요로 하는 호텔, 리조트, 연회장,
레스토랑, 병원, 단체급식, 교육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방 설비시스템을 제공해드립니다.

Kitchen Design & Planning

- 주방설비계획 및 프로그래밍(2D/3D/렌더링)
- 주방장비사양 및 설비도면, 시방 제작
- 건축,설비,인테리어 코디작업 및 섹션뷰
- 해외전문컨설팅사 협력

Kitchen Operations

- HACCP진행절차개발
- 주방장비사용프로그램
- 친환경설계 및 에너지평가프로그램

Kitchen Ventilated Ceiling System

- 선진형 주방천정환기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주방시스템 구현

KOREA KITCHEN DESIGN
Food Service Consulting & 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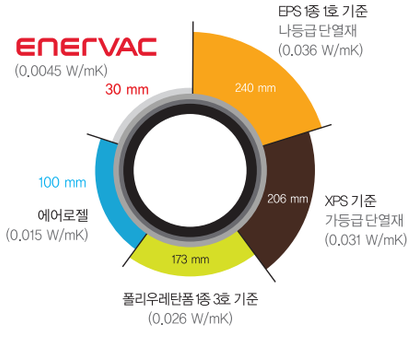
(주)코리아키친디자인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14-18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3차 802호 TEL : 02-2117-0611~2 FAX : 02-2117-0613 www.koreakitchendesign.com

단열재만 달라도 집안의 **온기가 천지차이**

8배 높은 효과
8배 얇은 두께
단열재의 새로운 기준 에너백

기존 대비 8배 높은 단열 성능으로 에너지 효율과
공간 활용을 한번에 잡을 수 있는 단열재, 에너백
이제 내 집이라면 평생 단열재, 에너백이 정답입니다

▶ 단열재 종류별 열전도율(W/mK) 및 두께비교(Passive house 기준)



단열재의 혁신! 단열성능이 8배 높은 FS진공 단열재 에너백

- **에너지효율성** 8배 강화된 단열효과로 냉난방 에너지 소비감소
- **화재안전성** 무기질 FS (흄드실리카)소재로 준불연 등급 획득
- **품질우수성** 대한건축사협회 우수추천자재 인증 획득
- **공간효율성** 단열두께 감소로 15%공간 확장효과 (내부면적 100m² 기준)
- **친환경성** 단열재 중 국내 최초 녹색기술 인증 획득

▸ **연락처 02-727-9647 I www.oci.co.kr**

enervac

※ 에너백은 EPS 1종 1호 제품 대비 8배 단열성능이 뛰어납니다

brother
at your side

건축,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을 위한

세계최초 리얼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 MFC-J6710DW

A3용지 인쇄 PRINT A3용지 스캔 SCAN A3용지 복사 COPY A3용지 팩스 FAX

PC MAGAZINE EDITORS' CHOICE
MFC-J6710DW
01/Jun/2011

기자들의 선택상 수상제품
(선정 2011. 6. 1)

LC73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3C 600매	LC73M 600매	LC73Y 600매	LC73BK 600매

LC77XL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7XL-C 1200매	LC77XL-M 1200매	LC77XL-Y 1200매	LC77XL-BK 2400매

brother
at your side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4층
Tel 02-572-4350 Fax 02-572-4363
http://www.brother-korea.com

A/S 문의 1577-3340

구매문의 최일환 대리
ilhwan.choi@brother-korea.com
HP.010-2291-5047

21세기
첨단 시스템 도어
JUNGWOO safedoor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OO safedoor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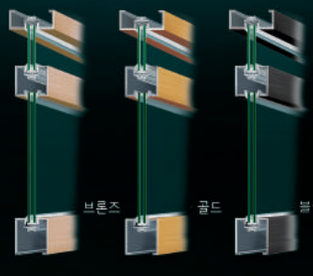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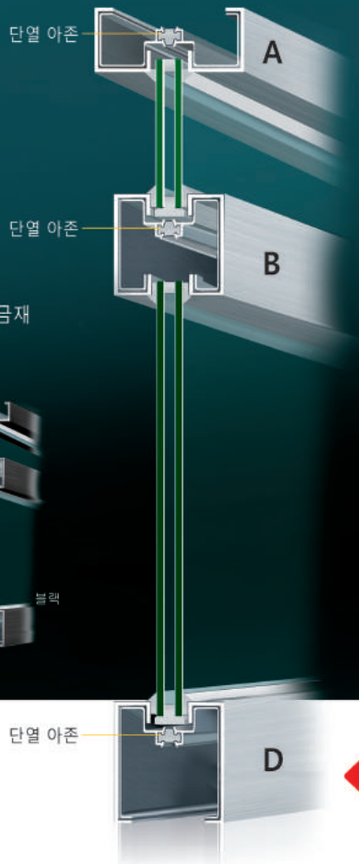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러 • 갈바 불소코팅

재질/한국산업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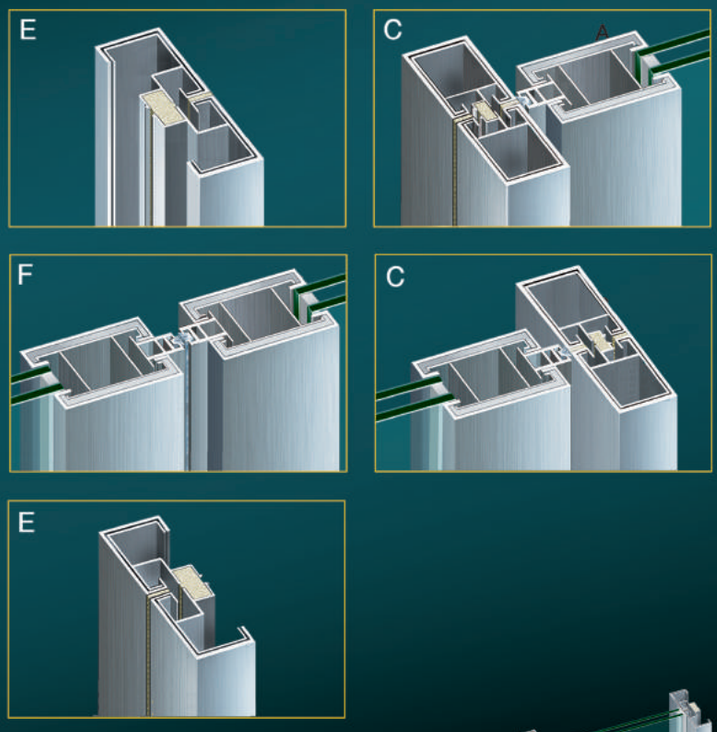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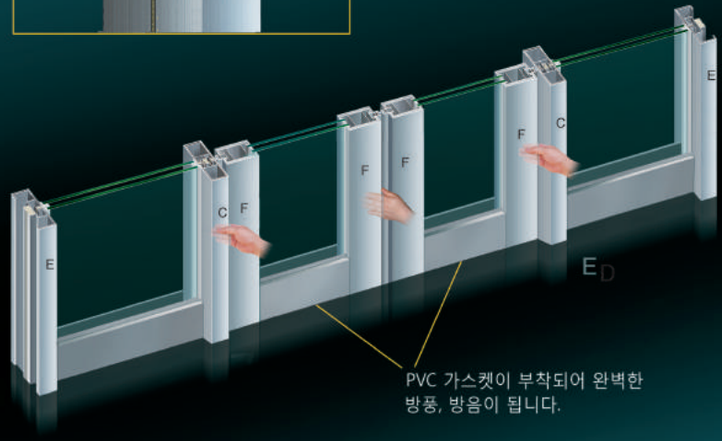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단면 상세도





PVC 가스켓이 부착되어 완벽한
방풍, 방음이 됩니다.

▶ 가격표 :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어린이「손」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30-8
TEL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 전국 영업망 구축 •

KOREAN ARCHITECTS

건축사

www.KIRA.or.kr
2012 May 05

COVER STORY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건축사 업으로서 조경을 바라본다.

표지사진 :
서울 추모공원 조감도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자료제공

발 행 인	강성익
편집인 겸 편집국장	조충기
취 재 · 편 집	최락청, 손석원, 문지은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50
인 터 넷	www.kira.or.kr
디 자 인	(주)랜스에디팅 02_2273_8576
인 쇄	현진크리에이티브 02_2276_6341~3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	Kang, Sung Ik
Editor	Zo, Chung-gi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 Moon, Ji-eu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13 칼 럼 COLUMN
틈새시장 개척
The development of niche market
_이규홍

015 에세이 ESSAY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것들
The precious things that we should keep
_정익현

016 에세이 ESSAY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다
Unveiling the judging process is the best method
_김희곤

019 만 평 CARTOON
_김진균

020 회원작품 WORKS
월성 스포츠 센터
WOLSUNG SPORTS CENTER, KHNP
_신동재 | (주)다울 건축사사무소

카이스트 파팔라도 메디컬센터
KAIST PAPPALARDO MEDICAL CENTER
_손두호 | (주)건축사사무소 모람

내심정 內心停
NEASIMJUNG
_정승이 | 유한 건축사사무소

Contents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2년 05월호 통권 517호

040 설계경기 COMPETITION

서구 송도해수욕장 해양레포츠센터
SONG-DO OCEAN LEPORTS CENTER

군산.새만금 산학융합지구
GUNSAN SAEMANGEUM INDUSTRIAL ACADEMIC COMPLEX DISTRICT

이천 신하 도서관
ICHEON SHINHA LIBRARY

056 특집 SPECIAL ISSUE

친환경건축과 조경
Sustainable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
_이애란

068 연 재 SERIAL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를 지향하며 5/5
Toward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_정재희

072 건축사 생존병법 ARCHITECT'S SURVIVAL STRATEGY

'세대구분형 아파트(일명 멀티홈)' 활성화된다
'Two household plan in one apartment unit'(also know as 'Multi home') will be revved up

075 건축과 법률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건축사협회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율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Institutes such as KIRA
_박시준

076 보고서 REPORT

태국건축사협회(ASA) 컨벤션 참가 보고서
National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Forum, "Architect 2012"
_신춘규

079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해외건축동향 _김은미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틈새시장 개척

The development of niche market

이규홍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2011년 12월말 정부가 발표한 주택보급율 112.9%와 더불어 주거용 건물 수요부진과 더불어 2012년 2월초 「건축문화신문」 톱 기사로 "2011년 소규모건축물 기준, 서울지역 개업건축사 68.8%가 수임건수 '0'으로 시장 양극화가 심각하다"라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다. 공식적인 데이터 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대규모사무소와 소규모사무소간의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는 자료로써 충분히 피부에 와 닿는 통계자료였다. 건축물 설계 · 감리에 따르는 특정업무를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자격만 갖추었다고 사회적인 지위와 먹거리가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수요와 · 공급 구조에서 생존이라는 극단적인 호구지책을 해결해야만 하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한정된 시장에 있다. 이 시장안의 대형 건축사사무소들도 국가간 FTA협정으로 세계의 유수한 건축사들과 경쟁을 벌여가며 살아남기 위해 그간 중소형 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일을 잠식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형 사무소는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협회 소속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 · 소규모 사무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한정된 시장에서 뛰쳐나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그간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양한 시장상품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협회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최근 석유자원 고갈과 유가 폭등에 따라 국가에서는 에너지 소비 최소화 시책으로 단열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시책을 펴고 있지만 단순한 단열성능 강화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영세민, 노인계층 건축물에 대한 주거시설 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서민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독신 노인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들의 새로운 주거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복지대책과 재건축 · 재개발 정책개발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둘째, 농촌 시설하우스의 지열이용 등 연료 대체에너지 개발과 자연형 난방법을 응용한 다양한 에너지절감 방법과 농촌주택에 자연형 냉난방 기법을 결합함으로써 극서기와 극한기의 냉난방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협회가 농어촌공사나 지자체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관리 비용이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 판매시설, 터미널, 공용 청사, 의료시설 등 많은 건축물에서 공기의 질이 심각하게 대두대고 있다. 새로 지어질 시설물은 물론이고 기존 많은 시설물에서 환기 및 오염공기가 그 시설물에서 생활하는 근무자나 이용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다. 공기 정화장치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사들과 같이 발표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매스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집중 홍보함으로써 시설 개보수 작업 및 건물유지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로 많은 건축사들의 할 일이 창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세가지 외의 여러 분야에서 건축사들의 아이디어에 의하여 국민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협회에서 개발하여 발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때마침 금년에는 대선이 있어 각 정당마다 복지논쟁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정책개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정당 뿐만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각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 또는 제안서 발송으로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편과 마누라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어느 기업인이 말한 적이 있다. 아름답고 훌륭한 세계적인 건축물을 설계하여 이름을 날리고 많은 부를 축척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으나, 미래의 생존전략을 위하여 이제껏 보고 듣지도 못한 것, 엉뚱하고 우스꽝스럽다고 할 하찮은 것,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포착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위생기구수에 따른 적정 공간 설정에 관한 연구가 있다. 현재 창우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이다.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것들

The precious things that we should keep

정익현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를 뵈었다.
간 김에 바깥마당 한 쪽에 있는 50m² 남짓한 텃밭에 시금치, 아욱, 쑥갓 등 각종 채소 씨앗을 심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씨앗의 촉감이 묘한 전율로 손끝에 전해 온다. 문득, 이 강산에 나고 자란 우리의 씨앗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세계적으로 이름 난 미국의 금잔디도 알고 보면 1890년 우리의 잔디 씨를 반출하여 개량한 끝에 만든 것이고, 흰 백합은 네덜란드가 우리의 '하늘말나리' 꽃을 가져가서 개량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앉은뱅이 밀'은 일본으로 유출되어 '농림 10호'로 개량되었는데 이것을 미국이 가져가 '소라노'를 탄생시켰다. 지금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밀의 90% 이상이 우리 '앉은뱅이 밀'에서 유래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수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토종 종자가 유출되어 우리는 그들이 개량하여 등록한 농산물을 역수입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맞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종자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F 당시 서울종묘, 흥농종묘 등 국내 5대 종묘회사가 몬산토 등 외국계 자본에 넘어간 이후 우리의 우수한 기술이 단절되어 종자 산업의 후퇴를 가져왔다. 우리가 미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토종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얼마 전까지 계속 외국으로 유출되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종자 산업을 육성, 개발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4,9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하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규제, 관리 중심에서 진흥과 지원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취지 아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건축 설계, 감리를 규제해소의 틀에서 보는 시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건축 설계, 감리는 국가전문 자격자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지식서비스산업이지 무자격자에 의해 행해지거나 자본의 들러리 내지는 지배를 받을 영역이 아니다. 특히 자유로운 창의력이 요구되는 건축설계를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규격화된 틀 속에 가두고 있다. 과거 십 수 년 전에도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건축사를 무더기로 배출하여 건축설계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건축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편에서는 건축문화를 외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은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건축사 고유의 건축 설계, 감리 영역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도 침해당했다. 마치 토종 종자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외국으로 유출되었듯이. 토종 종자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 감리도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영역이다. 농부는 굶을지언정 종자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김소연 시인의 저서 「마음 사전」에서 '소중한 것과 중요한 것'에 대한 고찰을 옮겨 본다.

'소중한 존재는 그 자체가 궁극이지만, 중요한 존재는 궁극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다. 돈은 전혀 소중하지 않은 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다.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소중하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어느 샌가 소중했던 당신이 중요한 당신으로 변해 가고 있다. (중략)
우리는 중요한 것들의 하중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는 경우가 많다.'

건축에 있어서 소중한 영역이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국토해양부의 세심하고도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예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건축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SSAY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다

Unveiling the judging process is the best method

김희곤 | (주)방총 건축사사무소 대표

제8회 한양대 아시아 국제건축올림피아드 심사후기

가끔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머리가 뻐근해지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심사 전에 이미 전화를 받거나 사전설명을 듣고 불편한 마음으로 심사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심사과정을 모니터로 공개한다고 부산을 떠는 기관들도 있지만 심사과정을 소상하게 밝힌 경우는 보지 못하였다.

그즈음 나는 현상설계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그 진위를 파악하느라 여기저기 전화다이얼을 돌리고 있었다. 김 선생이 참여할 프로젝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을 때마다 허망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지난 4월 18일 제8회 한양대 아시아 국제건축올림피아드 심사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라톤 심사를 진행하고 25일 수상식을 진행하였다. 6명의 심사위원이 오전에 100여 작품 중에서 수상작 후보를 선정하고 오후에 싱가폴 국립대학과 화상으로 작품평을 교환하고서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오로지 좋은 작품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눈과 손이 양심의 저울에 따라 바삐 움직였다. 주위 심사위원의 입김에 휘둘리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바람을 잡지도 않았다. 조용하게 개념과 스케치와 모델을 오가며 학생들의 생각과 땀과 잠재력을 바삐 읽었다. 어쩌면 나는 고등학생들의 작품을 심사하며 나 자신의 기나긴 관습적 퇴행을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보았는지 모른다. 적어도 저 젊은 영혼들이 기성건축사로 성장할 때쯤에는 지금처럼 공모전의 심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심사기준 하나

모델의 완성도에 치우치기보다 개념과 스케치와 모델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건강성을 살펴보았다. 21세기 대입전형에서 부르짖는 창의적 인재상에 부합하는 원석을 골라내어 대학이 미래의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라 믿었다. 아름다운 도식에서 사로잡히지 않는 투박한 아이디어일지라도 신선하고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발전된 개념스케치와 모델의 상관관계를 짚어가다보니 건강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견이 다를 경우 어쩔 수 없이 후보작의 개념을 심사위원들이 소리 내어 읽어보면서 본질을 확인하다보니 심사위원간의 직관에 의지하던 감정이 이성적으로 바뀌었으며 그 순간 나도 몰래 눈과 귀가 열렸다.

심사기준 둘

학원에서 잘 길들여진 스케치와 모델은 피하기로 하였다. 개념 도출과 상상력의 진화과정이 살아있는 스케치와 모델로 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치가 뛰어난 대부분의 작품은 개념의 뼈대가 빠진 모델의 복사본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기성세대의 현상설계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다. 신선한 개념의 전개과정보다는 화려한 모델과 투시도와 조감도만으로 심사위원의 시선을 유혹하는 작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외주비만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스페인 유학당시 지도교수와 참여한 대만 정부종합청사 국제현상설계에서 모형은 학생들의 손을 빌어 최대한 간단하게 개념덩어리만 만들고 투시도와 조감도도 개념을 보충하는 정도에서 학생들이 작업한 희미한 도판이 전부였다. 2명의 대학원생과 1명의 재학생이 만든 작품이 신기하게도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다.

작금의 어려운 건축현실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화려한 투시도와 조감도와 도판까지 엄청난 외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스페인 국립마드리드 건축대학(재생건축전문가)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7UIA서울 유치위원회 위원과 2012서울건축제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제작비를 지불하게 만드는 현상설계에서 젊은 건축사들은 자신의 꿈을 펼쳐볼 기회조차 잡을 수 없다. 4시간 만에 복잡한 주제를 해석하여 원고지에 자신의 개념을 정리하고 스케치와 모델을 만들어낸 젊은 거장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만으로 심사하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어려운 건축현실에 미래건축학도들이 건실한 건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득권시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제도와 규정과 법을 손질하는 것, 건축사 보수요율과 건축사의 사회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올림피아드심사의 공정성을 기성 건축사시장까지 확장하는 일이 시급하며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실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심사기준 셋

후보작으로 오른 작품들을 둘러보다 비슷한 경향의 작품들 일색임을 확인하는 순간 상당히 놀랐다. 다양성 확보가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심사장에서 세삼 깨달았다. 그날 심사위원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아류의 작품들이 후보에 올랐다. 할 수 없이 패자부활전을 치르며 이미 후보작에서 밀린 작품들을 다시 돌아보며 새롭게 후보작을 선정하였다. 의식적으로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작품들의 흐름을 살펴보고 다시 분류하기를 몇 차례 반복하고서 새로운 후보작을 쳐다보고서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오후 화상통화로 싱가폴 국립대학 심사위원들과 의견을 교류하며 다시 한 번 후보작을 조정하였다. 과정의 충실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각자의 양심에 따라 진행한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길만이 건축설계시장 전체의 투명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참신한 두뇌들을 건축대학으로 유인하는 길이며, 나아가 젊고 유능한 건축사들이 국제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임을 확인하였다.

① 공모전 설명 ② 대상수상자 작품 설명 ③ 공모전 작업사진

시민이 직접 제조한 **'노들표'** 텃밭용 친환경 유기농비료!

– 프랜차이즈 분점 모집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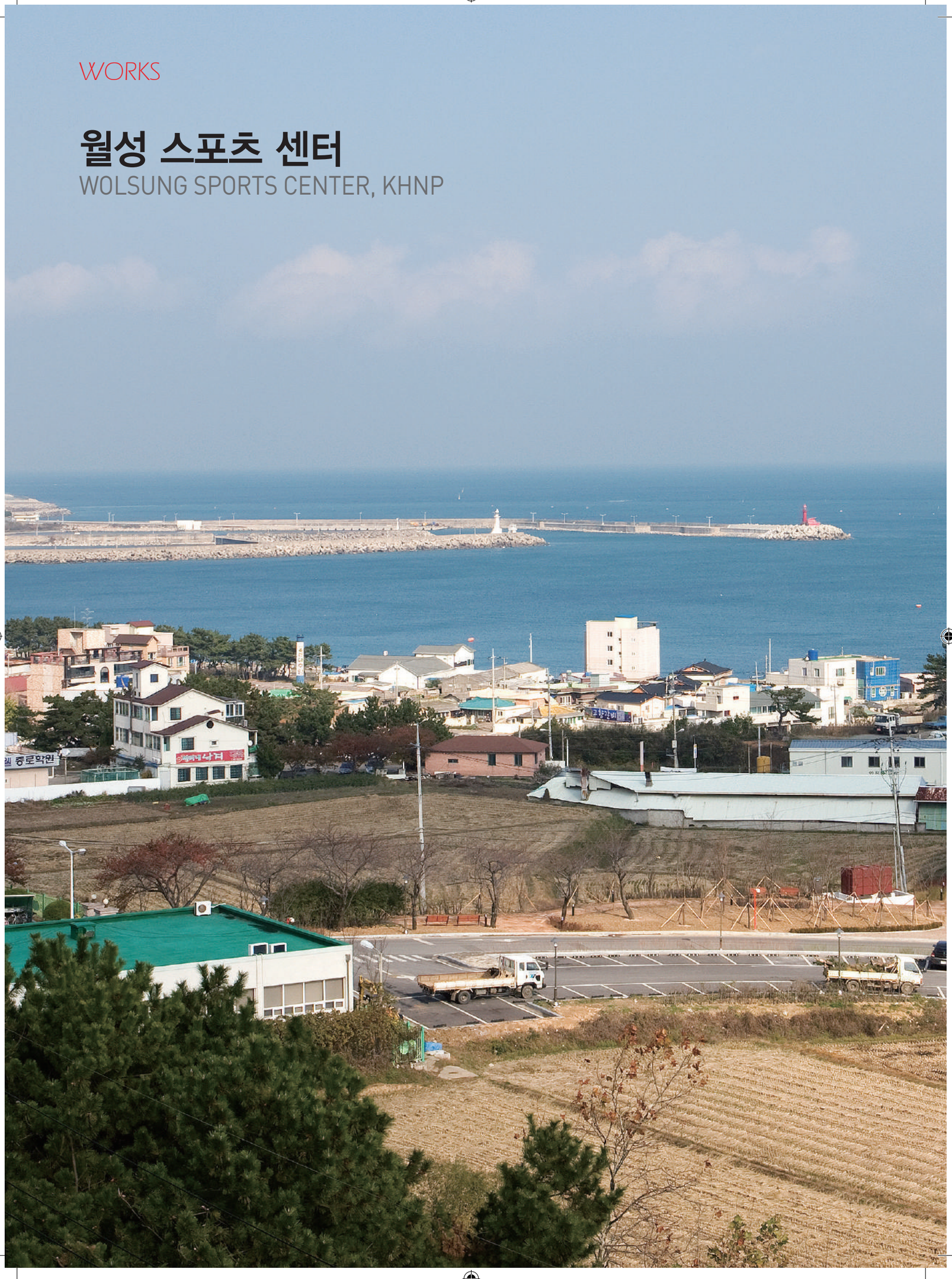
김진균 | Kim, Jin-kyoon

- 공학박사, Hon FAIA
- 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원장
- 전 대학건축학회 회장

WORKS

월성 스포츠 센터

WOLSUNG SPORTS CENTER, KH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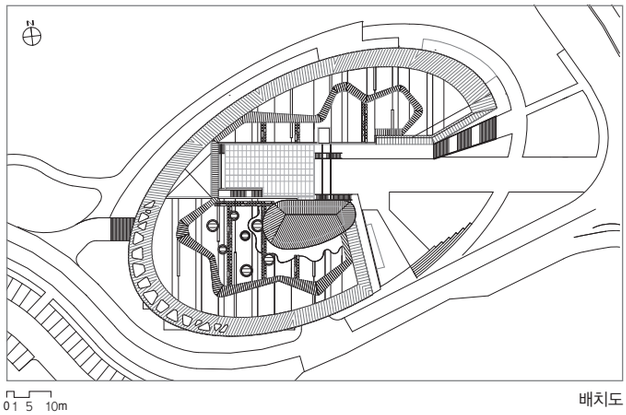


대지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118외 17필지
대지면적(Site Area) | 8,379.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3,266.34㎡
연면적(Gross Floor Area) |4,381.3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8.98%
용적률(Floor Area Ratio) | 52.12%
규모(Building Scope) | B1 – 4F
구조 | S.R.C
주요마감재 | 실외_티타늄 아연판, THK24 반사로이 복층유리,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실내_화강석, 복합타일, 친환경페인트, 흡음타공패널, 래핑패널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9.02.12 ~ 2009.07.17
공사기간 | 2010.03.30 ~ 2011.11.09

Client |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Architect | Sheen, Dong-jae
Project Team | Kim, Joung - il / Park, Jun - pyo / Cho, Joon - sang / Park, Jong - seok
General Constractor | SaeHan Construction Company
Location | 118, Eupcheon-ri, Yangnam-myeon, Gyeongju-si, Gyeongsangbuk-do, Korea
Finishing Materials | Exterior_Titanium zinc sheet / THK24 reflecting Low-e pair glass / ALC panel
Interior_Granite / Composition tiles / Eco paint
Perforated sound absorption panel / Lapping panel
Structural Engineer | TSEC Group (Total Structural Eng & Const.)
HVAC Engineer | Shin Jung
Electrical Engineer | Woo Rim
Design period | 2009.02.12~2009.07.17
Construction period | 2010.03.30~2011.11.09

건축주 | 한국수력원자력(주)
설계자 | 신동재_KIRA | (주)다울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김중일, 박준표, 조준상, 박종석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이원식 (주.티섹구조엔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김낙하 (주.우림종합기술단)
    김낙희 (주.호서텔레콤)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이익종 (신정설비기술사사무소)
  - 토목분야 : 조용량 (KNC 컨설턴트.주)
  - 감리분야 : 강순희_KIRA (정원건축사사무소.주)

시공사 | 새한건설주식회사



배치도

대지는 사택과 인근마을의 중간에 위치한 랜드마크적인 입지로, 입체적인 정면성과 상징성이 요구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배치의 큰 전제인 진입도로를 남측으로 이동하여 보행로로 재설정하였으며, 이 길을 축으로 수영장은 일조와 전망이 좋은 남측에, 북측의 공연장은 진입광장에 인접배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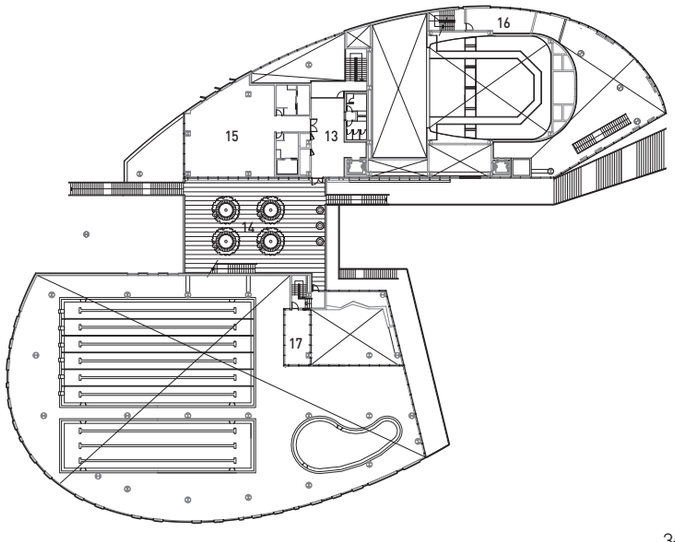
매스는 두개의 기능이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는 타원형의 틀 안에서 완성되었으며, 주변으로 열린 배치를 가진다.
진입광장은 2층 데크와 3층의 하늘공원을 지나 옥상정원까지 연결되어 건물과 외부공간을 체험하면서 동해로 트인 조망이 가능하다.
공공시설로서 개방적,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유선형의 유리와 금속의 매스로 계획하였다.

The site locates between a KHNP's private housing area and a neighboring village, and the location which is required presenting stereoscopic frontality and symbolism has a specific character of landmark.
The first consideration of the site plan is to relocate the main access road to the South in the site and recreate the original road as a pedestrian street. In the South part of the pedestrian street, which is a good position for daylight and outlook, a swimming facility locates, and there is a performance facility in the north part which adjoin to an entrance plaza.
The oval frame of building mass includes two different facilities and makes the facilities be seen as one building. The oval form also represents the vital relationship with the neighborhood.
The roof garden on the sport center connects to the entrance plaza on the ground level through a deck place in 2nd floor and the 'Sky Garden' in 3rd floor. As walking on the continuing route, people can experience the architecture and outdoor spaces and also can see the East Sea.
To express the open and future-oriented image of the public facility, the center was designed with a streamlined shape and covered with glass and metal for the major exterior materials.

진입부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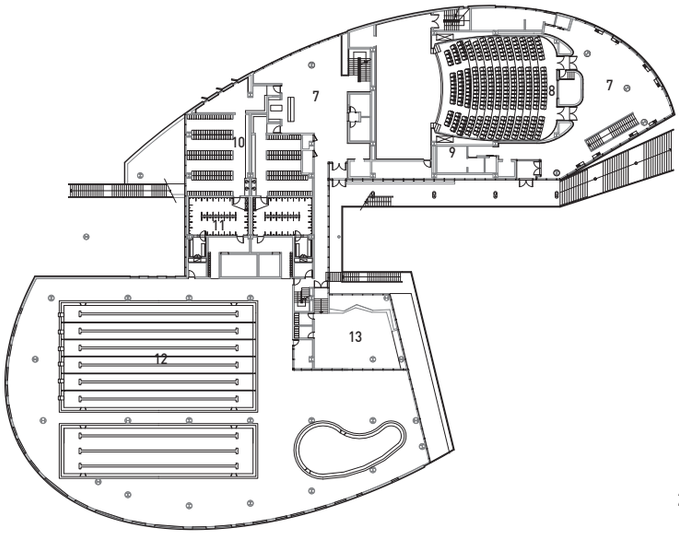
2층 데크

14_ 하늘정원
15_ 건강관리 클리닉
16_ 음향 · 조명기계실
17_ 수영장관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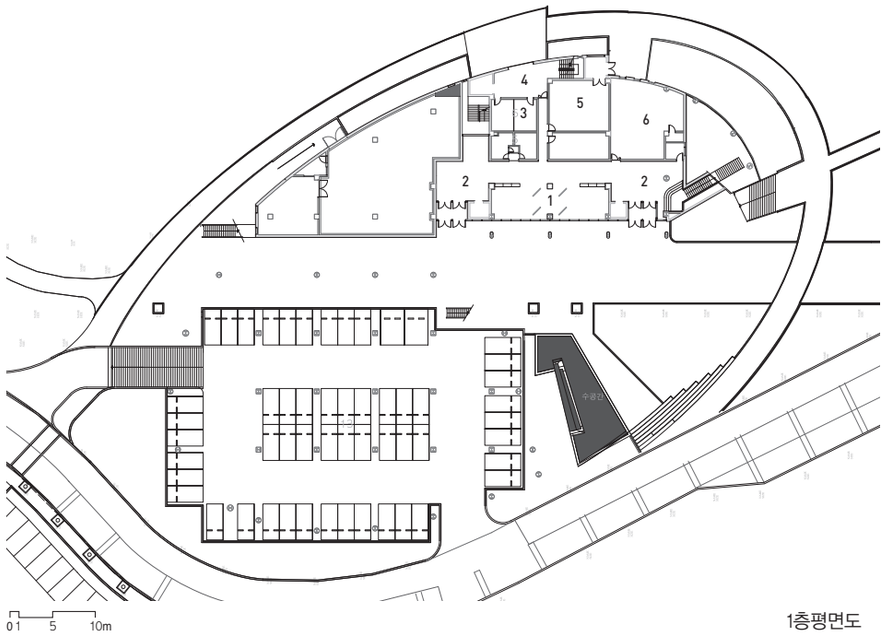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07_ 홀
08_ 다목적 강당
09_ 창고
10_ 락커룸
11_ 샤워실
12_ 수영장
13_ 암벽등반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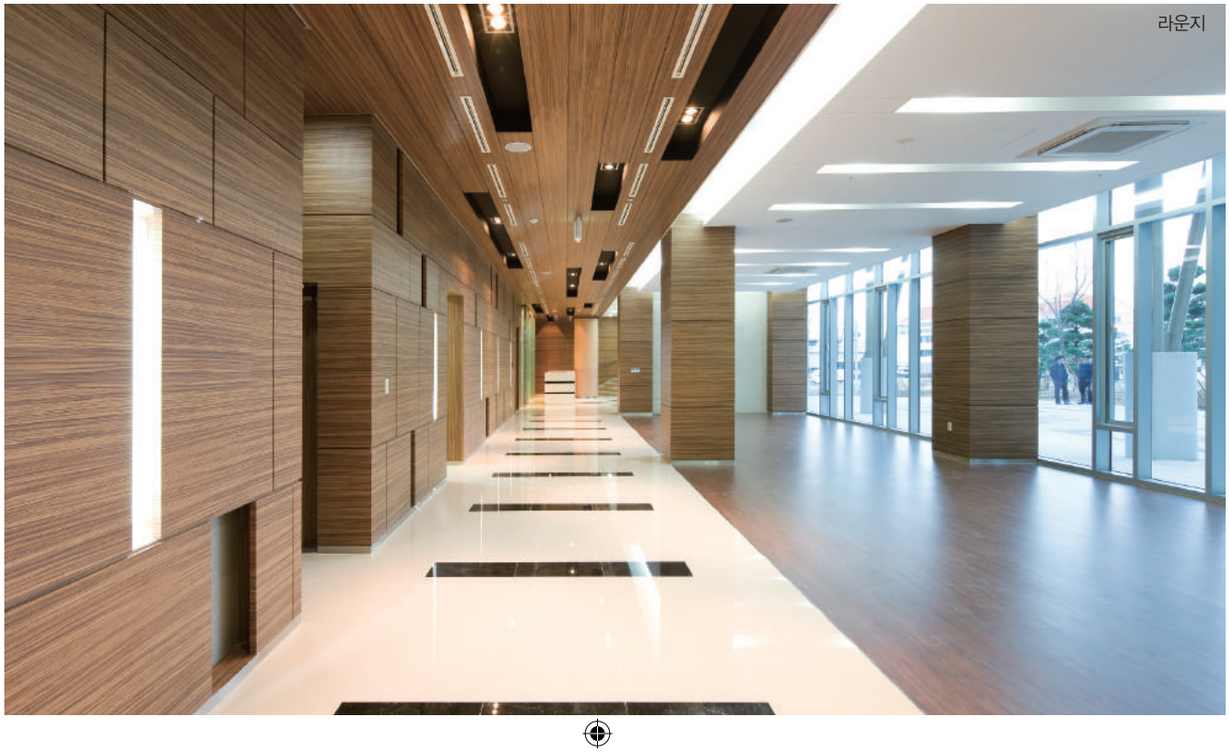
01_ 라운지
02_ 로비
03_ 연습실
04_ 하역장
05_ 공조실
06_ 통신실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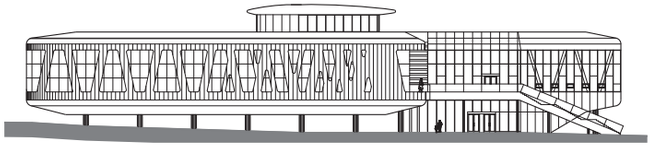
다목적 강당

수영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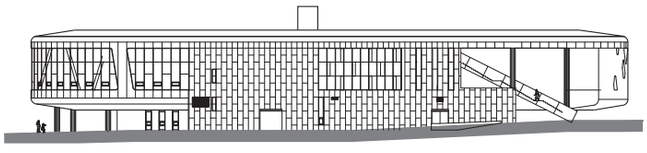
라운지

하늘정원으로 향하는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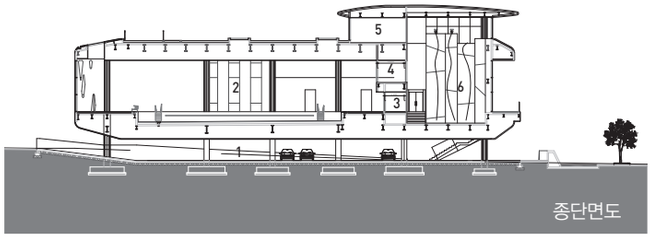


0 1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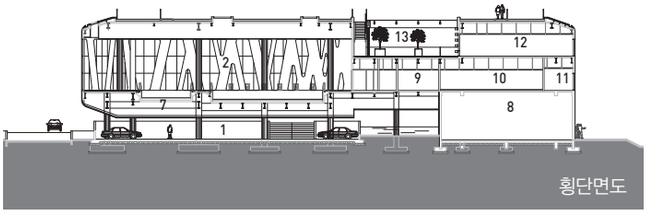
좌측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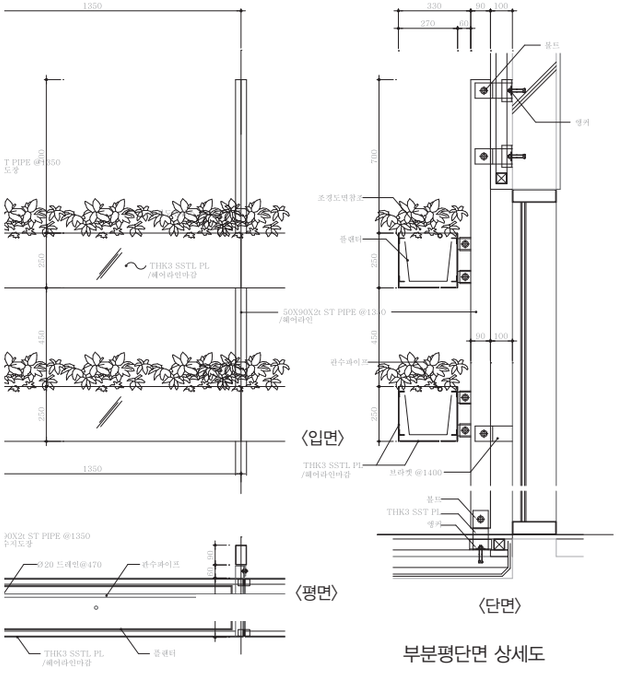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01_ 주차장
02_ 수영장
03_ 강사실
04_ 관람실
05_ 공조실
06_ 암벽등반
07_ PIT
08_ 기계실
09_ 샤워실
10_ 라커실
11_ 휴게실
12_ 건강관리 휴게실
13_ 전망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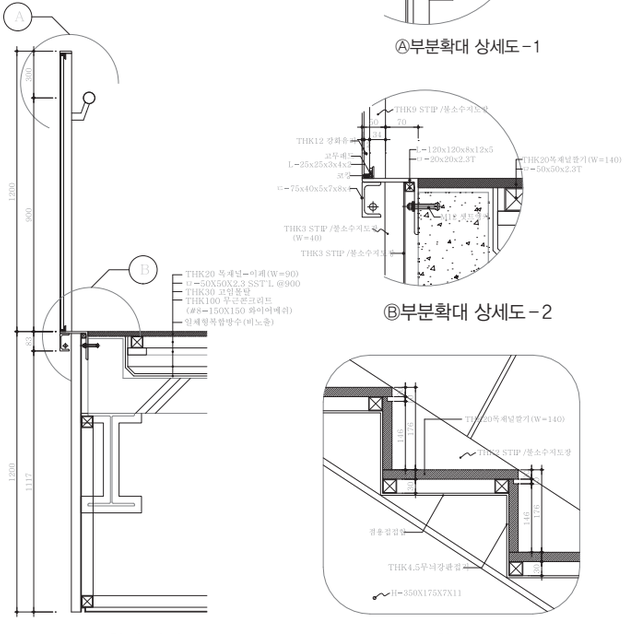
부분평단면 상세도

옥상정원에서 바다로의 전망

하늘정원

수영장 외벽

중정



부분확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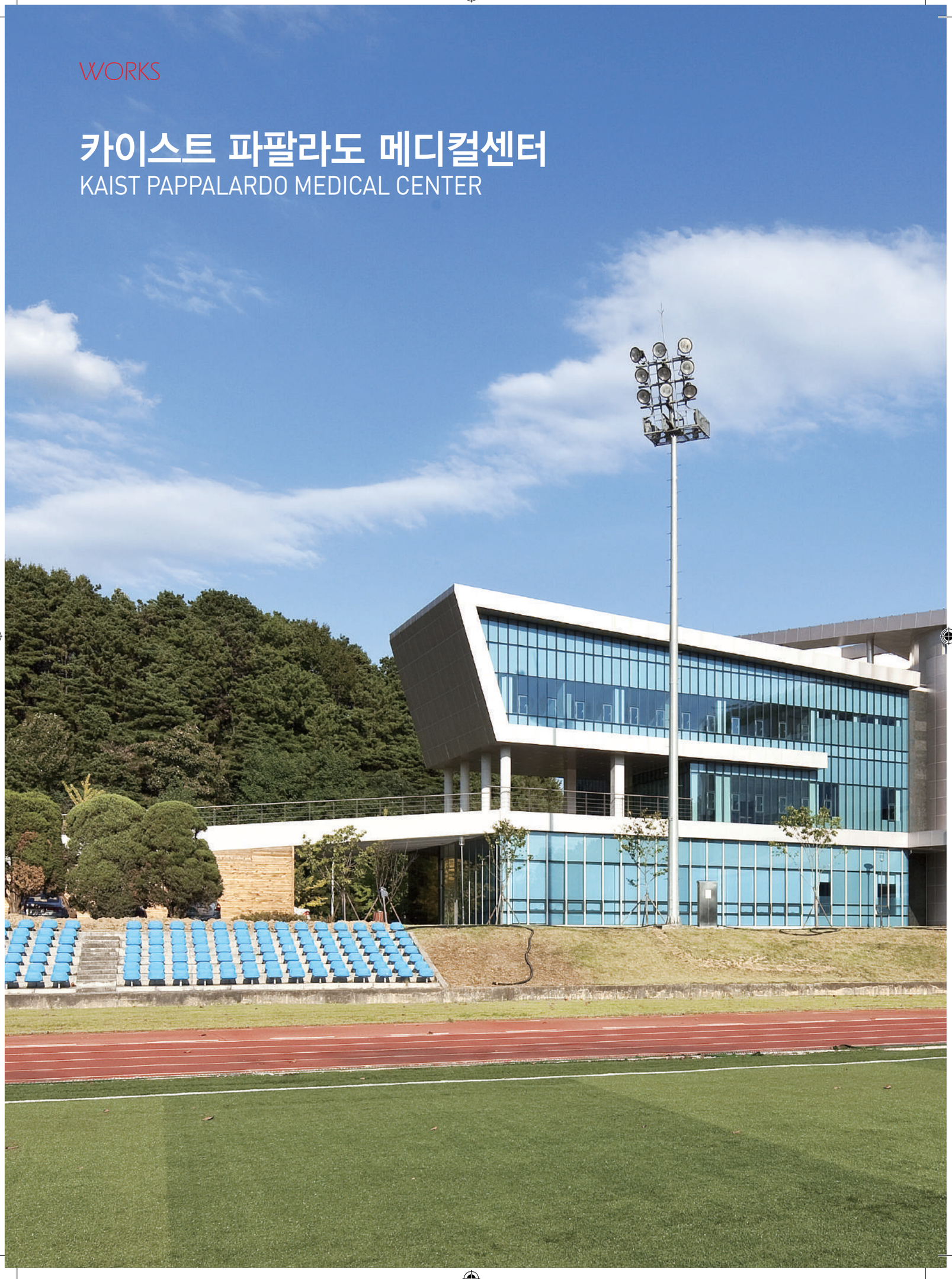
Ⓐ부분확대 상세도－1

Ⓑ부분확대 상세도－2

Ⓒ부분확대 상세도－3

WORKS

카이스트 파팔라도 메디컬센터
KAIST PAPPALARDO MEDICAL CENTER



Pappalardo Medical Center
E21

갑천방향에서 본 전경

건축주 | **한국과학기술원**

설계자 | **손두호**_KIRA | (주)건축사사무소 모람 +

이승권_KIRA | (주)단우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천영석, 최선희, 이혜원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터구조주식회사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주)도울이앤지
  - 토목분야 : (주)정인토목설계

시공사 | **(주)행림건설**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 (KAIST 부지 내)

대지면적(Site Area) | 5,8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825㎡

연면적(Gross Floor Area) | 4,23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1.47%

용적률(Floor Area Ratio) | 61.55%

규모(Building Scope) | B1 – 4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주요마감재 | 실외_알미늄 복합패널, 고흥석 혼드마감, 로이복층유리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8.01~2009.10

공사기간 | 2009.05~2010.08

Client | KAIST

Architect | Sohn, Doo-ho / Lee, Soong-kwon

Project Team | Chun, Young-suck / Choi, Sun-hee / Lee, Hye-won

General Constractor | Haenglim Construction CO.

Location | 335, Kwahak-ro, Yuseong-gu, Daejeon-si, Korea

Structure | R.C+S.C

Finishing Materials | Exterior_ Aluminium composite panel, Low-E pair glass, Honed granite(Goheung)

Structural Engineer | THEKUJ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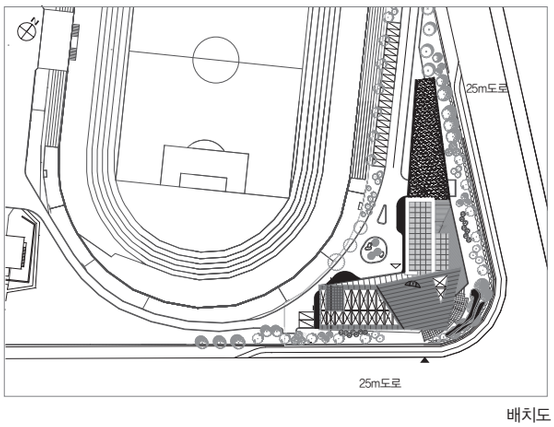
HVAC Engineer | DoulENG

Electrical Engineer | DoulENG

Civil Engineer | Jungin Civil

Design period | 2008.01~2009.10

Construction period | 2009.05~201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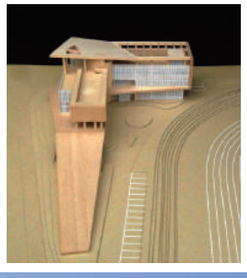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피로티와 하늘

파팔라도 메디컬센터는 KAIST 캠퍼스 내의 새로운 연구병원 시설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첫째, KAIST 상주 인원에 대한 1차 진료 및 응급진료 체계를 제공하고, 둘째,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을 통해 연구원 및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며, 셋째로 의과학, 생명공학, 바이오생물학 등 연관 분야간의 임상과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넷째로 KAIST 뿐 아니라 주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부족한 기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공공서비스에 기여한다.

KAIST 캠퍼스 내에서도 외부 접근성과 인식성이 우수한 동측 끝부분의 옛 쓰레기 소각장 자리가 계획부지로 선택되었고, 이러한 대지의 위치와 접근성, 그리고 땅의 형태가 건물의 골격을 결정하였다. 대운동장 한쪽 구석의 삼각형 대지 형태는 자연스럽게 건물의 평면을 만들어 냈다. 또한 그 위치는 사면이 모두 노출되어 형태적인 처리가 중요했으며, 캠퍼스 내부와 외부전면도로에서 각각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현재 외부도로 측 출입구는 메디컬센터의 기능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임시로 폐쇄되어 있음), 외부보다도 캠퍼스 내부에서의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했다. 주 운동장을 따라서 걸어올 때 자연스럽게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치가 대지와 관계를 맺는 형태로 필요했고, 이는 램프로 된 경사 진입로가 되었다.

메디컬센터의 주요기능인 외래진료 및 응급실을 1층에 배치하고, 2층에 또 하나의 주요 기능인 건강검진센터를 두었으며, 2층 건강검진센터로는 외부 슬로프를 통하여 쉽게 직접 진출입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3층은 추후에 병동으로 쓰일 것이며, 4층 증축이 가능하게 고려하였고, 지붕은 남쪽을 향해 한번의 굴절이 있으며 그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Pappalardo Medical Center is an on-campus new medical facility. The building is mainly to provide KAIST personnel a primary care including emergency medical care system, as well as to house a top notch health care center for students, researchers, professors and employees of the KAIST, domestic or foreign. And it can promote clinical researches between cross-academic and engineering fields such as medical science, biology, bio-tech. And it also provide basic health care services which are somewhat deficient in Daedeok Research Zone outside the campus as a part of public services.

The site is located at the eastern corner of the KAIST campus, next to the main stadium. The site has been chosen for its accessibility and visual recognition from outside of the campus as well as from the inside. It has a peculiar triangular shape, as a remainder of the stadium area. The location and the shape of the site are the main catalyst of the basic form making the building. And, it should have facades on all sides, and be easily accessible from the campus, although the site has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the campus center.

The main features of the building are Clinics and the Health ca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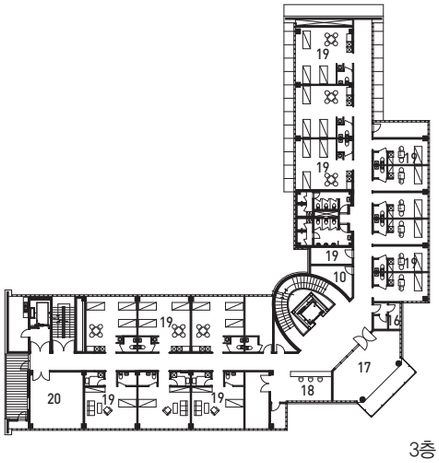
The outpatient clinics and emergency room are located on the first floor, which have separate entrances. (the entrance to the road outside was temporary closed.) The second floor is the Health care center, providing facilities for physical examinations and checkups, and the center can be accessed through an external ramp directly. The third floor is designed as a ward, however currently used as research labs because of the local regulations. The roof has an angle to face South, since the photovoltaics system is installed on the part of the roof for energy conscious design.

성두산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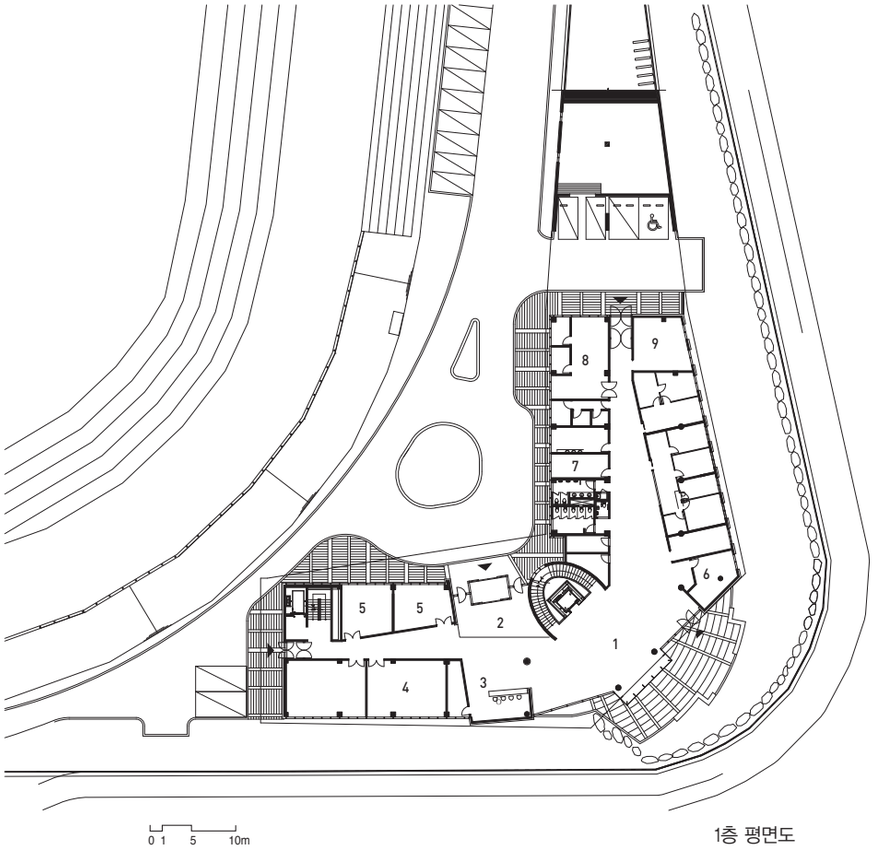
1층 로비와 홀

1층 안내데스크와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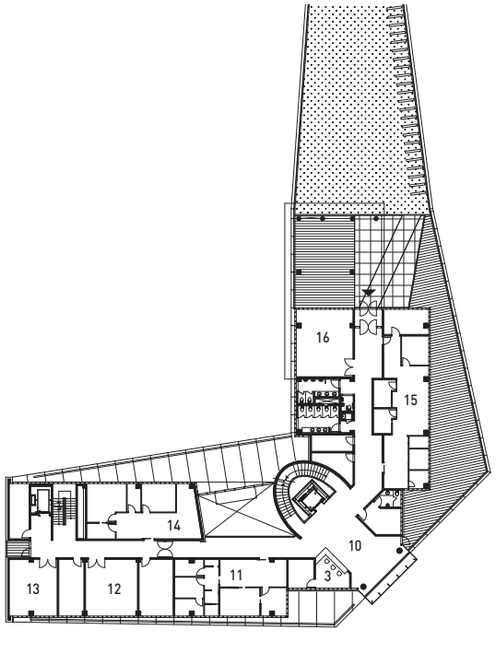
01_ 대기홀
02_ 입구홀
03_ 안내
04_ 예비실
05_ 일반촬영실
06_ 간호사실
07_ 주사실
08_ 응급처치실
09_ 이비인후과
10_ 휴게실
11_ 피부과
12_ 원장실
13_ 원무과
14_ 안과
15_ 치과
16_ 기능검사실
17_ 데이룸
18_ N/S
19_ 병실
20_ 공조실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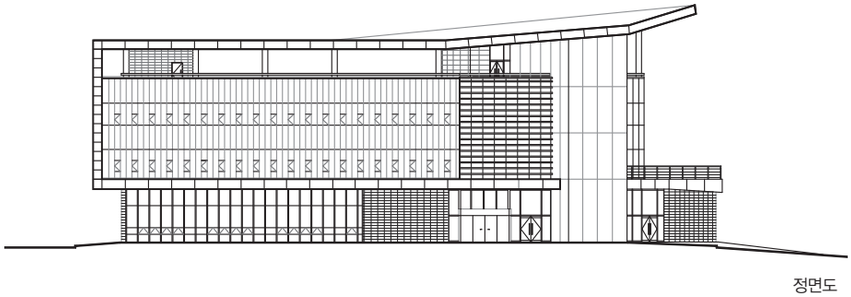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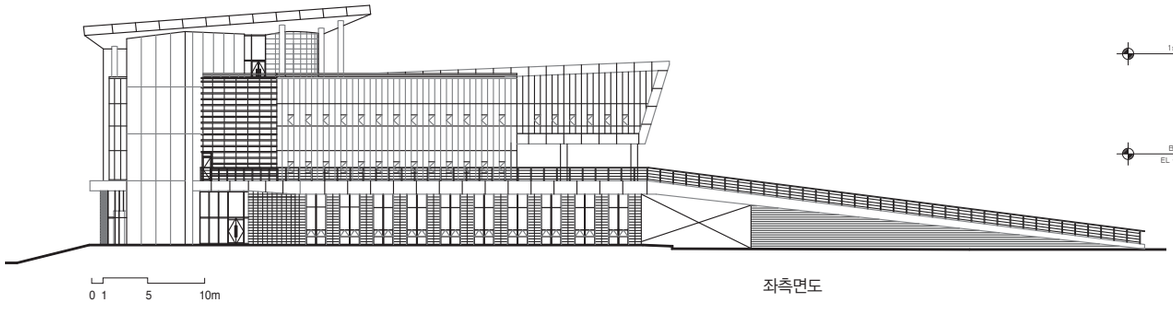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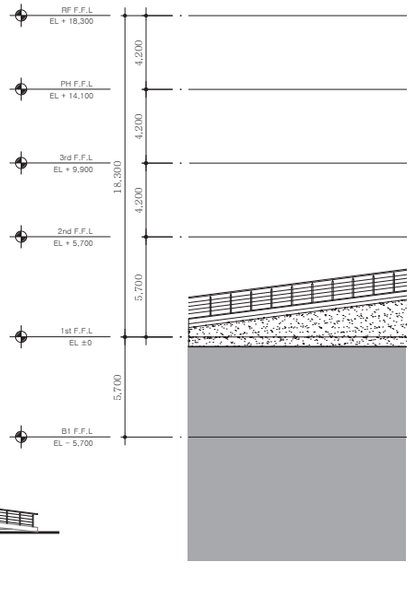
필로티 부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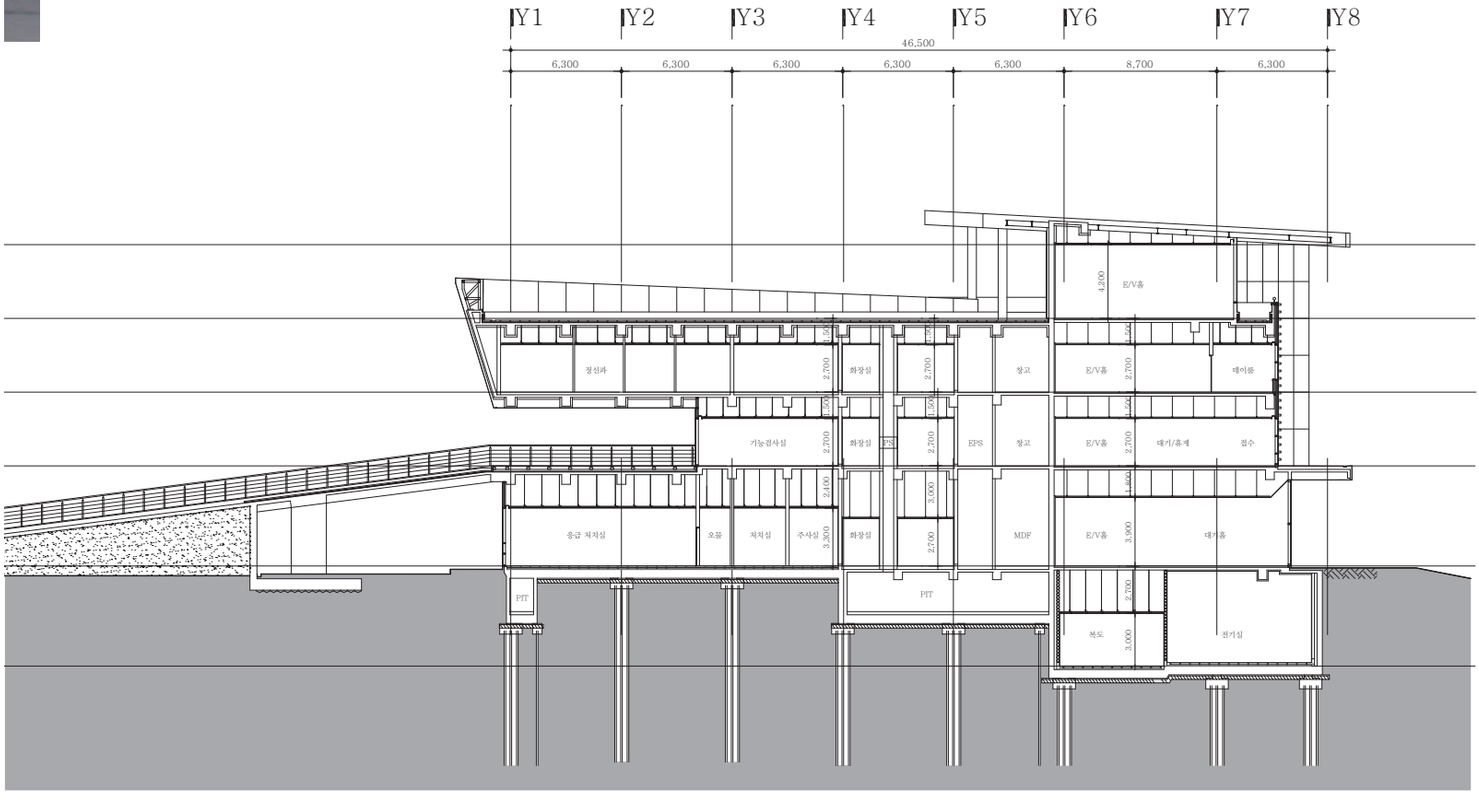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2층 필로티에서 바라보는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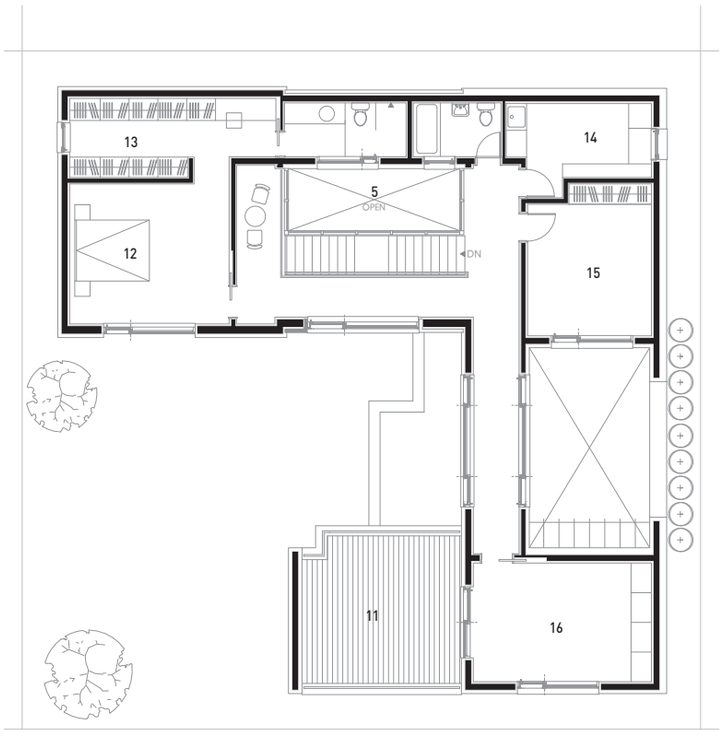


내심정 內心停
NEASIMJUNG

건축주 | 이미진
설계자 | 정승이_KIRA | 유한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정지한, 양용석, 고하동
시공사 | U-H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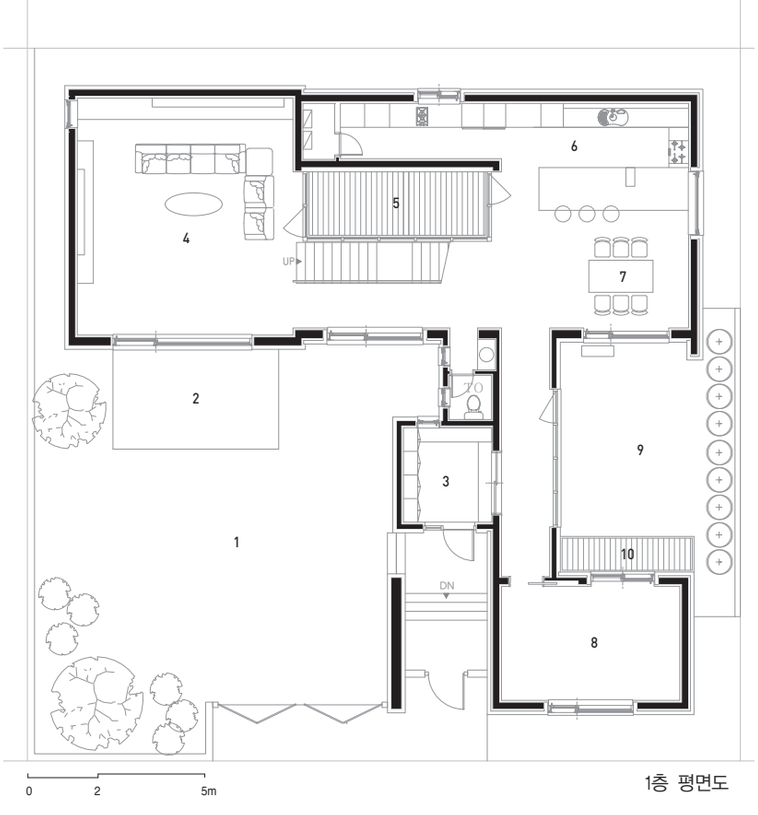
대지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대지면적(Site Area) | 402.09㎡
건축면적(Building Area) | 181.21㎡
연면적(Gross Floor Area) | 325.7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4.98%
용적률(Floor Area Ratio) | 80.85%
규모(Building Scope) | 2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외부_석재, 벽돌, 징크
내부_대리석, 천연페인트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9.10~2010.02
공사기간 | 2010.03~2010.11

Client | Lee, Mi-jin
Architect | Jeong, Seung-yi
Project team | Jeong, Ji-han / Yang, Yong-seok / Ko, Ha-dong
General Constractor | U-HAS
Location | Dongpea-ri, Gyoha-eup, Paju-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C
Finishing Materials | Exterior_Building stone, Brick, and Zinc
Interior_Marble and Natural paint
Design period | 2009.10~2010.02
Construction period | 2010.03~2010.11



2층 평면도

01_ 정원
02_ 데크
03_ 현관
04_ 거실
05_ 빛정원
06_ 주방
07_ 식당
08_ 사랑방
09_ 하늘마당
10_ 툇마루
11_ 누마루
12_ 안방
13_ 드레스룸
14_ 세탁실
15_ 침실
16_ 서재



1층 평면도

주어진 대지의 크기는 택지지구대지로는 큰편이다. 남향의 대지라 향과 조망이 좋은 조건인 동시에 전면에 교차도로가 있어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어야 했다. 계획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건축주는 넓은 정원을 원하였기에 정원을 향해 열린 설계로 진행함과 동시에 전면에 있는 교차도로와의 관계를 차단하고자 닫힌 설계도 병행하였다.

넓은 정원을 원하는 건축주의 희망대로 이 집에는 4개의 정원이 있다. 가장 넓은 마당은 멀리보이는 심학산을 축으로 남서로 두었다. 그로인해 자연스럽게 주택의 위치가 결정되었으며,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침실은 2층에, 1층은 공용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앞마당의 정원, 식당과 한실 사이에 있는 하늘마당,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빛정원, 2층 테라스인 누마루이다. 거실과 식당사이에 있는 비움의 공간인 빛정원이 이 집의 건축개념인 비움의 공간으로 핵심적인 부분이다. 바깥을 바라보는 것 보다 내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시선과 시선사이에 다양한 장면이 연출된다. 거실은 오디오시설이 갖추어진 가족공간이며, 식당과 연계하여 공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외부에서 보이는 것 보다, 실과 실 사이에 만들어지는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계단의 오르내림에 따라 빛정원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닫혀 있으면서도 열린 빛정원을 통하여 햇볕과 바람이 들어와 공간마다 자연을 느끼게 하였으며, 특히 빛정원을 통해 욕실까지 햇볕과 바람이 유입되어 공간마다 자연적 요소를 풍요롭게 느낄 수 있다. 자연에 의한 장면이 풍부해질수록 집에 대한 기억의 장면이 풍부해진다.

This building site is on the large side for a residential area. It is facing south with a fine view, but needs to be a bit more private due to the cross street in front of the site. Since the client wants to have spacious backyard, the building employs both an open-design method for the garden and a close-design method for privacy from the street. As the client hopes, there are four separategardens withthe largest garden located southwest facing mountain Simhak. Therefore, the building direction is decided by the direction of the gardens. Considering the location of the road in the site, bedrooms are on the second floor while first floor is planned as a common space. The four gardens are a garden in the front yard, 'Haneulmadang' between a kitchen and a bedroom, 'Bit-jungwon' between a living room and the kitchen, and a loft in the patio on the second floor. Bit-jungwon reflects the beauty of void which is a core theme as well as the architectural concept of this structure.It creates many different views while looking through interior rather than outside. The living room is a common area which is furnished with audio system and connected to the kitchen. It puts more emphasis on the connections between each room. As a result, Bit-jungwon would look different along different angles from the stairs. Each place is optimal to feel the rich wind and sunshine coming through Bit-jungwon. The scene of nature in the house imparts the memory of the house.

서구 송도해수욕장 해양레포츠센터 _당선작

SONG-DO OCEAN LEPORTS CENTER

발주처 : 부산광역시 서구청

설계자 : 손숙희, KIRA | (주)수가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설계 : 박창배 |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조정훈, 이형삼, 손지영, 최창규, 박정훈, 현진, 정성희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대성구조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금정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에스엘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35-5번지
지역/지구	근린공원(송도공원),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관광휴게시설(공원 내 편의시설)
대지면적	15,275㎡
건축면적	271.96㎡
연 면 적	507.58㎡
건 폐 율	0.36%
용 적 률	0.67%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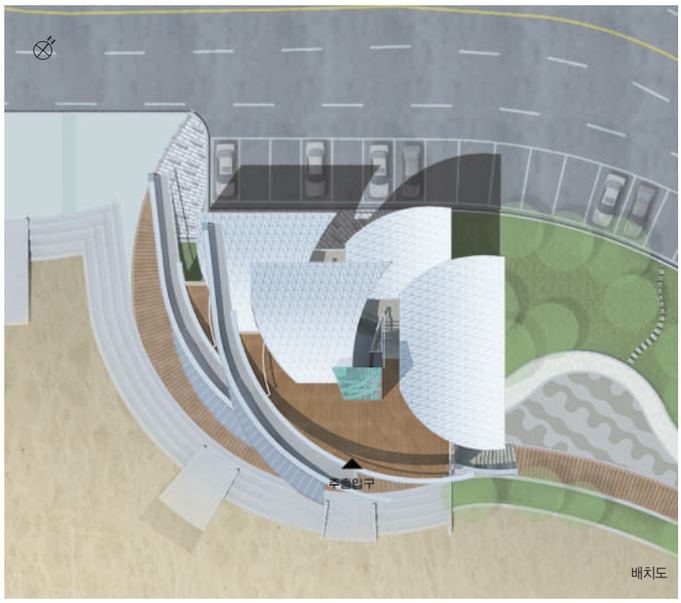
어릴적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았던 해수욕장. 파도와 바람, 케이블카와 구름다리. 행여나 떨어질세라 다리난간 줄만 꽉 잡고 발을 못 떼던 추억의 해수욕장….
뭐가 그리 좋은지 다이빙대는 사람들이 어찌나 몰리든지… 한순간 잊혀진 송도.
지금은 그 추억을 모두 안은 채… 새로운 모습이다.
변함 없는 파도와 소나무, 멀리 보이는 수평선까지…
여기에 다시 찾는 발걸음이 옛 송도의 명승을 찾아가고 있다.

Wave – 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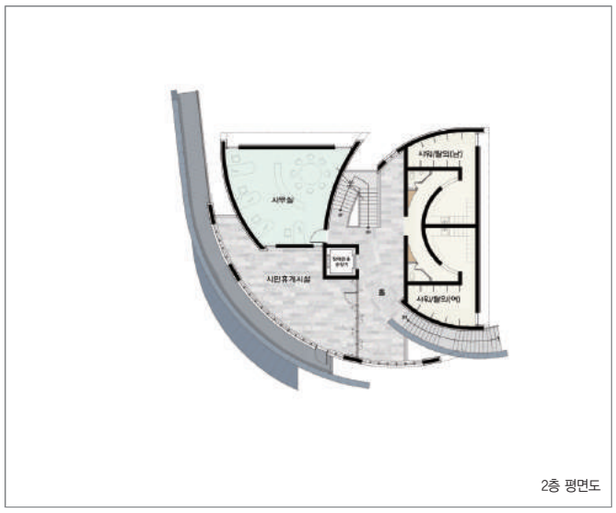
해안선을 연상하게 하는 산책로와 조경이 물결처럼 흘러 이곳에서 맴돈다.
물결의 흐름은 하나둘 나뉘어 동선이 되고, 공간이 된다.
어느 곳은 길게 늘어져 사람들을 맞이하고, 어느 곳은 높은 파도처럼 월이 되어 시선을 가려준다. 흡사 파도와 배의 모습으로 자리하여, 이곳에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송도의 풍경이 되길 기대한다.

송도해양레포츠센터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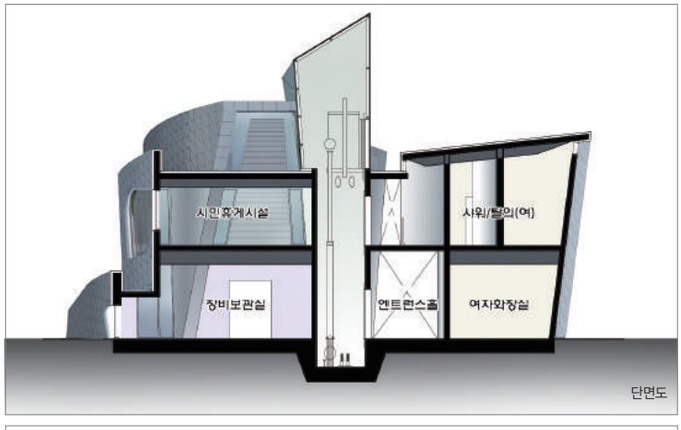
해양레포츠의 소형장비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해수욕장을 찾는 이들의 동선은 공원과 주차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고, 둘은 쉽게 분리되어 있다. 그 형상은 파도와 물결의 모습이며, 그 외피는 물고기의 비늘모양으로 바다의 푸르름을 담을 수 있는 은빛으로… 지붕은 송도길에서의 바다와 함께 모든 이의 시선에 담길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옥상에 모여 바다내음과 추억을 만끽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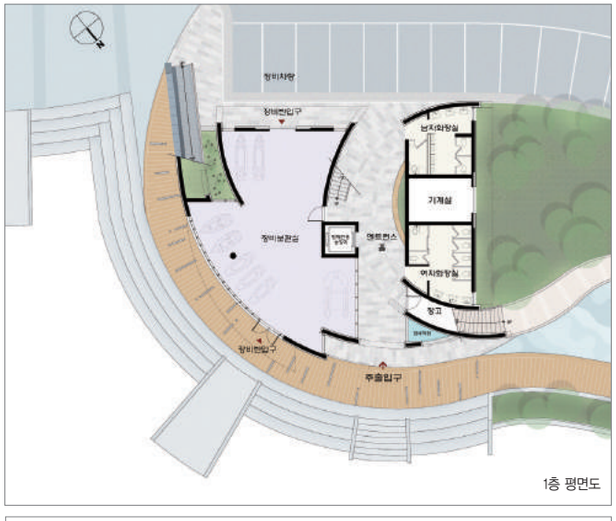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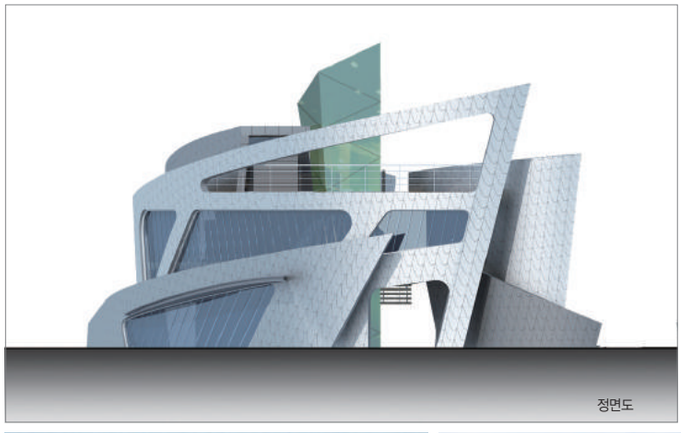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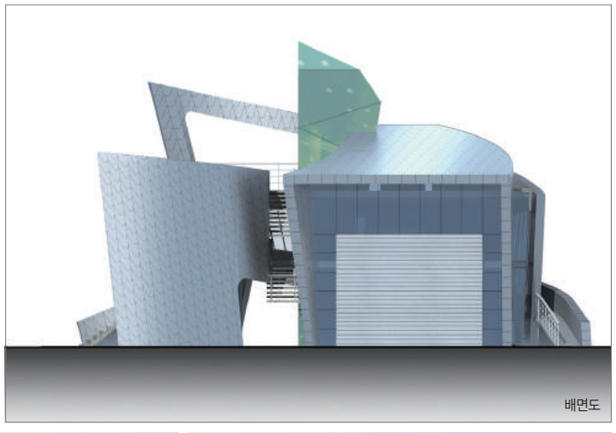


단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서구 송도해수욕장 해양레포츠센터 _우수작

SONG-DO OCEAN LEPORTS CENTER

설계자 : 김화연, KIRA | 인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두한, 이동희, 강현승, 안태금, 신보경, 하명선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이대기(대진구조)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정용인(주.부흥이엔씨)
– 기계설비분야 : 재경호(주.에스페란토)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35-5번지
지역/지구	근린공원(송도공원),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5,275㎡
건축면적	388㎡
연 면 적	501.31㎡
건 폐 율	99.412%
용 적 률	147.44%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2층

계획개념_대지는 송도공원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바다 – 송도해수욕장 – 송도공원'을 연결하는 자연축의 결합점에 위치하고 있다. 바다를 대지로 끌어들여 수직, 수평축으로 확장된 다양한 외부공간(전망데크, 테라스)을 구성하여 자연을 담고, 체험하고 느끼는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구현한다. 또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은 펼쳐진 자연을 수렴하고 도시 속, 문화 속 흐름을 결합한 Activity Space를 구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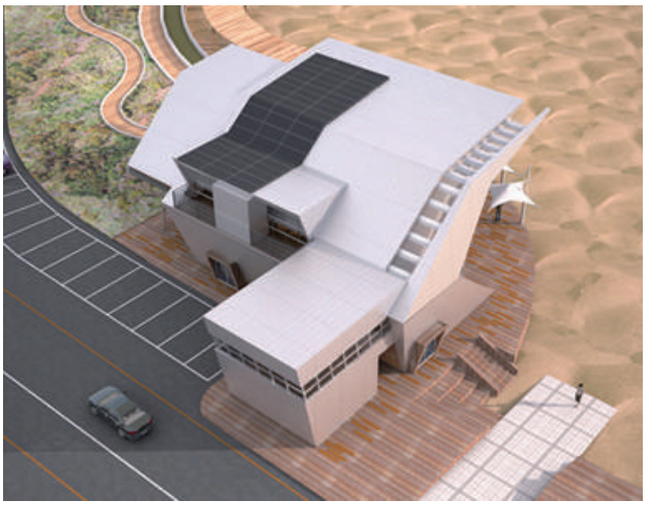
– Blue Inflow(커튼월의 바다 투영 및 반사) : 펼쳐진 자연은 수직축으로 연속된 커튼월로 수렴되어 도시로 확장된다.
– Urban Inflow(전망데크) : 도시의 흐름은 백사장 및 1층 휴게공간을 경유해 전망데크로 이어지고 다양한 Event 및 Activity를 담아낸다.

입면계획_공간속에 시각적 오브제인 파도의 특성을 입면에 표현함으로써 역동적인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을 연상하게 하는 도시 랜드마크 건물이 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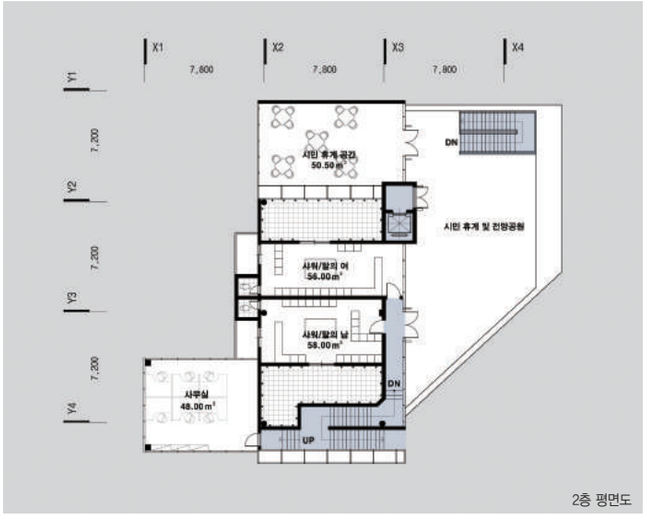
– 주간 : 연속되는 사선형 바의 선표현으로 역동성과 지표면의 떠오름을 상징한다.
– 경관조명 : LED조명을 통한 파도의 움직임을 표현했다.

평면계획_1층 장비보관실과 화장실의 출입동선을 분리하여 혼잡을 피했다. 배면에 기계실을 두고 출입구를 가렸다. 2층 지원시설을 배면에 두고 샤워시설과 시민 휴게 공간은 전망데크를 두어 버퍼존으로 활용하며 바다조명을 극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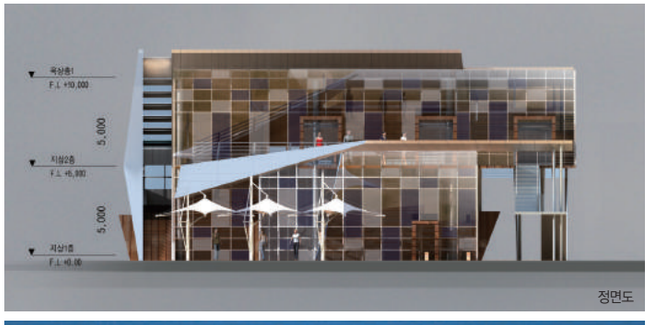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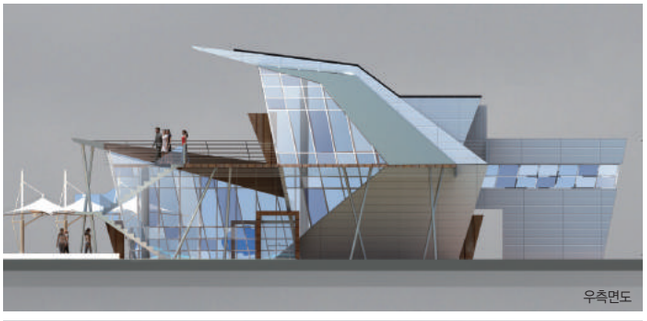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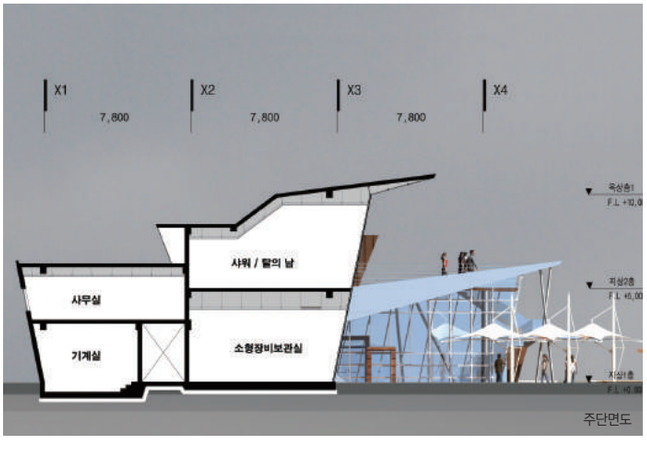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주단면도

서구 송도해수욕장 해양레포츠센터 _가작

SONG-DO OCEAN LEPORTS CENTER

설계자 : 공부성 | 루가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오승한, 윤지웅, 김현정
전문기술협력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주)부흥 E&C
– CG : HOW C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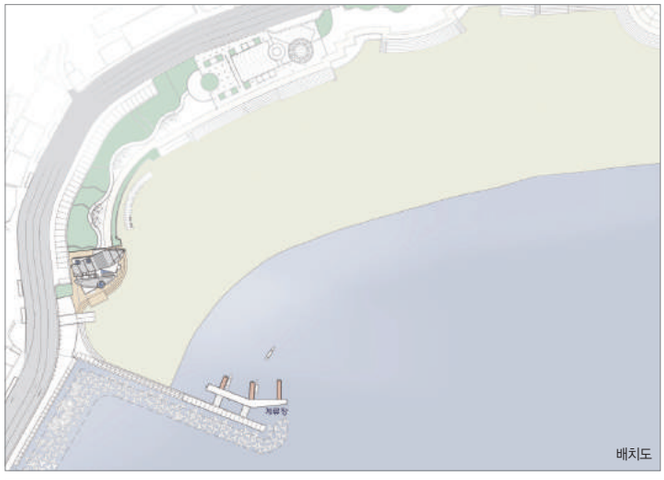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35-5번지
지역/지구	근린공원(송도공원),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50.00㎡
건축면적	288.02㎡
연 면 적	469.63㎡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
규 모	2층

송도해수욕장은 낮보다 밤이 더 활기찬 도시경관을 가지고 있다.
흥정하는 횟집상인들, 산책하는 주민들, 백사장에 앉아 휴식하는 주민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추억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 다이빙대, 많은 소나무, 케이블카, 거북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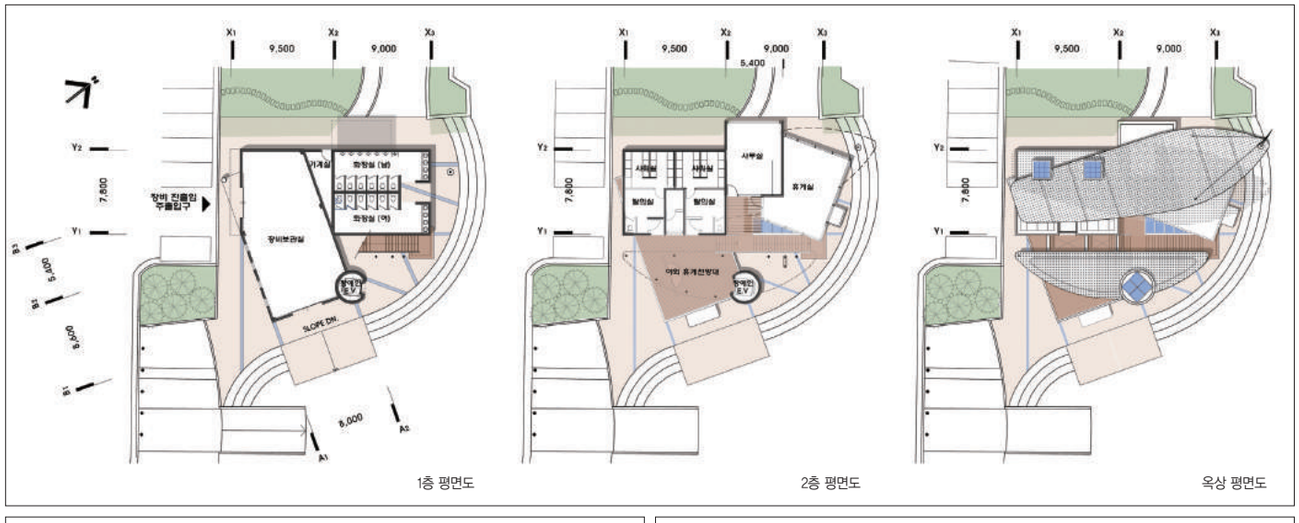
시간이 흘러 송도는 활기가득찬 과거 여름을 뒤로 하고 현재의 송도해수욕장 바다에는 고래 모형이 설치되어 있다. 다시금 지나가버린 활기찬 송도를 꿈꾸는가 보다. 해양스포츠가 활성화되어 먼 바다까지 나아가서 진짜 고래를 만나러 가는 꿈을 꿔 본다. 요트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다양하고 활기찬 에너지들을 해양레포츠센터에 담아내보고자 빛이 투과되는 성격을 가진 폴리카보네이트 매스덩어리를 쌓아올려서 레포츠센터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해수욕장의 끝단부에 위치하여 인지성 있는 재료를 제안하였으며, 계류장과의 시각적 연계를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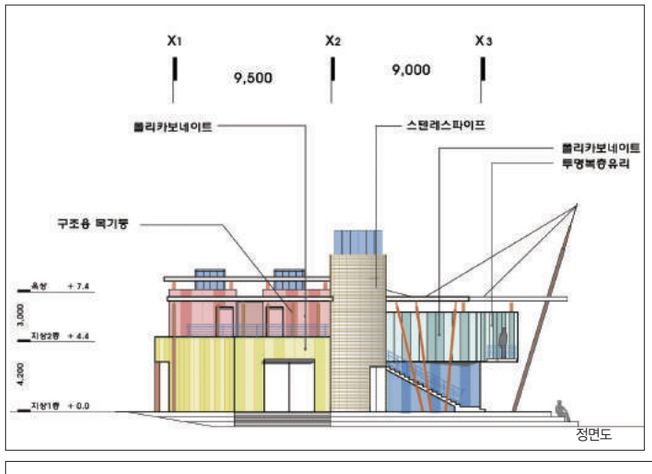
송도해수욕장에 설치되는 레포츠 시설은 좀 투박하고, 직설적이고 화려하면서도 바닷가의 많은 이야기가 담길 수 있는 빛나는 덩어리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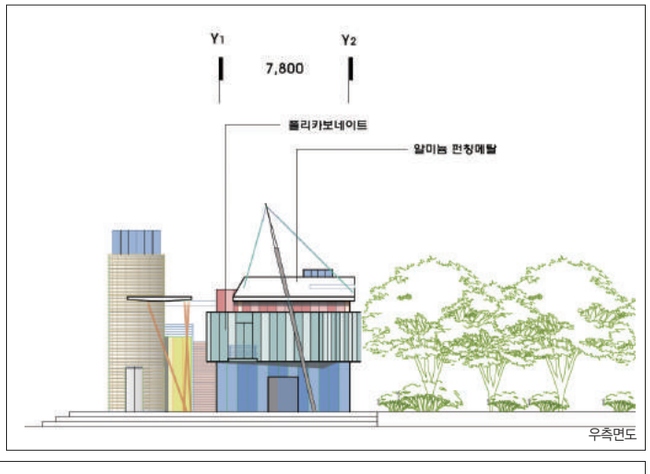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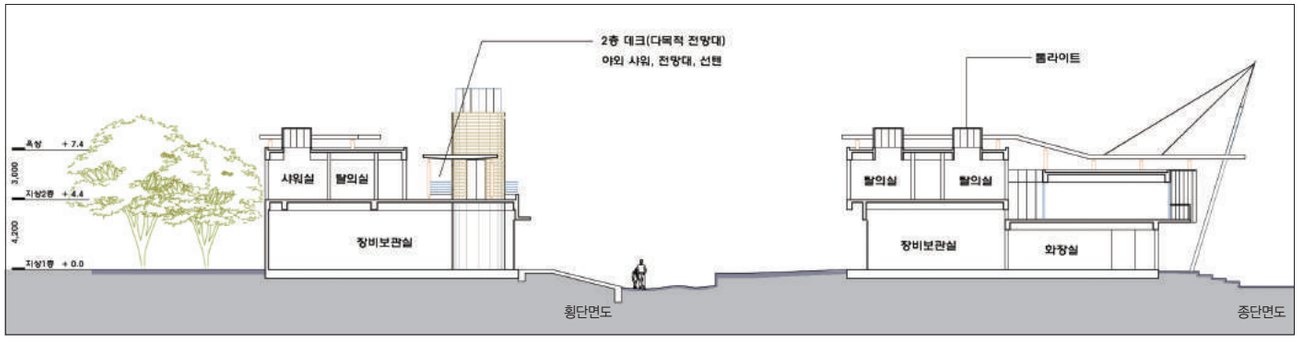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옥상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서구 송도해수욕장 해양레포츠센터 _가작

SONG-DO OCEAN LEPORTS CENTER

설계자 : 허원석, KIRA | 고도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인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35-5번지
지역/지구	근린공원(송도공원),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	340.00㎡
건축면적	374.01㎡
연 면 적	481.81㎡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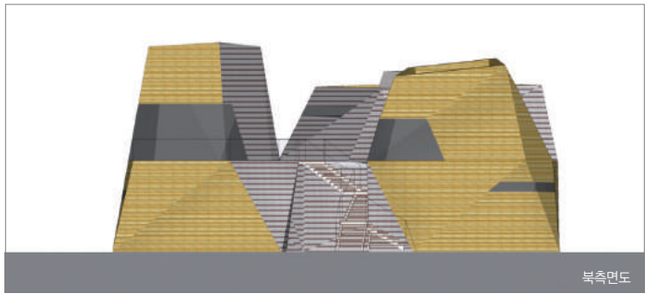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경계에서 색다른 해안의 경관을 창조하고, 바다와 인간을 잇는 기반시설로서 반짝거리는 송도의 아이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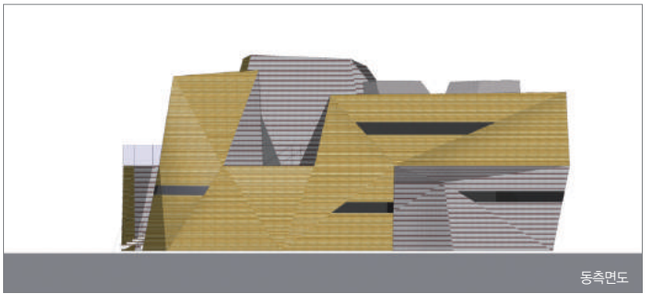
3개의 군도_거북바위와 혈청소 등 멋진 해안의 풍경을 인근에 두고, 도시에서 바다로의 진출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이곳에 해안의 풍경을 닮은 해양레포츠 시설을 계획한다. 드문 드문 솟아오른 기반시설의 볼륨은 이러한 해안의 경관을 환유(METONYMY)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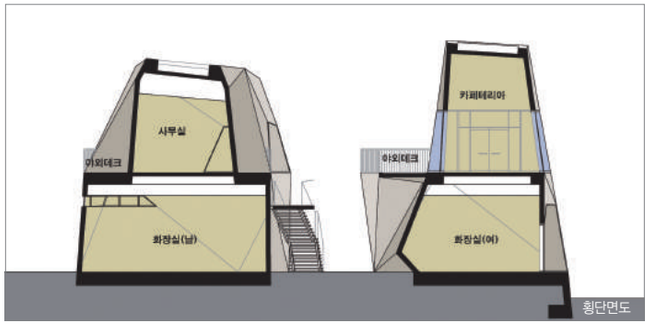
3곳의 저층부 통로_송도 해변공원의 산책로를 계류장으로 이어서 암남공원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3곳의 출입구를 뚫는다. 공원의 출발점에 해변으로부터 직접, 암남공원으로부터의 지점에 놓인 출구는 외부이지만 바위틈의 내부인 듯 내밀한 공간의 연속이다.

3개의 상층부 외부공간_바다와 도시를 향한 경관을 대형 데크 등으로 한 번에 싱겁게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 건물의 틈 사이로 보는 듯, 해변과 수평선, 도시를 선택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다. 휴게실 전면의 데크에서 해변 및 근해를 바라보고, 사무동과 휴게동 사이의 데크에서 저 멀리 바다 수평선을 취하며, 사무동과 샤워동 사이의 데크에서 바로 뒤편의 도시를 바라보는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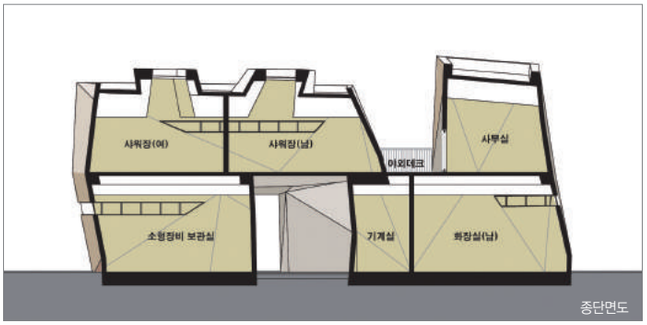
배치도


북측면도


동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COMPETITION

군산.새만금 산학융합지구 _당선작

GUNSAN SAEMANGEUM INDUSTRIAL ACADEMIC COMPLEX DISTRICT

발주처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설계자 : 이길환, KIRA | (주)길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완중, 설형진, 김대진, 선태훈, 허철, 김진배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CS구조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부윤Eng

– 기계설비분야 : 부윤Eng

대지위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15-4번지외 1필지
지역/지구	준공업지구,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주요용도	교육 및 연구시설
대지면적	3,300㎡
건축면적	1,375.66㎡
연 면 적	6,580.00㎡
건 폐 율	41.69%
용 적 률	199.39%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7층

대지는 바다위의 떠 있는 세개의 섬을 이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땅이다.
인간이 땅에 적응하는 방식을 깨닫는다면, 이 새로운 도시는 시간과 함께 할 '기억과 미래'를 필요로 한다.
기존의 산업단지에 설정된 산학융합지구는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에 인간의 삶을 이식하는 (Transplant) 재활행위이다.
기계적 대지는 인간과 공존하는 따뜻한 장소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산학융합지구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시, 건축 프로그램의 복합적 융합으로 도시에 에너지 '칩(Chip)'을 삽입한다.

INNOVATION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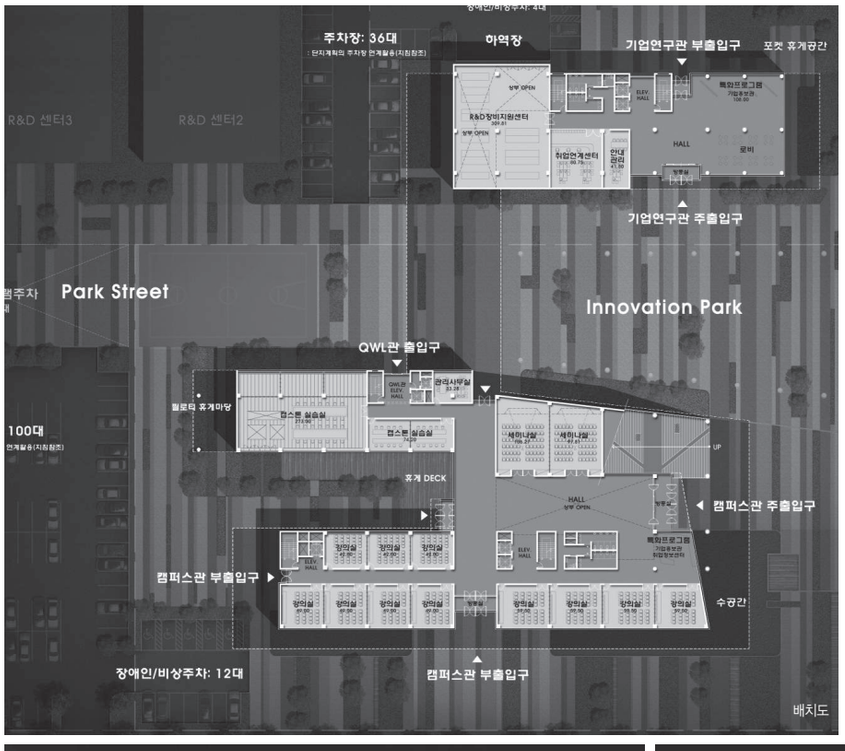
Green chip은 도시와 Park로 만난다. 인간과 공존하는 도시로 복원되며,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산학융합지구는 전체산업단지의 변화를 유도하는 공공의 개념을 지니며 그 공간은 휴게와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OPEN PARK

산업단지의 미래를 책임지는 변화의 거점으로서 그 경계를 배워 나간다.
비어진 장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행위, 소통, 휴식 등이 일어나는 특별한 장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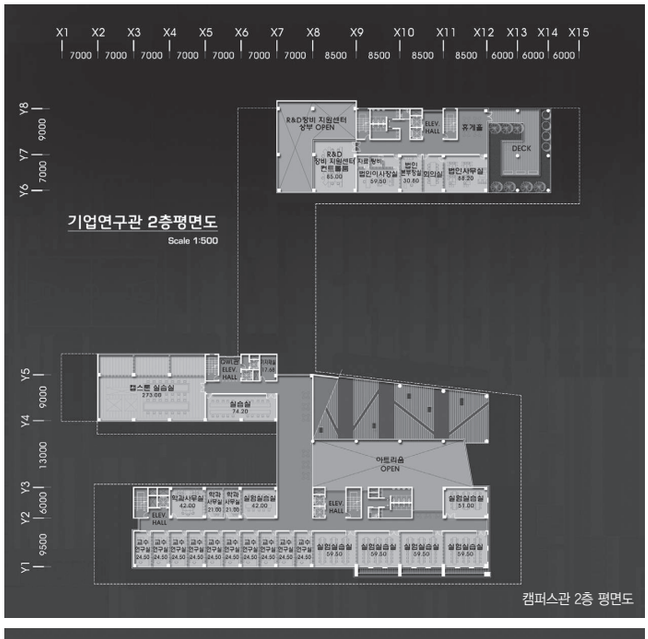
TRANSPLANT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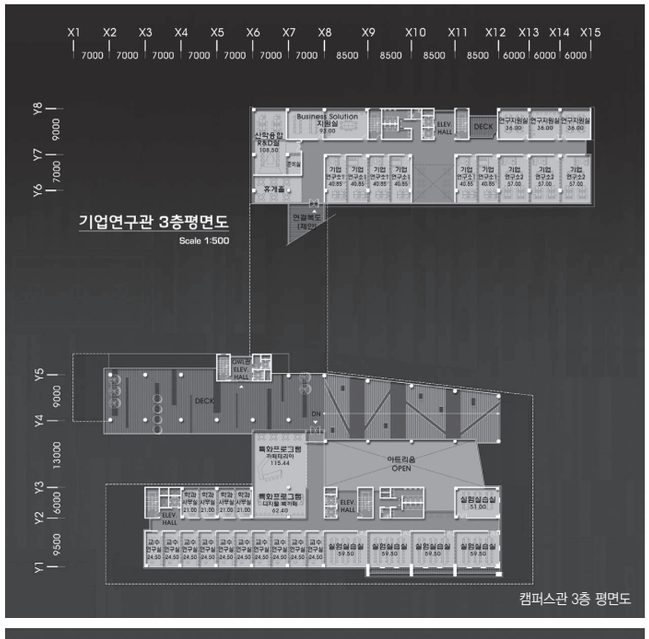
따뜻한 인간성의 회복, 비워진 장소로부터 시작된 변화는 생산만을 위해 만들어진 산업단지를 인간과 기계,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의 공간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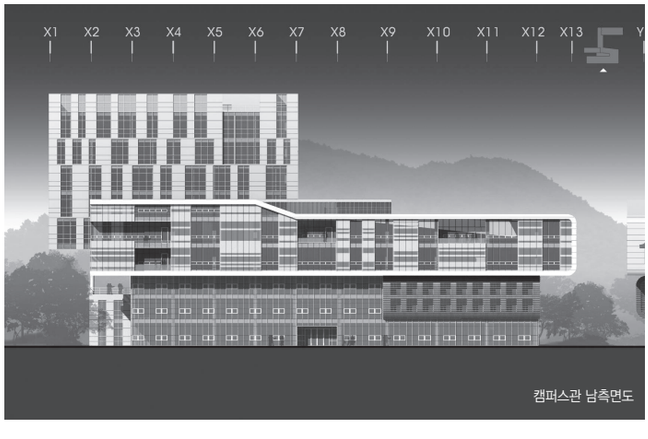

주차장: 36대
: 단지계획의 주차장 연계활용(지침참조)
하역장
기업연구관 부출입구
포켓 휴게공간
R&D 센터3
R&D 센터2
R&D정비지원센터
기업연구관 주출입구
Park Street
Innovation Park
QWL관 출입구
캠퍼스관 주출입구
캠퍼스관 부출입구
수공간
100대
장애인/비상주차: 12대
캠퍼스관 부출입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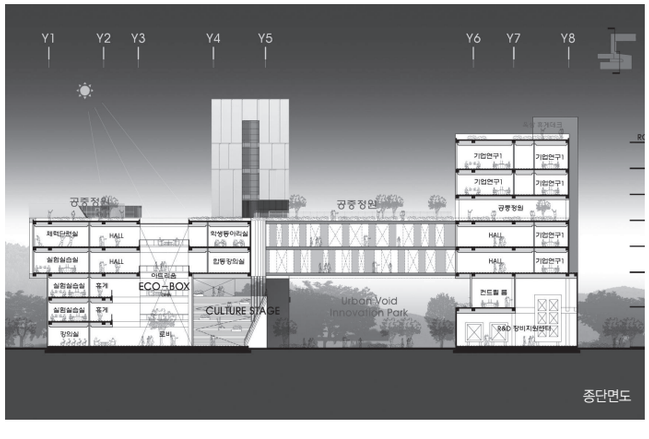
2TBI

CAMPUS


기업연구관 2층평면도
Scale 1:500
캠퍼스관 2층 평면도


기업연구관 3층평면도
Scale 1:500
캠퍼스관 3층 평면도


캠퍼스관 남측면도


공중정원
ECO-BOX
CULTURE STAGE
Urban Void
Innovation Park
종단면도

COMPETITION

군산.새만금 산학융합지구 _우수작

GUNSAN SAEMANGEUM INDUSTRIAL ACADEMIC COMPLEX DISTRICT

설계자 : 양병범, KIRA |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최재영**
설계팀 : 건축_정현아, 박주현, 채승훈, 고영탁, 임용훈
전준홍, 이비오, 임지혜, 장진배, 이동준
조경_양영균, 박효정, 유재영

대지위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15-4번지외 1필지
지역/지구	준공업지구,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주요용도	교육 및 연구시설
대지면적	13,217㎡
연 면 적	18,411.33㎡
규 모	지하 1층, 14층

군산산업단지 내에 조성될 산학융합지구는 산학단지와 대학의 공간적 통합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산학융합 선진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학교육대학의 모델을 시행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

디자인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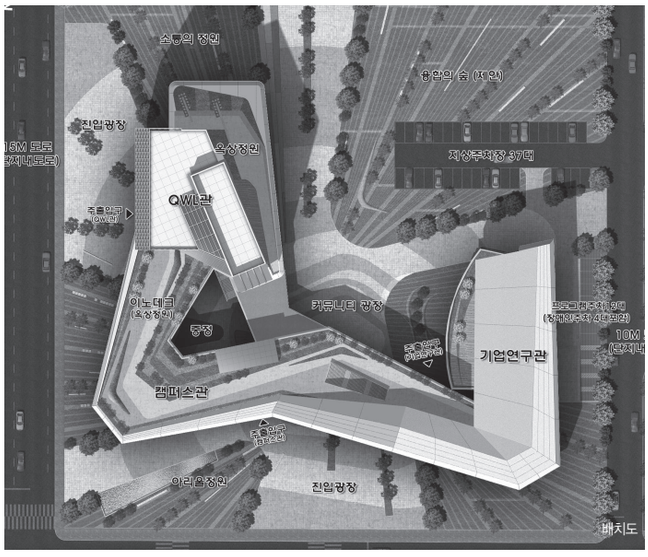
글로벌게이트 – 미래를 이끌어갈 학문과 기술 및 인재육성_주변 건물군과 같은 단순한 조형을 지양하고 수평적 안정감과 수직적 상승감과 역동성을 강조하여 세계를 향한 서해안 시대의 아이콘이 되는 미래지향적이며 상징적인 건축물을 계획하고자 한다.

그린 컨버전스 – 산업과 학문의 자연과 융합_자연이 중심이 된 수준높은 교육 및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다양성을 흡수, 융화시키는 매개중심공간으로 친환경적 건축공간이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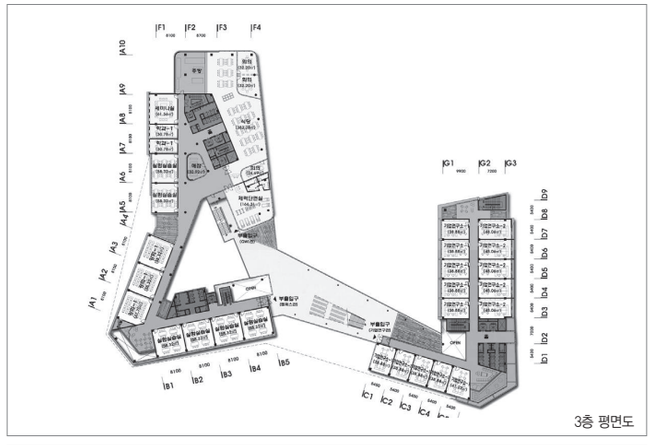
스마트 헤드쿼터 – 산학공동체미래의 중심_교육과 연구를 위한 열린공간과 근로자들의 문화 복지공간을 담고 있는 정보교류와 만남을 위한 산업단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한다.

디자인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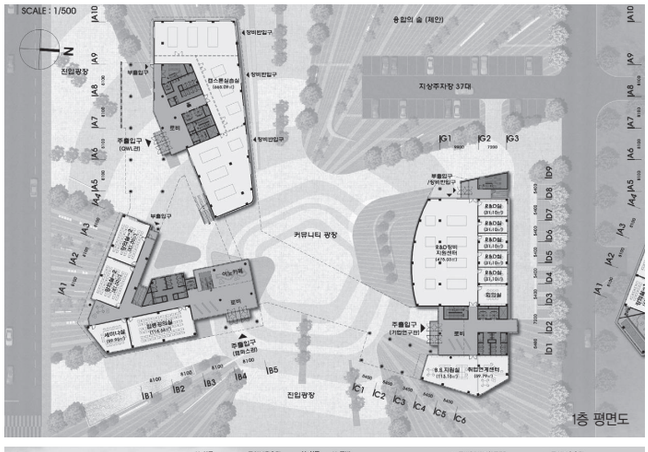
이노-파크_다양한 영역에 사람들의 자유로운 만남과 소통을 매개하는 '융합공간'들을 통해 혁신적인 생활양식을 만들어가는 산학융합도시의 새로운 중심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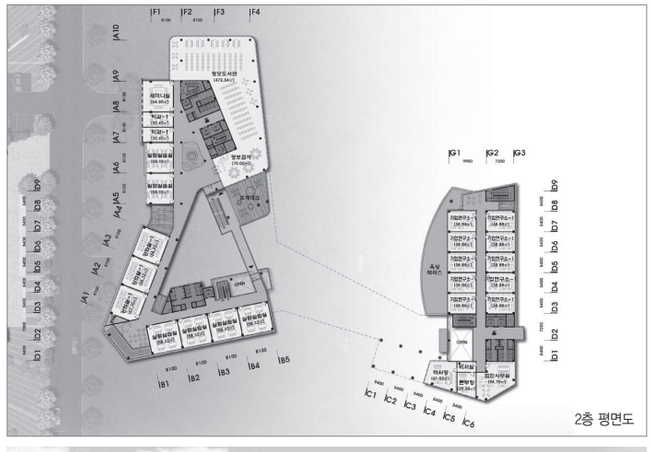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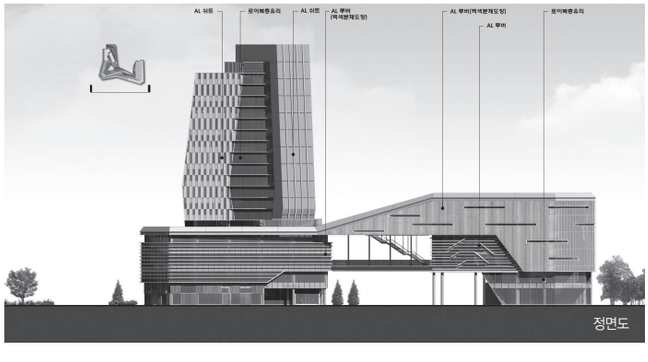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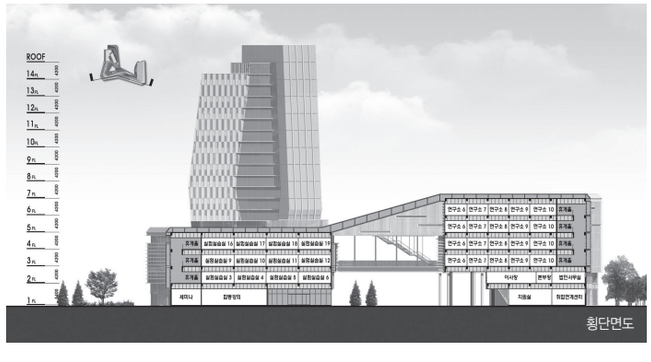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횡단면도

COMPETITION

이천 신하 도서관 _당선작

ICHEON SHINHA LIBRARY

발주처 : 이천시 평생학습센터

설계자 : 김용미, KIRA |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조진홍, 김상회, 김아원, 이정섭, 김원일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민환석 (환구조)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성정현 (건창)

– 기계설비분야 : 최순신 (삼우태라)

– 토목분야 : 이주성, 이기환 (나우ENC)

– 조경분야 : 금성건축

대지위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산29–27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도서관
대지면적	4,833.00㎡
건축면적	957.24㎡
연 면 적	3,542.98㎡
건 폐 율	19.81%
용 적 률	42.51%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3층

Intro_우리동네, 책이 있는 공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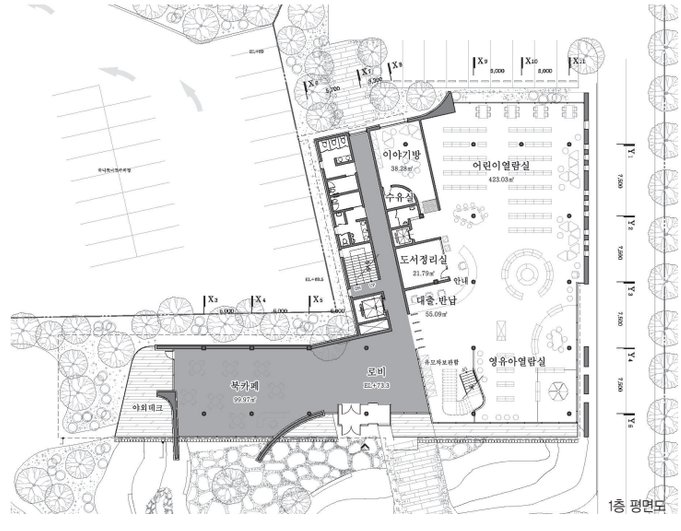
계획의 주안점_이천시 신하 도서관은 주변 녹지의 흐름을 이어주는 자연과 함께하는 도서관이다. 도서관 외부공간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터이자 문화를 공유하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도서관의 프로그램 조닝은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도서 관리 용이 및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건물 형태에서는 이천 도자기와 같은 유연한 곡선으로 담아내어 소박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건축계획_이천시 신하 도서관은 자연 채광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건축적인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지하공간은 자연경사를 활용하여 계획된 선큰을 통하여 일사가 유입되도록 하여, 문화교실 및 자유열람실에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상 3층 공간은 수직 루버 및 천창(BIPV 적용)으로 자연 채광 뿐 아니라 일사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북카페(지상 1층) 및 외부공간과 연계된 공간을 계획하였다. 외부공간은 주변 녹지의 흐름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휴게 공간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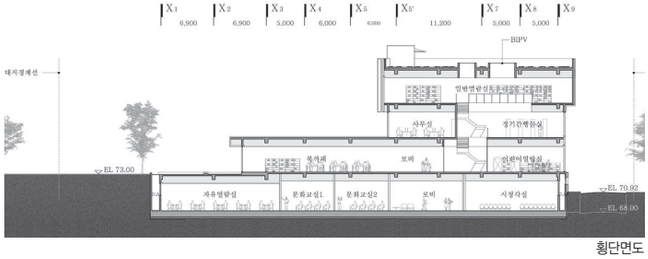
옥상 공간에는 BIPV의 적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옥상녹화를 통해 에너지 손실이 감소되도록 하였다. 우수계획은 지형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한 계획으로, 하천의 건천화 예방, 친환경 옥상조경, 도시 열섬현상 저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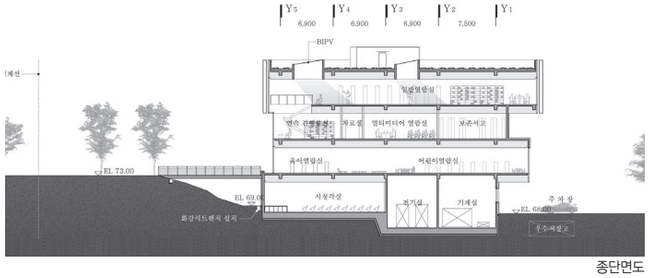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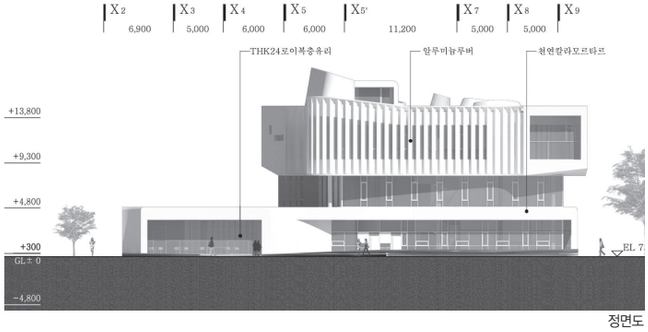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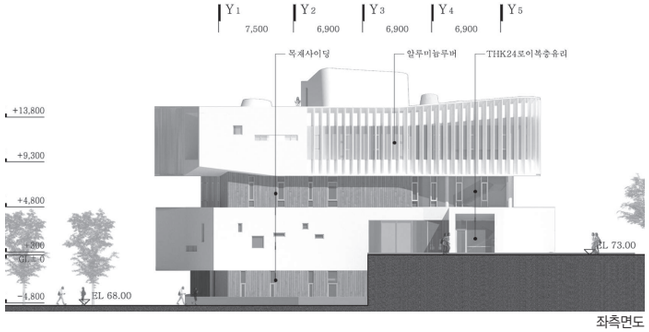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COMPETITION

이천 신하 도서관 _우수작

ICHEON SHINHA LIBRARY

설계자 : 정해상, KIRA | (주)디자인그룹금성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전영식, 이정훈, 조남석, 김형래, 조수양
함문주, 장혁수 | C.G : 김윤수, 오재진

대지위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산29-27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4,833.00㎡
건축면적	964.72㎡
연 면 적	3,500.91㎡
건 폐 율	19.96%
용 적 률	53.37%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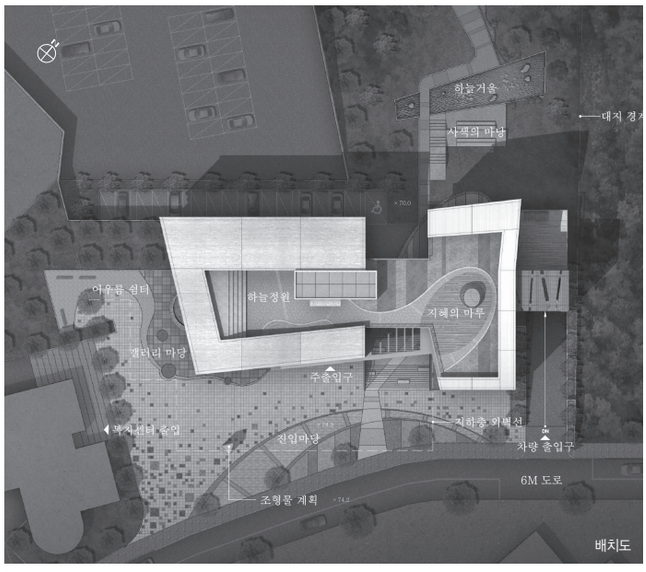
Green Bookmark_텍스트와 여백의 경계, 생각과 세상의 경계, 마을과 자연의 경계, 그 경계에 녹색 책갈피를 끼운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공간, 평생교육, 문화, 휴식이 어우러져 있는 작은 숲을 제안한다.

배치계획_기존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신하초등학교 및 주민복지센터와 공유되는 광장을 계획함으로 주민에게 열린 도서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광장의 독립성을 위한 주차계획과 주변 녹지로의 연계를 고려한 배치는 자연과 친숙한 숲 도서관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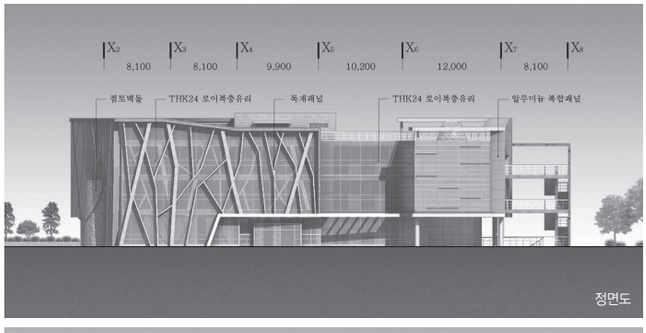
평면계획_공용홀을 중심으로 열람공간과 사무/문화 공간으로 동선을 분리하여 이용자에 따른 영역성을 확보하고, 내부 실들은 가변형 벽체를 통해 수요변화에 능동적인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입면계획_자연적 요소와 도시적 요소의 '대응'과 '투영'을 통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입면을 계획하였다. 숲을 형상화하는 입면은 자연적, 현대적인 이미지를 통해 친숙한 도서관으로 열려진다. 알루미늄패널과 목재패널은 세련되지만 자연과 친숙한 재료로써 숲의 이미지에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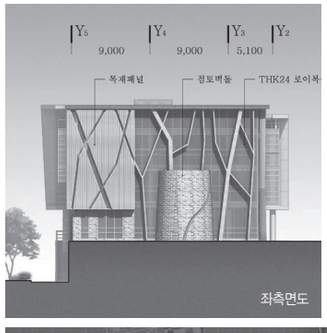
단면계획_ 대지 내 절, 성토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존 원형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지하층 계획을 하였고, 1층부 진입광장에 대한 개방성을 확보하며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산책길로 유도되는 단면을 계획하여 지역주민이 다양한 외부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실내 환경을 극대화하는 채광계획으로 지상 1층에서 지붕층까지 관통하는 지식의 씨앗(광정)은 특별한 공간을 경험토록 한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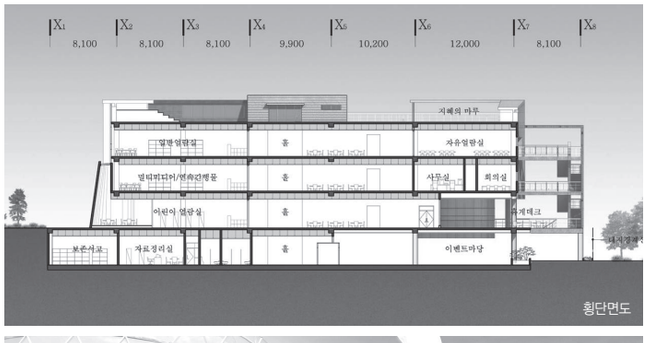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친환경건축과 조경

Sustainable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

이애란 |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이사

이 글은
현업에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직원들이
조경에 대한 기술습득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그에 속한 생명요소 그리고 생태계라는 시스템에
책임과 의무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 중의 하나가 되길 바라며,
미래의 세대가 우리와 동등이상의 건강한 일상을
누리고 그 시간이 지속되길 갈망한다.

필자는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주)정림건축, 솔토조경, 희림건축을 거쳐 현재 (주)해안건축에서 조경설계실을 맡고 있다. 조경기술사와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현재 아주대, 단국대, 연세대 건축학과에서 조경과 건축을 강의 하고 있다.

조경수목

현재 지구상에는 약 30만종이 넘는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인간은 다양한 식물에서 자신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식량을 구하고 병의 치료에도 절대적 역할을 해왔으며, 인간정신의 건강 함양에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경식물은 크게 자생종(native species)과 원예종(ornamental species)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 조경소재용 식물은 94과 322속 486종 등 총 589분류군이다.

음수와 양수의 구분

음수(내음성 수종)란 광도가 낮은 곳에서 광합성을 하며 견딜 수 있는 수종으로 주목, 복자기, 단풍나무, 회양목, 맥문동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모든 생물은 하루 4시간이상의 빛이 없는 영구음지에서 생육하기는 어렵다.

양수란 광도가 높은 곳에서 광합성을 하며 성장하는 수종으로 가로수로 이용되는 수종들, 은행나무, 소나무, 자작나무이며 유실수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중용수는 내음성이 일부 가능한 수종을 말한다.

건조지 수목과 호습성 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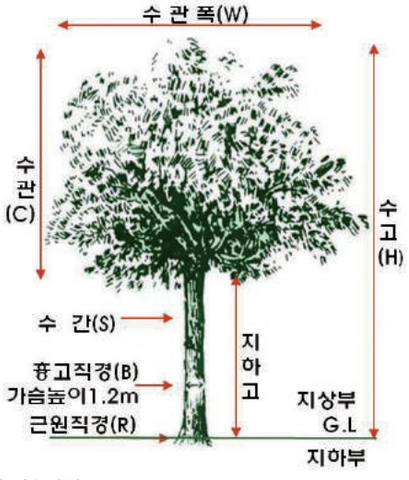
식물은 체내 삼투압을 조절하고 물과 무기영양소를 전달하는 수분의 필요량이 있는데 이를 유효수분이라 한다.

건조지 수목은 이 유효수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아 식재시 높여 심어 배수가 원활해야 하는 수목으로 소나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수수꽃다리, 무궁화가 대표적이다.

호습성 수목은 유효수분량이 많아 수변가나 해안가, 물기를 머금은 토양에도 잘 자라는 수목으로 겹벚나무, 메타세콰이어, 낙우송, 고로쇠, 자작나무, 단풍나무, 자귀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조경수목의 구성

조경용 수목은 건축법 조경기준에 따라 일정규격이상을 이용하여야 법정 산정 수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교목은 H2.5, R5, W0.6 이상 이어야 한다. 조경의 규격의 그림과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교목과 관목, 지피의 규격을 산정한다.



〈표.1〉 수목의 치수단위

기호	H	W	R	B	C
영문	height	width	root	breast	crown
단위	m	m	cm	cm	m

수목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상록교목 : H x W(or H x R x W 조형소나무)
낙엽교목 : H x R(or B: 은행, 자작나무 등)
지피초화 : 포트, 분얼, 치(길이)

무궁화의 예) *Hibiscus* *syriacus* Linne
속명 종명 명명자이름

- 속종명은 기울여 씀
- 속명의 앞자는 대문자, 종명의 앞자는 소문자

또한 국가 간 설계 시는 학명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자생종과 지구상 생물군계 별로 같은 종이나 생육형태가 전혀 상이하거나 식재불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상별 분류

교목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을 말한다.

이 중 상록교목은 소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등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가지는 교목이며, 낙엽교목은 참나무, 밤나무 등과 같이 가을에 잎이 떨어져서 봄에 새잎이 나는 교목을 말한다.

관목

관목은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나무 줄기가 지상부에서 다수로 갈라져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수목을 말한다. 상록과 낙엽으로 나뉜다.

지피류(groundcover plant)

지피식물은 지상부의 목질부인 나무줄기가 없이 잎이 자라는 식물로, 잔디, 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초화류라 함은 옥잠화, 수선화, 백합 등과 같이 초본(草本)류 중 식물의 개화 상태가 양호한 식물을 말한다.

만경목(climber)은 벽면녹화 등 입체녹화의 기술개발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덩굴성 식물로 대표되며, 기구나 벽을 타고 사방으로 번식하는 식물을 말한다. 상록성의 줄사철과 거친 벽을 타는 담쟁이, 미국담쟁이, 헤데라류(아이비), 파고라 등에 보라색 꽃의 등나무, 여름철의 오렌지빛 큰꽃 능소화, 덩굴장미, 각 계절의 으아리류, 인동덩굴, 열매가 맛있는 으름덩굴 등이 이용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수목 소나무

소나무과(Pinus)

학명으로 Pinus라는 속명을 가진 나무를 우리는 소나무라고 부른다.

소나무과에는 크게 10여 종이 있는데 시각적으로 잎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나무(육송, 육지의 소나무, 적송은 과거 일본인들이 붙인 용어로 절제하기 바람)는 Pinus densiflora이

잎의 수에 따른 분류

2엽송 – 육송(적송), 곰솔(해송), 방크스소나무

3엽송 – 백송, 리기다소나무

5엽송 – 스트로브잣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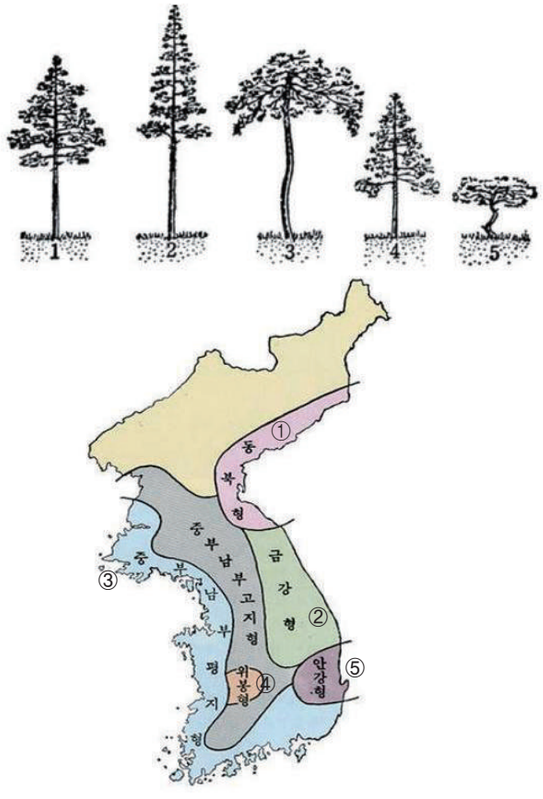
다. densiflora란 꽃과 잎의 밀도가 치밀하다는 의미의 종명으로 쓰인다. 또한 잣나무 [紅松(홍송), Korean Pine(영명) Pinus koraiensis(학명)]도 계통으로 보면 소나무과이다.

현재 조경수 이용으로 등록된 분류에 따르면 교목으로 소나무, 조형소나무, 장송, 해송(곰솔, 바닷가의 염해에 강한 수종)과 관목으로 반송(둥근소나무)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특수목으로서의 조형적 작품성을 가진 조형소나무들은 시가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금강소나무(for. erecta)는 줄기가 밋밋하고 곧게 자라며 외형적으로 소나무의 형태이나 곰솔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나무와 곰솔간의 잡종으로 본다. 처진소나무(for. pendula)는 가지가 가늘고 길어서 아래로 늘어진 형태이다. 반송(盤松:for. multicaulis)은 줄기 밑부분에서 굵은 곁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수형이 우산처럼 다북하다. 은송(for. vittata)은 잎에 흰색 또는 황금색의 가는 선이 세로로 있다.

지역에 따른 소나무의 환경순응에 의한 개체군 형태는 아래와 같다.

〈그림.1〉 자연환경에 따른 수형



식재 시 주의점

소나무는 대표적 건조성수목이다. 따라서 식재와 배수체계에 각별히 신경을 써여 한다. 원재배지나 농원에서 뿌리돌림하여 운반 시 뿌리분의 크기와 절개, 목대(지상부와 지하부가 만나는 부분)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장령수이므로 세월에 대한 수목의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재시는 주변지형보다 높게 마운딩을 하여 심식(깊이 심기)하지 않도록 하며, 배수가 바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뿌리분의 말단부에는 수직과 수평으로 자갈층이나 자갈망을 설치하여 뿌리 말단부에 물고임으로 썩음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자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소나무용의 비료가 따로 있으므로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용별 분류

분류	특징	식물명
녹음용 shade tree	여름철 강한 햇빛 차단 지하고를 일정 높이로 유지	가시나무, 녹나무, 가중나무, 팽나무(주로 남부), 은행, 느티, 단풍, 양버즘, 백합, 이팝, 회화나무 등
생울타리/차폐용 tree hedge	경계와 시선차단, 행조절기능 맹아력 강하고 전정에 잘견디며 꽃과 열매, 아랫가지 건강함	가시나무류, 광나무, 애기동백, 아왜나무, 삼나무, 탱자, 꽝꽝나무, 호랑가시나무(남부) 측백, 편백, 화백, 회양목, 명자, 사철, 쥐똥나무, 눈주목, 미선나무, 개나리, 철쭉류
방풍용 shelterbelt	심근성 수종으로 지엽이 치밀 하고 잘 부러지지 않은 가지와 줄기, 넓은 수관층을 지니고 있어 강함 풍압에 강함	감탕나무, 동백나무, 삼나무, 팽나무, 후박나무(남부) 곰솔(해송), 사철나무
방진/방사/ 방연용	대기 중에는 먼지형 염물질의 먼지흡착과 지표침식방지 기능 수관층이 넓거나 지면을 빽빽이 덮을 수 있으며, 줄기가지 요철, 잎뒤의 털, 내오염성 식물	눈향나무, 동백나무, 사철나무, 쥐똥나무, 양버즘나무, 해당화, 대부분의 지피식물 등이 속함. 공장과 자동차 배기내성 수종: 태산목, 아왜, 광나무(남부), 사철, 팽나무
방조/ 임해매립지용	해안지방은 강한 바람과 파도의 침식, 염해의 물리화학적으로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는 수종	다정큼나무, 돈나무, 동백나무, 아왜나무, 위성류, (남부)위성류, 소사나무, 쥐똥나무, 팔손이, 통보리사초, 순비기나무
방화용	화재의 방지 혹은 확산 막음. 잎이 두껍고 함수량이 많음	가시나무, 굴거리, 동백나무, 식나무, 아왜나무, 후박나무, 사철나무

※ 주의 :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계획시 특히 적용하여야 한다.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한 조경식물 리스트의 예

식생도입시 식물자체의 성장유형과 성장속도, 적응가능환경에 대한 기본사항을 알아야 그 장소에 사용가능한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현상설계나 제안에서 보여지는 조감도는 한번에 여러계절의 수목의 형상을 한 장에 담은 것으로 각 시기별 공간의 느낌은 아니다.

따라서 식물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을 통해 가능한 식재와 경관 연출을 예측하여 건강하고 지속적인 조경생태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별첨자료 참조 : 별첨 〈표1〉, 〈표2〉, 〈표3〉, 〈표4〉

〈표.2〉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한 장소별 조경식물의 예

구 분			수 종
지상부	대교목	상록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낙엽	참나무류(굴참, 대왕참, 신갈, 졸참, 떡갈, 상수리), 청단풍, 메타세콰이아, 감나무, 왕벚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모과나무, 회화나무, 칠엽수
	중·소교목	상록	향나무, 주목
		낙엽	꽃사과, 꽃아그배, 꽃복숭아, 귀룽나무, 모감주나무, 목련, 배롱나무, 산딸나무, 산벚나무, 산사나무, 산수유, 살구나무, 이팝나무,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꽃산딸나무, 노각나무, 복자기, 주엽나무
	관목	상록	눈향나무, 둥근주목, 회양목
		낙엽	덜꿩나무, 말발도리, 목수국, 무궁화, 수수꽃다리, 진달래, 개나리, 명자나무, 병꽃나무, 산철쭉, 영산홍, 조팝나무
옥상부	세덤류	상록	흰꽃세덤, 파랑세덤
		낙엽	노랑세덤, 분홍세덤, 기린초, 돌나물, 꿩의비름
	지피초화류	상록	수호초, 맥문동, 상록패랭이
		낙엽	감국, 꽃창포, 노랑꽃창포, 덩굴장미, 매발톱꽃, 벌개비취, 부처꽃, 붉은인동, 붓꽃, 비비추, 양지꽃, 옥잠화, 왕원추리, 작약, 제비꽃, 구절초, 큰까치수염, 땅비싸리, 참취, 산부추
	줄류/새류		참억새, 억새, 수크령, 그늘사초, 김의털, 파란김의털
	덩굴류		담쟁이덩굴, 청미래덩굴, 청가시덩굴, 머루

대지내 녹지

'녹지'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와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며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된다.

생태적 입체녹화

인공구조물의 입체녹화는 미기후조절이나 생태환경과 경관, 건물보호 등의 환경조절기능을 가지며 인간의 감성과 정신적 건강 등 심신에 어메니티 효과를 창출한다. 적용 유형으로 자연복원형 사면 등 옹벽대체녹화, 옥상과 지붕녹화, 입면녹화로의 벽면과 담장, 옹벽녹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공물과 인공대지를 개선하는 입체녹화기법은 다면, 다형의 건축물 외피 녹화를 통한 효과와 자연순환기능을 회복하는 투수성을 갖는 포장면을 통한 효과를 들 수 있다.

〈표.3〉 건물 외피 생태적 조성의 효과

	세부지표명	옥상	벽면
경제적 효과	건축물의 내구성향상	• 산성비에 대한 방수층 • 자외선 차단으로 상부층의 노화방지 • 건축물에 대한 온도변화 경감	• 벽면의 보강 • 건축물에 대한 온도변화 경감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 옥상의 단열효과 • 냉난방비의 절감	• 서측면의 차열 효과 • 냉난방비의 절감
도시환경 개선효과	경관의 향상	• 인공감의 저감 • 선의 스카이라인 창출	• 인공감의 저감 • 건물의 깊이감 창출 • 벽면의 차폐
	도시의 이상 기온완화	• 기온상승억제 · 온도조정 · 방풍 녹음의 형성 · 반사(눈부심)방지	
	공기정화	• CO_2, NO_2, SO_2의 흡수(중금속의 흡수)	
	우수유출완화	• 우수저장기능	
도시생태계 보호		• 새나 곤충의 서식지 · 먹이제공 · 휴식 거점의 창출	
기타	교육적 · 생리적 · 심리적 효과	• 스트레스 해소, 긴장감 저감 • 시각피해의 회복 • 불쾌감 저감	• 호흡기관 활성화 • 심리적 안정감 •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
	공간창출	• 레크리에이션 장소로 이용 • 채소밭, 생태연못 등의 생태 교육장으로의 활용	• 교과교재로 활용
	소음저감	• 운동장 및 외부로부터의 소음 저감	

※ 자료 : 서울특별시, 건물옥상녹화 학술용역, 200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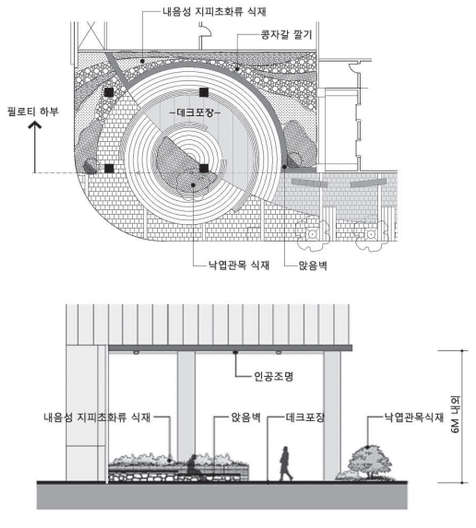
녹화기법

가) 필로티 공간

필로티는 자연스럽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중간영역으로서 이용되며, 안전성의 확보 하에 주요한 옥외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개공지 등의 공공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조성 기법〉

최대한 음침하거나 보이지 않는 공간이 없도록 개방감을 확보하고, 자연 채광 근원지와 필로티의 주변부, 천장의 개방성이 인



〈그림.2〉 필로티하부계획 평면도 / 입단면도

접한 곳에 내음성(耐陰性) 식물을 식재한다. 단 하루 4시간 이상의 자연광이 들어와야 한다.

수종으로는 주목, 고사리류, 맥문동, 회양목, 영산홍, 눈주목, 수호초, 마삭줄 등이 있으며, 관수와 시비, 자갈이나 우드칩을 이용한 멀칭을 해주어야 한다. 〈그림 1 참조〉

나) 벽면식재

지상녹화와 옥상녹화의 수평녹화과 동시에 수직환경의 녹화방법은 점차 적극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등반형으로 지상에 뿌리를 두고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내리는 유형이었으나 현재는 직접 벽면에 부착하여 환경기반 자체가 벽면인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녹시율의 개념에서 적극적 녹화방법임과 동시에 좁은 공간에 더 많은 녹의 환경을 원하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조성 기법〉

– 식물은 지구상의 중력방향으로 양분을 따라 성장하는 뿌리부문과 태양을 향해 성장하는 지상부로 나뉜다. 벽면녹화는 이러한 두가지 생육환경을 극복하고 개발된 방법이다.

– 벽면의 박스나 쉬트, 물속에 뿌리부분을 성장시키고 지상부가 수직으로 성장하지 않는 수종을 선별하여 주로 수평으로 퍼지는 초본류를 선택한다.

– 뿌리는 수염뿌리형태가 주를 이루어 벽면을 파고들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기반안에서만 성장하므로 성장의 한계를 드러낸다.

– 지상부는 나이테가 있는 목질부가 없이 바로 잎과 줄기고 성장하므로 수평생장의 연속이며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는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 이러한 식생의 과정은 결국 벽면녹화란 상시 관리하고 급배수시설 등 유지시설을 확보 함과 동시에 사계절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4〉 벽면녹화의 분류

구 분			특 징
벽면녹화	덩굴식물이용	벽면부착 등반형	일반적 수법으로 벽면의 기부에 식재하여 벽면에 직접 부착, 등반
			표면이 거칠한 경우에 적합하며, 매끄러운 경우에는 녹화 어려움
		보조재 등반형	벽면에 네트, 격자 등의 보조재를 설치, 등반시킴
			벽면의 구조, 재질에 구별없이 녹화가능
		하수형	옥상, 베란다 등에 식재용기를 설치하여 신장하는 덩굴을 하수시키거나, 보조재를 설치하여 하수, 각종 베란다가 있는 건물에 유용
		면적형	벽면의 곳곳에 포켓 모양의 식재공간을 설치하여 식재
			장대한 벽면의 녹화에 유용
		등반 하수 병용형	벽면의 하부에서는 등반, 상부에서는 하수를 동시에 실시
			벽면이 장대한 경우나 전면녹화를 급속히 실시하는 경우에 유용
	베란다 이용		베란다에 식재용기(플랜터)를 설치하여 관목, 초본을 식재
			각 층에 베란다가 있는 건물에 유용
	벽면장치 이용		벽면 자체에 인공지반이나 화분을 붙여서 식재공간을 장치
			다양한 식물을 식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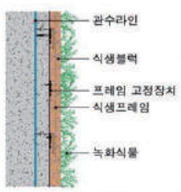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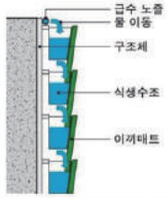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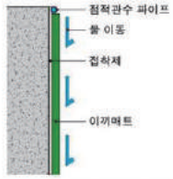
– 한달에 두 번이상 식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적관수 등 일정시간 정기적 급수를 하며, 사방의 빛을 분산시켜 전면으로 성장하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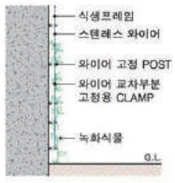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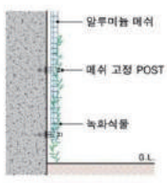
– 박스형이나 메스의 포트 삽입방식은 유지관리와 수목 교환시 편리하나 초기공사비는 m^2당 상당히 고가임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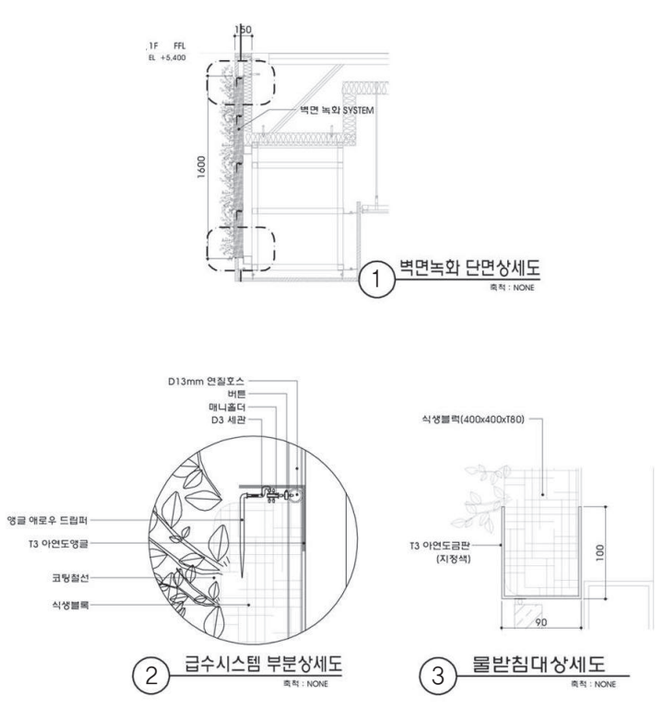
다) 옥상녹화

옥상녹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건축 차원에서 도시생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옥상녹화가 연구되기 시작한 이후, 옥상의 친환경녹화개념으로 지상과 옥상을 연결하는 경사형 공간의 녹화까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표.5〉 벽면녹화 기반보조재별 기법

구분	식생기반재형		
	블럭형	수조형	매트형
단면			
특징	친자연소재로 만든 식생블록에 녹화식물을 식재하여 벽면에 고정시킴 설치두께 : T80	각 수조단위의 관수 공급으로 식재면 전체에 고른 이끼 생장이 가능 설치두께 : T200	가벼운 식생재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공간에 하중 제약이 없이 사용가능 설치두께 : T30
주수종	줄사철, 수호초	세덤, 이끼류	세덤, 이끼류
단가	420,000원/m^2 (관수설비 별도)	500,000원/m^2 (관수설비 별도)	330,000원/m^2 (관수설비 별도)
이미지			

구분	등반보조재형	
	와이어형	메쉬형
단면		
특징	눈에 잘 띄지 않는 디자인으로 겨울철에도 건물 벽면과 조화롭게 연출가능 설치두께 : T120	와이어형에 비해 시공이 간편하고 녹화속도가 빠르며 목본형 덩굴도 가능 설치두께 : T150~180
주수종	인동덩굴, 으아리	능소화, 덩굴장미
단가	124,000원/m^2	123,000원/m^2
이미지		



〈그림.3〉 성남태평동 주상복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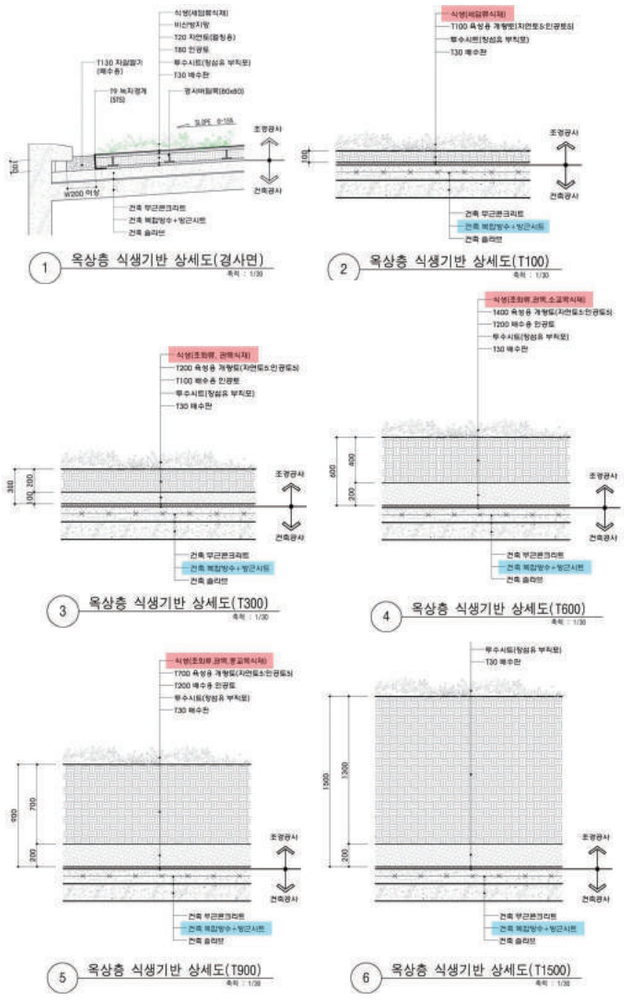
※ 옥상녹화의 단면도

인공의 특수환경이므로 기본적인 공법과 함께 장소를 이해함으로써 안정성과 경관성, 생태적 환경, 생육환경, 유지관리의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평지형은 인공지반이나 옥상녹화의 수목규모에 따라

〈표.6〉 옥상녹화의 분류

구 분		특 징	
옥상녹화	관리·중량형		경사 3°까지의 지붕에 적용가능하고, 3-20cm의 토양층 높이를 가져 600kg/㎡의 유효하중이 필요하며, 50cm까지의 식물성장높이를 가진다.
		옥상을 정원이나 공원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다양한 식물 식재 가능하고 두꺼운 토양층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경량형 녹화에 비해 하중이 많고, 시공비가 고가이다.	
	저관리·경량형		평면-경사 45°의 지붕에 적용가능하고, 70-80cm의 토양층 높이를 가져 30-250kg/㎡의 유효하중이 필요하며, 3m까지의 식물성장높이를 가진다.
		기존 건축물에 주로 적용하고, 구조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며 시공과 관리에 비용이 적게 든다. 식재 식물은 극한적인 자연조건하에서도 생장가능한 식물수종을 선택하고 살수, 시비, 전정 등이 필요하다.	
	혼합형		30cm 내외의 토심을 가지며 지피식물과 키 작은 관목 위주로 식재된 옥상녹화로, 저관리를 지향하면서 중량형을 단순화시킨 형태이다.



〈그림.4〉 옥상녹화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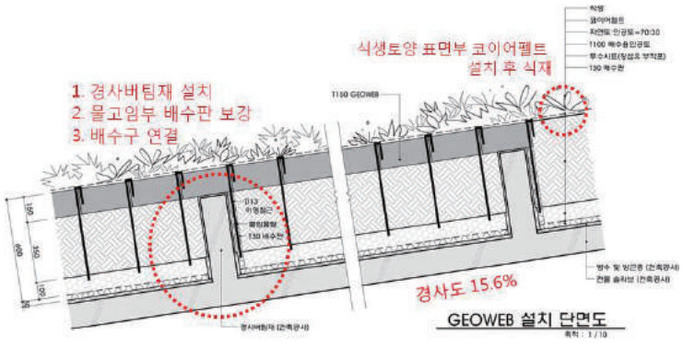
토심을 정한다. 단, 향후의 식재규격이 큰 수목을 심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지는 사전에 40~60cm정도의 토심을 확보하고 하중을 검토하여 녹화유형이 변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또한 녹지의 가장자리는 관리동선이나 W200이상의 자갈포설구간을 확보하여 집중강우와 가장자리 수목하자에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배수는 인공지반이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으므로 면적에 따라 30~50M마다 트렌치나 RD방향으로 1%이상 경사를 확보하여 여름과 겨울의 대형 하자를 막을 수 있게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시 급경사형과 평지형에 따라 구별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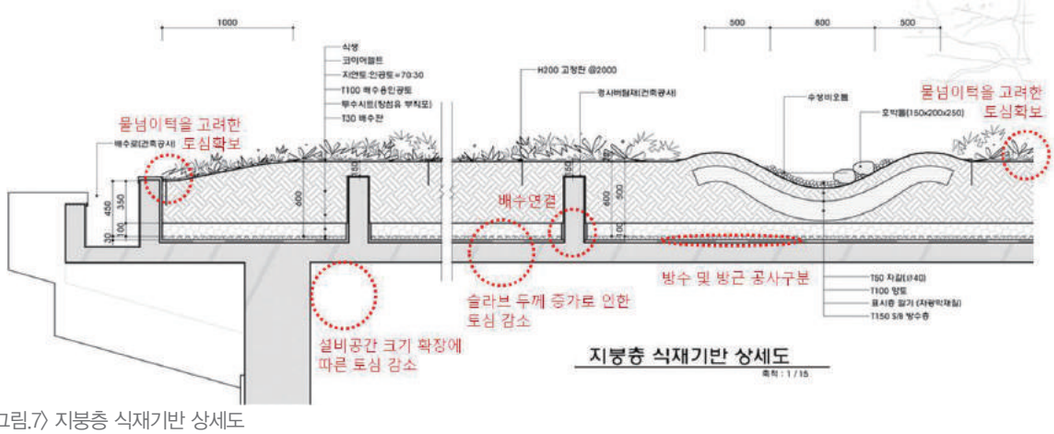
경사형의 경우 토심의 10~20cm 이하인 경우는 블록형이나 매트형의 공법이 안전하며, 면적이 넓을 경우는 토양포설과 다짐, 식재 후에 메쉬망이나 멀칭으로 안정화시켜야 초기 비산과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

급경사지일 경우나 안정화가 중요한 토심 40cm 이상의 관목 이상 식재지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경사버팀형 콘크리트기반을 5~10m마다 규모에 따라 올려주어 식생기반을 저면에서부

〈그림.5〉 서울추모공원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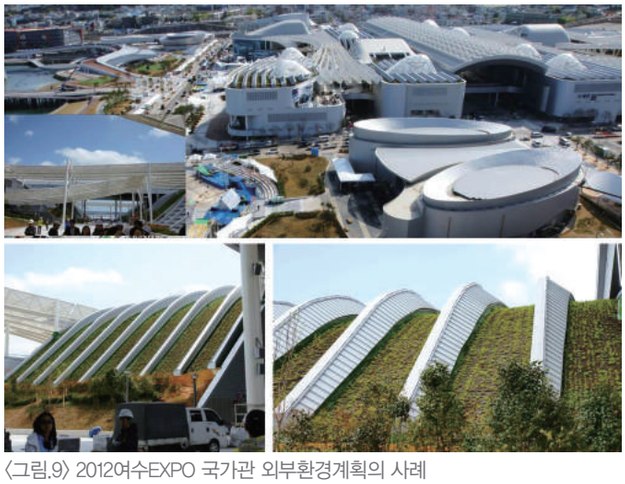


〈그림.6〉 GEOWEB 설치 단면도



〈그림.7〉 지붕층 식재기반 상세도

〈그림.8〉 성북동 타운하우스 블록형 지붕녹화 시공사례



〈그림.9〉 2012여수EXPO 국가관 외부환경계획의 사례

터 안정화 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구멍을 1~2m마다 설치하여 저면과 표면 배수를 동시에 실시한다. 강조가 높은 안정화시는 GEOWEB이라는 토목망을 설치 한 경우도 있다.

지붕의 저관리경량형 녹화의 경우 초기공사를 철저히 하여 최소한의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수 후 배수판과 블록재 놓기, 토양기반쉬트와 식재 순으로 이루어지며 블록재의 탈부착과 경사의 쓸림현상, 배수고임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식재수종을 지역과 향, 바람에 따라 수평형 생장, 사계절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세덤류더라도 여름 집중강우기와 혹한기에 내성을 가진 수종을 주수종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도입수종

선정 기준 : 저관리형의 유지관리와 경제성, 도시적 내성 수종, 향토종, 경관성

세덤류(sed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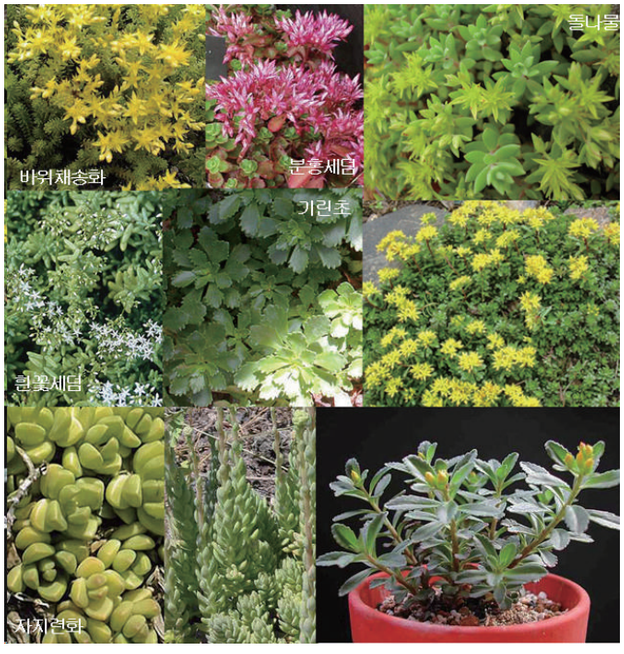
다육질 식물로서 몸속에 수분을 함유하여 인공의 저토심 건조환경에 적합

〈세덤류의 특성〉

개요

– 저관리형 옥상녹화(토심20cm이하) 식생.
– 초장이 낮은 다육질 식물
– 수분 보유로 척박한 건조토양에 강함
– 뿌리가 옆으로 뻗어 토심이 적게 소요
– 초장 3~10cm, 뿌리 3~5cm정도 밑에서 옆으로 뻗는다.

특징
– 토심 : 최소 20cm 가능
– 하중 : 암반 위 활착식물로 하중 경량화
– 시공 단순, 연 2회정도 관리의 용이성
– 내건성 : 관수가 적은 건조에 강한 식물
– 피복률 : 토양피복률이 높아 토양유실방지
– 경관미 : 다양한 색채/형태로 관상가치 높음
– 상록기간 길어 디자인형태가 장기 유지



지피초화류

〈지피초화류의 특성〉

개요
– 저관리형 옥상녹화(토심20cm이하) 식생
– 우리나라의 자생지피류로 내성이 강함
– 다양한 수종으로 환경별 적용이 용이
– 뿌리 옆으로 뻗어 토심이 적게 소요
– 초장 10~30cm, 뿌리 3~5cm정도 밑에서 옆으로 뻗는다.

특징
– 토심 : 최소 20cm 가능
– 하중 : 뿌리부가 작아 하중 경량화
– 시공단순, 연 4회 유지관리 필요
– 성장성 : 생육왕성시 다른 식물 피해 적음
– 피복률 : 토양 피복률이 높아 토양유실방지
– 경관미 : 색채/형태에 따른 수종선정
– 경제성 : 내한성, 내건성, 상록성 등 수종선별이 용이**새류 / 줄류**

새류 / 줄류

〈새류 / 줄류의 특성〉

개요
– 저관리 자연경관 녹화식생
– 자생종이 다양
– 초장 50~100cm, 뿌리 10cm정도 밑에서 옆으로 뻗는다.

특징
– 토심 : 최소 30cm 가능
– 하중 : 뿌리부가 작아 하중 경량화
– 시공단순, 연 2회 정도 관리의 용이성
– 피복률 : 토양 피복률과 확장성 좋음 토양 유실방지

방수 및 배수계획

건물의 식재기반은 방수층, 방근층, 배수층, 여과층, 식재기반층, 피복층으로 구성되며 안정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방수, 방근, 배수층 확보를 전제로 한다.

물로 인한 자연 및 인공적 재해는 건축물과 식물의 안정성 및 생육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므로 계획부터 상세 부위까지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하중계획과 같이 건축 및 구조계획과 상호 협조하여 완벽한 인공지반의 녹화기반을 조성토록 한다.

〈방근층〉

옥상녹화에 있어 방근층의 적용은 성장하는 식물의 뿌리를 막아 방수층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서 건축물의 안정성을 지속하는데 있다.

〈옥상용 인공토양〉

옥상의 인공환경은 건축구조하중과 식생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며, 시공 후 유지관리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초기에 안정된 식생기반의 토양층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본 사옥 15층에 위치한 옥상조경은 중간의 코어를 중심으로 남측과 북측 양측으로 배치되어 있다. 북측이라도 사방이 빛에 노출되어 있어 생장에 긍정적이나 겨울바람이 강한 편이다.

– 토심은 기본 40cm이며 후면 소교목측으로 올라갈수록 20cm정도 마운딩을 실시한 혼합형 식생기반단면을 가지고 있다. 하중검토를 실시하고 각 모서리측과 중앙 포장과의 접점부에 트랜치를 설치하였다.

– 식재수종은 전면에 수호초와 세덤류인 기린초, 땅채송화를 식재하고 우드칩 멀칭을 실시하였다. 외곽부는 남천과 황금쥐똥나무를 배식하여 낮은 개방형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전면은 열린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낙엽소교목과 회양목으로만 식재하였다.

– 주수목인 산딸나무는 5~6월 하얀꽃과 가을 딸기열매가 맺히며 배롱나무는 6~9월까지 꽃이 지속된다. 남천은 가을단풍과 붉은 열매가 겨울까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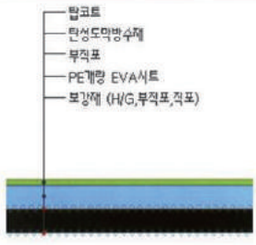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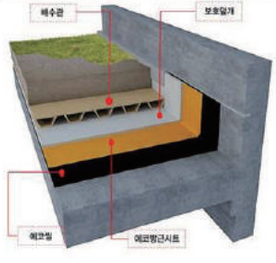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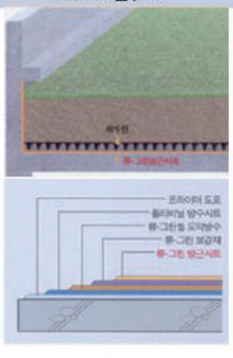
– 하부목인 미스김라일락은 봄의 전령사로 몇그루만 식재해도 라일락 이상의 향기를 발한다.

일본조팝은 봄과 여름사이 5~6월 분홍꽃으로 정원을 채운다.

– 포장과 녹지사이는 10~20cm 잔디를 식재하여 다른 식물의 하자를 최소화하고 녹지사이 시각축을 향해 디딤석과 조형석을 일체화시켜 사계절 녹의 배경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 정원 조성 시 12개월 정원의 변화를 항상 염두해 두고 식재계획을 수립하며, 옥상의 경우 내부지향적 계획보다는 주변의 경관을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열린 정원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표.7〉 방근자재 비교표–국내제품

항목	A	B	C	D
제품개요	- 기존 도막방수 보완 및 2중 복합공법, 방근추가	- 부직포를 심재로 아스팔트와 동판필름 진공접착	- 열가소성 PVC시트와 산화 방지 처리된 알루미늄 시트를 심재로 진공 접착	- 방수와 별개로 독립된 방근자재
재질, 상세	- PE개량 EVA시트 - 탄성도막 방수재 - 유, 무기질계 혼합적용	- 에코씰(2M/M) - 에코방근시트(0.25M/M)	- 폴리비닐 방수시트 - 뉴그린 방근시트	- 폴리에틸렌 필름 - 금속중심재
단가	33,000원 / m^2	38,000원 / m^2	35,000원 / m^2	20,000원 / m^2
장점				
	- 기존 방수전문 업체 - 기계화 가열융융접착 방식으로 죠인트 안정성	- 양생기간이 필요없고 습윤면, 혹한기 시공이 가능 - 공기단축	- 재질이 유연하여 복잡한 공간의 작업이 용이	- 옥상녹화 시공 전문업체 - 공사비 저렴함
단점	- 숙련된 기술력이 요구됨 - 복합공정 의한 방수공법	- 연결부위가 불안전함 - 시공사례가 적음 - 비교적 고가임	- 시공사례가 적음 - 비교적 고가임	- 최근 개발 시공사례가 없음 - 방수/방근 전문업체 아님

〈표.8〉 옥상녹화용 토양자재 비교분석표

구 분	퍼라이트	세라믹골재	화산석	이탄토
녹화범위	저관리 · 경량형~관리 · 중량형	저관리 · 경량형~혼합형	①저관리 · 경량형 ⇨세덤류 가능	①저관리 · 경량형 ⇨잔디, 초화류 가능
토양재료	• 무기질계 : 퍼라이트 ※초기활착제 3%시비	• 무기질계 : 세라믹골재 • 유기질계 : 바크	• 무기질계 : 인공화산석 • 유기질계 : 원예용상토	• 유기질계 : 토탄, 이탄
비중	0.1 / 포화 0.45~0.6	0.38~0.48 / 포화 0.9~1.0	0.35 / 포화함 0.8	0.31 / 포화 0.88
재료특성	• 토양의 물리성 개량 (토성안정화) 	• 유기물이 포함되어 수목성장 촉진	• 유기물이 포함되어 수목성장 촉진 	• 유기물이 포함되어 수목성장 촉진
	• 순수무기질로서 분해, 토양소실 없음, 반영구	• 유기물 분해시 토양소실, 침하 발생	• 유기물 분해시 토양소실, 침하 발생	• 유기물 분해시 토양소실, 침하 발생
	• 퍼라이트의 多공극과 균일한 입도별 분포로 보수력, 배수성 동시 강화	• 배수판이 포함되지 않아 인공지반 표면이 항시 습윤상태로 누수위험	• 저토심 녹화용으로 관리 중량형에 부적합	• 저토심 녹화용으로 관리 중량형에 부적합
설계가	99원	180원, 배수용 : 250원	인공화산석 600원	150원

※ 별첨 자료: 별첨 [표1, 2, 3, 4]

[표.1] 우리나라 중남부 도입수종 특성표 – 관목의 예

성상	수목명	향텍적 특성				생태적 특성				
		수형	꽃색	개화기	열매색	내한성	내공해성	음양성	생장속도	이식
상록관목	눈향나무	포복형	황색	4~5	갈색	강	–	극양	속성	–
	둥근주목	원형	녹갈색	4	적색	강	–	양,중용	지연	용이
	회양목	피복형	황색	3~4	갈색	강	강	중	지연	용이
낙엽관목	덜꿩나무	원개형	백색	5	적색	강	중	중	–	–
	말발도리	원형	백색	5	–	강	강	양	–	용이
	명자나무	원형	주홍색	3~4	황색	강	강	중	속성	용이
	목수국	원형	백색	5~6	적색	강	강	중	–	용이
	무궁화	원형	흰색	7~9	–	중	중	양	속성	용이
	병꽃나무	원형	황록색	5	–	강	강	중	속성	용이
	산철쭉	원형	홍자색	5	–	강	강	양	–	용이
	수수꽃다리	타원형	담채색	4~5	–	강	강	중용	속성	용이
	영산홍	원형	담홍자색	5~6	–	강	중	양	지연	곤란
	조팝나무	피복형	백색	4~5	–	강	약	중영	속성	용이
	진달래	반원형	자홍색	4	–	강	약	중	속성	용이
	개나리	반원형	황색	4~5	갈색	강	강	중	–	용이

〈해안건축 신사옥 옥상조경 사례 – 위 4월 북측정원, 아래 5월 남측정원〉

[표.2] 우리나라 중남부 도입수종 특성표 – 교목의 예

성상	수목명	형태적 특성				생태적 특성				
		수형	꽃색	개화기	열매색	내한성	내공해성	음양성	생장속도	이식
상록교목	소나무	원추형	자색	5~6	황갈색	강	중	양	지연	용이
	스트로브잣나무	원추형	황녹색	4	자갈색	강	강	음	속성	용이
	주목	원추형	녹황	4	갈색	강	중	음	속성	보통
	향나무	원추형	황색	4~5	흑자색	강	강	양	–	용이
낙엽교목	감나무	원정형	황백색	5~9	황홍색	상	중	양	지연	곤란
	고로쇠나무	원형	황록색	4~5	황색	강	약	양,중	보통	용이
	귀룽나무	원개형	백색	5	흑색	강	강	양	속성	보통
	꽃사과	원정형	담홍색	4-5	황색	강	중	양	속성	용이
	꽃산딸나무	평정형	백색	5-6	적색	강	중	음	속성	용이
	꽃아그배	원추형	백색	4-5	황색	강	중	양	속성	용이
	꽃복숭아	원정형	담홍색	4~5	황색	강	중	양	–	보통
	노각나무	타원형	백색	6-7	황적색	강	강	중	–	보통
	느릅나무	원개형	황갈색	4-5	담갈색	강	약	강	지연	–
	루브루참나무	원정형	황갈색	5	갈색	강	강	양.중용	속성	곤란
	메타세콰이아	원추형	노랑색	4~5		중	중	양	속성	보통
	모감주나무	관목형	노랑색	6~7	흑색	강	강	양,중용	–	보통
	모과나무	타원형	연홍색	4~5	황색	강	강	양	–	용이
	목련	원개형	백색	3~4	적색	강	강	양,중용	보통	용이
	배롱나무	평정형	홍색	7~9	갈색	중	중	양	속성	용이
	복자기	원정형	황색	5	–	강	강	양	속성	보통
	산딸나무	평정형	벽색	5~6	적색	강	중	음	속성	용이
	산벚나무	원형	연홍색	4~5	흑갈색	강	강	양	보통	용이
	산사나무	난형	백색	4~5	적,황색	강	약	양	–	용이
	산수유	부정형	황색	3~4	적색	강	중	양	속성	보통
	살구나무	원정형	담홍색	4	황,황적	강	약	양	속성	곤란
	왕벚나무	원형	백색	4	흑색	강	중	양	속성	용이
	이팝나무	원정형	백색	5~6	연녹색	중	강	양	지연	용이
	자작나무	원추형	갈색	4~5	갈색	강	약	양	속성	곤란
	주엽나무	난형	연녹색	5~6	–	강	강	중	–	보통
	참나무류	원정형	황갈색	5	갈색	강	강	양,중용	속성	곤란
	청단풍	원형	암홍색	4~5	–	강	강	중	지연	용이
	칠엽수	원형	백색	5~6	황갈색	중	약	중	보통	곤란
	회화나무	반구형	황백색	7~8		강	강	양,중용	지연	용이

[표.3] 우리나라 중남부 도입수종 특성표 – 지피초화류 예

수목명	개화기(월)	꽃색	크기	이용방안	생육지
수호초	4~5	백색	30cm	–	음지
맥문동	5~7	남보라	30~50cm		전국
상록패랭이	5~6	분홍색	10~20cm	관상용	전국
감국	10~11	노란색	30~70cm	관상용	전국
꽃창포	6~8	홍자색	60~120cm	관상용	전국
노랑꽃창포	5	황색	속성	관상용	연못가
덩쿨장미	5	적색	5m	관상용	전국
매발톱꽃	5~6	자주색	60~70cm	관상용	전국
벌개미취	6~9	자주색	60~70cm	관상용	경기이남
부처꽃	7~8	홍자색	1m	관상용	전국
붉은인동	7~8	적색	90cm이상	관상용	전국
붓꽃	5~6	보라색	20~30cm	관상용	전국
비비추	6~7	보라색	20~30cm	관상용	전국
수크령	8~9	검자색	30~80cm	–	중부이남
양지꽃	4~6	노란색	5~10cm	관상용	전국
옥잠화	7~8	백색	25~50cm	관상용	전국
왕원추리	6~8	등황색	1m	관상용	산지
작약	5~6	백,적,분홍색	50~80cm	관상용	전국
제비꽃	4~5	보라색	10~15cm	관상용	전국
구절초	9~10	백색,분홍색	40~60cm	관상용	전국
큰까치수염	6~8	흰색	50~100cm	관상용	전국
땅비싸리	5~6	적색	1m내외		전국
참취	8~10	백색	1~1.5m		전국
산부추	8~9	홍자색,연자색	30~60cm	관상용	전국

[표.4] 우리나라 중남부 도입수종 특성표 – 만경목류 예

수목명	개화기	꽃색	크기	이용방안	생육지
담쟁이덩굴	6~7	황록색	10m	조경용	전국
청미래덩굴	5	황록색	3m	조경용	전국
청가시덩굴	6	황록색	5m	조경용	전국산야
머루	6	황록색	10m	조경용	전국산야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를 지향하며
(미국의 녹색도시와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Toward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Focused on the Green City and Sustainable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친환경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마지막 완결편으로 지금까지 4회 연재한 사례들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하고자 한다.

– 필자 –
정재희
현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조교수
by Chung, Jae-hee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후 건원국제건축과 해안종합건축에서 5년정도 근무를 하였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M.ARCH를 마친 후 SOM을 비롯한 굴지의 건축사사무소들에서 4년 넘게 일을 하였다. Foshan Donghuali Master Plan, Treasure Island Master Plan 등의 projects로 2009 AIA Honor Award, 2009 AIA California Council Merit Award, 2009 MIPIM Future Project Award: Regeneration and Master Planning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건축사, LEED AP(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Accredited Professional)를 소지하고 있다.

목 차

1. 서론 : 친환경건축을 위한 통합설계
Introduction: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2. 사례연구
case studies
1) Treasure Island Master Plan
2) Parkmerced Vision Plan
3) Transbay Transit Center Master Plan
4)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Master Plan

3. 종합
Conclusion

종 합
Conclusion

인간, 소통, 그리고 지속가능성…

전세계적으로 global warming이라는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여,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파괴되어 온 환경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고 도시를 세우는 행위 자체가 환경 보존과는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추구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단편적 기능의 적용을 통해 획일화되는 친환경 건축의 이미지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를 지향하며"를 화두로 총 5회에 걸친 연재를 하였다.

무엇보다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건축사가 목표하는 친환경 건축을 구현하기 위해 최적의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의 성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평가를 하면서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해 나가는 통합적인 설계프로세스(Integrated design process)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하에 미국 SOM(Skidmore, Owings, & Merrill LLP) 근무시 필자가 참여했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2011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친환경 건축기준이 의무화되는 등 미국 내에서 친환경 건축을 선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친환경 건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친환경 설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회에 걸쳐 소개한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첫째,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친환경, 교통계획, 수자원관련 엔지니어링 및 기타 영역의 전문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collaboration)을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Treasure Island Master Plan의 경우 주거, 호텔 디자인 전문설계사무소, sustainable engineering consultant 등과 joint venture를 구성하여 설계를 진행하였고, 태양열과 바람의 패턴 등 micro climate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여 마스터플랜에 반영하였다.

둘째, 주민공청회나 설문조사, 공모전(Transbay Transit Center Competition) 선호작품에 대한 주민투표 등 다양한 방법의 community outreach를 통해 전문가와 거주자들 간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Parkmerced Vision Plan의 경우 주민참여 시스템(participatory process)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전반적인 설계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앞으로 시공단계 뿐 아니라 입주후에도 건축주와 커뮤니티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도록 고려하였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앞서 이용자 즉, 사람을 먼저 고려하는, 소통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Collaboration System

Community Outreach

Treasure Island

Parkmerced

Transbay Transit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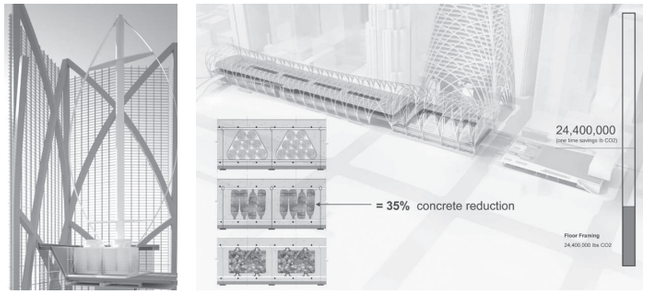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셋째,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저감을 목표로, 경제성도 고려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통합적인 건물시스템을 구현하였다. Photovoltaic panel, gepthermal cooling, wind turbines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뿐 아니라 recycled plastic을 활용한 Sustainable Form-Inclusion System(SFIS)와 같은, sustainable design에 관한 혁신적인 전략을 제안하였다.

넷째,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뿐만 아니라 social sustainability에 초점을 두고 모든 거주자들이 커뮤니티의 일부라고 느끼도록 세심하게 고려하였다. 기존 자연환경과 생태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sustainability라는 개념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기후를 비롯한 자연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프로젝트의 identity를 부여하고 무엇보다 이용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럼 이러한 모든 특징들을 아울러, 친환경설계를 통한 통합적인 도시재생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통합적이고 상호교류적인 설계프로세스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 단지 시류에 편승한 구호가 아닌 프로젝트가 위치한 도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쌓아온 문화가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Innovative Strategy for Sustainable Design

Social Sustainability

Treasure Island, Parkmerced, Transbay Transit Center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는 Slow Food Nation(2008)을 개최하여 85,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Eco City Conference(2008) 등을 주최하는 등 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마스코니 컨벤션 센터(Moscony Convention Center) 옥상에 축구장 크기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5,330㎡ 면적에 솔라 패널 5,200여개를 설치하여 4년째 전력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이는 4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675kw)을 생산할 수 있는, 미국 내 공공건물의 태양광 설비 중 최대 규모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기업 · 건물주들은 '솔라 클럽'이라는 조직을 통해 시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7개 언덕을 형상화한 그린루프(green roof)가 상징적인 캘리포니아 과학아카데미(California Academy of Scineces)는 콘크리트의 50%는 재활용 재료이고, 건물 단열은 100% 폐청바지로 마감하는 등의 혁신적인 기술로 LEED 최고 등급 인증을 받은 세계 최대 건물이다. 이는 세계의 '녹색 수도'를 지향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밖에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 최고의 폐자원 재활용률(72%)을 자랑하고, 자전거로 통근하는 사람 비율도 6%로 역시 미국 내 최고다.

지난 2003년 개빈 뉴섬(Gavin Newsom) 시장이 "샌프란시스코를 케이블카보다 전기자동차가 흔한 도시, 녹색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변화시키겠다"고 한 이후, 샌프란시스코는 바야흐로 세계의 '녹색 수도(Green Capital)', 저탄소 경제 시대의 기준을 제시하는 도시로 변신 중이다. 크로풋 기후보호 총괄국장은 "시민들이 녹색의 삶을 일부러 선택하지 않아도, 시민 생활의 모든 것을 녹색으로 만드는 것이 샌프란시스코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술적인 면이나 디자인적인 측면뿐 아니라 도시, 사회,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의식 전반에 걸쳐 친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존중(respect)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려와 소통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길고도 짧았던 연재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세대구분형 아파트(일명 멀티홈)’ 활성화된다

‘Two household plan in one apartment unit’(also know as ‘Multi home’) will be revved up

국토부,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마련

지난 5월 14일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세대내 공간을 분할해 실질적으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인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건설기준을 새로이 마련함에 따라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일부공간을 별도로 구분해 대학생, 독신자, 고령자 등 1~2인 가구에 임대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일명 멀티홈)’ 건설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에 85㎡ 초과 아파트를 30㎡ 이하로 분할해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을 허용(국토부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세대별 규모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내부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보도자료에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대상분부터라고 명시되어 일반 공동주택의 적용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의 세대 구분까지 허용될 수 있다면 고시원과 도시형의 근린생활 주거 복합 건축물에 대한 근생 주거화의 위법을 방지 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할 것이며 서민 주거보급에 일조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봄이 좋을 듯하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대별 규모제한 완화

기존에는 85㎡ 초과 아파트에만 멀티홈 건설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하고, 기존에는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 상한을 30㎡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되, 다만 최소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4㎡ 이상으로 구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

기존에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내 임차가구의 설계 및 설비기준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임차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독립된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및 샤워시설이 구비된 개별욕실을 설치하고, 필요시 주택을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통합 가능한 연결문을 설치하고, 가스,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별도의 계량기를 구비하도록 했다.

부대 · 복리시설 설치 완화

기존처럼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실제 거주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세대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부대 · 복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되, 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차가구의 수 및 임차가구의 전용면적이 각각 전체세대의 수 및 전용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해서 주차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60㎡이하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임차가구 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적용대상

신축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적용 가능하다. 다만, 리모델링 이외의 행위허가 등을 통한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은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으로 '12년 5월 14일에 통보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입주자 모집공고 전 사업계획 변경신청 분 포함)부터 적용된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의문 사항들을 쉽게 풀어보면,

1. 새 건설기준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종전 지침은 어떻게 되나?

새 건설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승인지침이 5월 14일 전국 지자체에 통보되며, 통보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작년 5월 31일 지자체에 전달한 '부분임대가 가능한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지침'은 폐지된다.

2. 준공된 공동주택도 새 기준에 따라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나?

현관문 · 욕실 · 주방 등의 추가설치와 내력별 철거 등에 따라 구조 변경이 수반되므로 사용 중인 기존 아파트는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구조안전 검토 절차가 수반되는 리모델링은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다.

3. 기존의 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대상(전용면적 85㎡ 초과), 단위세대 면적제한(30㎡ 이하)을 폐지하는 까닭은?

가구원수,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수요특성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규모 · 유형이 다양하고, 업계에서도 수요자 요구, 주택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세대구분형 아파트 평면 등을 융통성 있게 계획할 수 있도록 규모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앞서 LH에서도 최근 59㎡, 74㎡ 가구를 부분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평면을 개발하기도 했다.

4.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데 진입도로, 주차장, 운동시설, 기타 부대 · 복리시설에 문제가 없을지?

현재 부대복리시설은 1991년에 제정된 주택건설기준에 의해 설치되고 있다. 그런데 평균 가구 수는 1990년 3.70명에서 2010년 2.6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도 부대 · 복리시설이 법정규모의 평균 120% 수준에서 여유 있게 계획되고 있어, 실질적인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5. 주차장은 거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등에 의해 통상적으로 설치기준보다 1.2배 이상이 설치되고 있다. 새 기준이 임차가구수가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주차기준 강화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60㎡ 이하 주택은 가구당 설치기준이 낮아, 임차가구당 0.2대 이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6. 별도의 현관, 설비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여, 분양가 가산이 필요한데?

새 기준에 따라 멀티홈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7. 적용 대상은?

사업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 아파트는 이번 기준에 따른 세대분리형 아파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돼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적용할 수 없다.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이사, 오동욱 법제위원회 위원장, 곽철규 서울시건축사회 사무국장〉

건축사협회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율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Institutes such as KIRA

박시준 | 정부법무공단 /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로 건축사회 등에 적용되었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지부로서 해당지역의 건축사들로 구성된 각 지방건축사회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도 모두 사업자단체다. '형태 여하를 불문'하기 때문에 조직형태는 법인이든 조합이든 상관없으며, 지부나 분회 등 하부기관도 상위 사업자단체와 별개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 별개의 사업자단체가 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②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된다. 그러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데, 사업자단체는 과당경쟁의 방지라는 명목 하에 가격담합이나 시장분할 등 담합행위의 원천이 될 여지가 있으며, 감독관청 등과의 조율을 통하여 시장의 기존질서를 유지하고 신규진입을 통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법집행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위 지침에서는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다. 위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사회의 활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협회 또는 건축사회 관계자는 주목하여 개별 건축사가 낸 소중한 회비가 과징금 등으로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례 1 : 13개 지방건축사회가 설계업무와 감리업무를 분리 시행하도록 하면서 공동감리사무소나 감리회사 등을 설립한 행위는 각 해당지역 감리용역 거래분야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가 감리보수기준 및 운용방법을 결정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사례 2 : 지방건축사회가 「복지 및 상조후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구성사업자의 설계 및 감리 대가 일부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분기별로 공동분배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법하다(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024호 등).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제4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였으며, 2007~2008년 정부법무공단 설립준비단, 2010년 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기술 평가위원, 201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현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및 기획홍보팀장이다.

태국건축사협회(ASA) 컨벤션 참가 보고서

National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Forum, “Architect 2012”

KIRA–ASA 교류회의

태국건축사협회와는 우리 협회의 ‘2010년 대한민국 건축사대회’에 태국건축사협회의 회장을 초청하여 MOU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교류를 해오고 있다.

당시 2010년 태국의 타위짓 찬드라사카(Thaweejit Chandrasakha) 회장에게 우리 협회의 명예회원증을 수여하고 2011년 2월 태국건축사협회의 컨벤션에 초청을 받은 최영집 전임회장이 태국건축사협회 명예회원증을 수여받은 바 있다.

올해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컨벤션에 우리 협회장을 초청하여 관례상 참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강성익 회장과 김지덕 국제위원회 자문위원이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신춘규 국제담당 이사가 WA–Cup 2012 참석차 자비로 참석하였다.

태국건축사협회(ASA)의 컨벤션에 참석한 일정과 추후 양 단체간의 교류에 대한 협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행사기간 : 2012년 4월 25일(수) ~ 28일(토)
2. 참 석 자 : 공식대표단 회장 강성익,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김지덕, 국제 담당이사 신춘규
3. 공식협회명칭 : The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under Royal Patronage(ASA)
4. 공식행사명칭 : National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Forum, “Architect 2012”
5. 장　소 : Challenger Hall 1–3, Impact Arena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6. 주　제 : “Water Brick”
7. 참가 해외단체장 및 대표
   - 일본 JIA 회장 Taro Ashihara, 전임회장 오타상 외
   - 라오스 ALACE 회장 및 전임회장 외 50여명

– 말레이시아 PAM 회장단, 아카시아 차기회장 외
– 싱가포르 SIA회장 및 전임회장 외
– 스리랑카 SLIA 회장

8. 대표단 주요 참여일정

8-1 **4월 26일** : Welcoming Networking Dinner (환영만찬) 시간상 참석 못함

8-2 **4월27일**

1) 개막식 : 9시 개최, 마하 샤크리 시린디혼 공주 참석

2) 컨벤션 참관 :

◆ 방콕 국제컨벤션센터: Challenge Hall

– 400여개 업체 참석, 건축학교 전시, 건축사사무소 주제 전시, 각종 건축상, 조경상, 어반디자인상 등 다양한 전시를 함

– 주제 "Water Brick" (작년에 일어난 홍수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건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주제임)

– 주제에 대한 부합성, 독창성, 이노베이티브 세 가지 항목에 우수한 부스를 선정하여 어워드를 수여함(심사위원은 자국건축사위원 3명, 외국단체 대표 중 3명 정도를 선정하여 심사함. 본 협회의 신춘규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현장에서 위촉되어 심사에 참여함)

3) Presidential Dinner (회장주최 만찬)

– 장소 : 프라야 호텔(3년 전 사망한 ASA 건축사 회원이 살던 고가를 미망인이 호텔로 전환하여 원래의 건축적인 특성을 잘살려 운영하는 소규모 고급 호텔)

– 태국의 회장단과 30여명의 초청 방문한 해외단체 대표 참가자들이 참석

– JIA의 Taro Ashihara 회장과 한국의 강성익 회장(20번째)이 명예회원증을 수여받음

8-3 **4월 27일**

1) WA-Cup 2012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이 100여명이 참석하여 Maung Thong United의 야마하스타디움에서 개최함. WA-Cup은 원래 90년대 말 한국의 강남동호회가 일본의 JIA와 동호회 차원의 건축사 축구교류를 시작하였다. 이어 중국이 참여하며 AA-Cup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작년에 동경 2011 UIA 대회 시 일본의 가즈오 이와무라 교수(당시 UIA 제4지역 부회장)가 제안하여 첫 번째 개최됨. 태국이 이 대회에 처음 참석하고 두 번째 대회의 주관을 자청함.

태국 2개팀, 한국 2개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일본, 인도의 7개국 건축사팀이 참가하여 두 개의 조로 나뉘어 경연을 펼침.

한국은 2개팀 20여명의 건축사(회장 김상부)들이 참석하고, 말레이시아가 우승, 한국 B팀이 준우승을 함.

2013년은 한국에서 주최하기로 함. 자세한 일정과 개최지는 추후 협의 공지 하기로 함.

강성익 회장 등 대표단이 참석 금일봉을 전달함.

2) 시상식 및 환송만찬(시상식은 대표단이 참석하고 만찬은 축구단만 참석)

3) ASA Night : 7:00pm till midnight, 노보텔 호텔

행사기간 중 열리는 만찬 중 가장 중요한 자체 행사 중 하나로 각종 시상식 등이 열림. 특히 우수 전시부스 등에 대

해외단체장 및 대표단

전시장 전경

감사 인사

ASA명예회원증 및 메달 수여

회장초청 만찬

교류회의 후 기념사진

한 시상식이 포함되어 수상을 하게 되는 전시자들도 참석.

8-3 KIRA-ASA 회의

1) 시간 : 4월 28일(토) 11:30~12:30, 센타라 호텔, 로터스 스위트 15번실

2) 회의 내용

- 두 단체의 지난 1년 동안 주요활동 교류 :
  한국의 경우 연례적인 행사들 외에 건물유지관리제도, 공제조합 운영, 건축사등록원 및 건축사교육원의 설립과 설립에 있어서의 건축사협회의 역할에 대해 피력함. 태국의 경우 회장이 이번 컨벤션을 시점으로 타위짓 현회장에서 스미스 회장 체제로 변경됨. 건축사협회의 사회 내 위상이 커짐으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가 커지므로 위원회 수가 많아지고 따라서 회장단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피력함.
- 앞으로의 MOU에 따른 구체적인 교류 방향
  서로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은 지체 없이 도와 주기로 약속함. 한국의 경우 건축사대회가 열리는 짝수해에는 해외단체장을 초청하고 홀수해에는 방문하는 것으로 제안함(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초청과 방문에 대한 것은 우리 협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을 원함).
  금년 10월에 개최될 대한민국 건축사대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기로 함.
- 기타 건축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려 교류.
  - 태국 : 공공설계시장에서의 턴키발주 등에서 협회의 역할.
  - 한국 : 건축사 회원들을 위한 업역 확대 및 환경개선의 노력(건물유지관리법 및 설계감리분리제도 등에 대한 협회 역할 설명함).

〈작성자 : 신춘규 대한건축사협회 국제담당 이사〉

협회 간 비교표

2012년 4월 기준

분야	내용	KIRA	ASA	비고
단체 주요 개요	설립	1946(1954)	1933	
	회원수	8,208(10,500)	7,240(11,274)	괄호안의 수는 총 건축사 수임 태국은 정회원 6,412명임
	지역건축사회	16개 시도건축사회	4개 지역회	방콕 내 건축사 수가 90%정도임
	사무국규모	65명	15명	본부
	회장의 임기	2년(2년에 한번 2월의 정기총회에서 간선제로 선출)	2년(연말에 우편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5월1일 시작)	약7,000여명의 회원 중 약5,000여명이 참가함
	주요행사	정기총회(매년 1월) / 건축사대회(격년) 한국건축문화대상 / 한국건축산업대전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총회(5월) 컨벤션/국제포럼(매년4월)	
	회원의 회비	정회원 : 36 만원/년	정회원 : 66불/5년 / 준회원 : 17불/년	지회는 별도
	주요출판물	건축사지(월간) / 건축신문(매2주) 건축문화대상 / 건축사작품연감	수시 금년 컨벤션 주제인 "Water Brick" 출간	
	1년협회예산	일반예산 약 40억 원 / 특별예산 약 40억 원	총예산 약 15억 원 정도임	
	등록원	KoARB(5월부터 업무개시, 이사장은 협회장)	Architect Council of Thailand(ACT)	
	계속교육	5년에 60시간 (KIRA에서 교육원을 설립 계속교육 제공)	5년에 60시간, 단 1년에 최대20시간 가능	태국에서는 ACT에서 계속교육 관장
해외 교류	해외단체 간 교류 및 활동	아카시아, UIA, APEC 건축사중앙이사회, 미국, 일본, 멕시코, 몽골, 라오스, 태국, ACE 등과 MOU	아카시아(1970), UIA(2002),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와 MOU체결	
기타		공제회 신설 운영 중 건축사연금제도 준비 중	방콕 내 ASA 라운지 운영	

협회소식

제4회 이사회

2012년도 제4회 이사회가 지난 4월 10일 오후 3시에 온양그랜드호텔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협회 경영진단 실시의 건, 협회 사무공간 조정의 건, 유지관리점검업무 매뉴얼 및 대가기준 연구에 관한 건, 건축사등록원 영문명칭 및 홍보계획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칙 개정안 승인의 건, 2012년도 태국건축사협회(ASA) 컨벤션 참가의 건, 건축사등록업무 준비자금 차입의 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MOU 체결의 건, 울산건축사회 제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협회 경영진단 실시의 건
  - 일반경쟁입찰로 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좀 더 완화하되,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협회 사무공간 조정의 건
  - 제2안(문화홍보실+교육부서 등)으로 사무공간을 조정·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함.
- 제3호 : 유지관리점검업무 매뉴얼 및 대가기준 연구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사등록원 영문명칭 및 홍보계획의 건
  - 건축사등록원 영문명칭은 KARB로 하고, 영문도메인은 www.kira-karb.or.kr로 하기로 함.
  - 건축사등록업무 관련 홍보계획은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건축사축구대회(4/20)에 참여하는 회원에게도 홍보브로슈어 배부를 요청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칙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협회 정관 및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토록 권고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2012년도 태국건축사협회(ASA) 컨벤션 참가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건축사등록업무 준비자금 차입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기로 함.
    ▷차입금액 : 230,000,000원
    ▷대여재원 : 건축문화발전기금
    ▷ 차입조건 : 이자율 5%, 이자납입 매년 5월 30일, 원금은 등록업무 개시일부터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 제4호의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MOU 체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2012년 5월 7일 업무협력합의서 체결
- 제5호의안 : 울산건축사회 제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고문회의

제1회 고문회의가 지난 4월 23일 협회 회장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은 건축사법에서 보장된 건축사의 업무가 침해될 소지가 많으므로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협회에서 적극 대처 요청.
  -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제외되도록 건설기술의 정의에 포함(현행유지)

■ 제2회 시·도건축사회 회장 회의

제2회 시·도건축사회 회장 회의가 지난 5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시·도건축사회장 건의사항의 건
  - 시·도건축사회장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의함.

건의사항	결과
업무대행자의 업무지침서 작성 요청	법제위원회 검토 후 조치
한양서체 관련 업무추진	정책위원회 검토 후 조치 • 협회 자체폰트 개발 등 검토
교육청 감리문제	협회의견 반영여부 확인 후 조치
민간공사 설계 및 감리 대가기준 마련 필요	법제위원회 및 회원권익위원회의 검토 후 조치
건축물 유지관리와 관련한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마련	
세종시건축사회 설립에 따른 협회 지원 검토	충남건축사회에서 세종건축사회 설립에 관한 결정사항을 본협회로 보고하고 본협회 이사회에서 설립 지원방안을 결정하여 충남건축사회로 통보

• 제2호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 운영비 지원금 배분의 건
  – 제2안으로 합의함.
    ▷제2안 : 균등배분 + 관리인원수 기준배분액
    〈균등배분액(지원금의 2/5)+인원수기준배분액(3/5)〉

• 제3호 : 2012년도 협회발전워크숍 개최의 건
  – 워크숍 참석범위에서 시도 임원도 추가 요청함. 다만, 지역건축사회가 있는 시 · 도건축사회 경우, 너무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만큼 본협회에서 회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배정하여 각 시도에 전달하기로 함.
  – 분임토의 주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안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요청함.
    예시) 건축사업무(설계, 감리 등)에 대한 무자격자의 불법 · 부당광고 규제방안

▲기타사항
– 정관이 개정이 된 만큼 시도건축사회에서 개정해야 할 회칙 개정 부분을 시 · 도건축사회로 전달토록 요청함.

■ 제2회 사업위원회

제2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KAFF 2012 홍보마케팅 계획의 건
  –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홍보광고비 지출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 시 재검토하며, 실제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제2호 : 2012년 1~2월 전담위원 활동비 지급의 건
  –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 바, 전담위원이 지속적으로 업무활동을 하였으므로 2012년도 1월~2월 업무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기타사항
• 전시장소를 3층(Hall C)에서 KAFF와 한국승강기안전엑스포를 함께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며, 한국승강기안전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분과위원에 이규환 위원이 위촉되었음.(문화대상 시상식&리셉션 및 건축사교육 등 세미나 장소가 3층~4층으로 동선이 편리함)
• KAFF CATALOG는 인쇄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5월 초까지 완성토록 추진함.

■ 2012 제1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2012 제1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계획(안)의 건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발대식은 보고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함.
  – 대회 주제는 '時 + 文 = 建築 시대와 삶을 짓는 건축사'를 '時 + 文 = 建築 건축사, 시대와 삶을 짓다'로 변경하여 가제로 진행하되, 추후 이전 건축사대회 결과보고서 등을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기로 함.
  – 구호는 '신나게! 멋지게! 친하게!'로 하기로 함.
  – 차기 회의는 5월 3일(목) 16시 30분과 5월 11일(금) 발대식 종료 이후에 갖기로 하고, 대회 홍보용 리플렛, 대회예산(이벤트 업체 견적 포함), 대회준비일정, 대회정체성 등에 관한 협의와 대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함.
  – 차기 회의는 광주건축사회 사무국장이 반드시 참석토록 하고, 안건협의 시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해당 분과 위원장이 조직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함.

■ 2012 제2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2012 제2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기본계획 및 대회예산의 건
  – 대회주제는 이전대로 '時 + 文 = 建築' 대주제로 하고 '건축사, 시대와 삶을 짓다'는 부주제로 하기로 함.
  – 주제와 부주제는 글씨크기나 색상에 차등을 두어 표기하기로 함.
  – 대회프로그램 중 '건축사의 가족 합창제'는 참가팀 모집이 중요한 만큼 광주건축사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기본 운영안을 각 시 · 도건축사회 송부하여 참가여부를 확인한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대회예산은 광주건축사회에서 제시한 4억 3천만에서 3천만을 삭감한 4억으로 하고, 이중 본협회 광고수입 부분은 기존대로 본협회 제46회 정기총회('12.2.28)에서 언급된 9천만 원으로 결정함.
• 제2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리플렛 검토의 건
  – 기본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확정하고, 주제표기 및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건축사회에서 좀 더 수정 · 보완하기로 함.
  – 5월 11일 발대식에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시안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함.

• 제3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추진일정의 건
  – 광주건축사회에서 작성한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함.

▲기타사항

– 5월 11일 발대식에 위원들 모두가 참석하기로 하되, 차기 회의는 집행위원회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개최하기로 함.
– 한국건축산업대전과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한 장소에서 개최되면 시너지 효과가 큰 만큼 가급적 차기 대회부터는 두 행사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요청함.

■ 제7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제2회 시 · 도건축사회장 회의가 지난 5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등록원 운영규정(안)에 관한 건
  – 운영규정(안) 제4조(업무) 제5항을 건축사 징계요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5조(사무기구)에 추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경력팀과 실적팀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제5회 이사회('12.5.9)에 건축사등록원 운영규정(안)을 안건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 제2호 : 건축사등록업무 온라인시스템 개발에 관한 건
  – 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사항들을 반영하고 홈페이지 도메인을 "www.kirakarb.or.kr"로 제5회 이사회('12.5.9) 후 등록하여 각 위원들이 외부에서 접속하여 확인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시연하는 것으로 결정함.

■ 제2회 건축사교육원 설립 준비위원회

제2회 건축사교육원 설립 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실무교육에 관한 건
  –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업무신고하지 않아 2012년 5월 31일부터 교육의무가 발생되는 소수 건축사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은 기존 검토된 자료를 전영철 위원이 사무처와 함께 취합 · 조정한 초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2013년 5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회원의 실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은 용역을 통해 개발하기로 하되, 동정근 위원이 용역방법(시간, 금액, 용역자 등)을 제안하기로 함.

■ 제3회 건축사교육원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 건축사교육원 설립 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실무교육(자격취득 3년 경과 건축사)에 관한 건
  – 2012.5.31부터 시작되는 건축사 실무교육인원은 없거나 극소수이므로 논의한 실무교육과정에 강사를 3배수로 추천해서 다음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실무교육과정 개발 용역에 관한 건
  – 용역금액을 5천만 원 내외로 조정하여 PM은 동정근 교수가 맡고, 전영철 위원이(본인은 고사하였음) 참여하여 협회 건축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리해서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기타사항

• "midas eGen" 무료교육
  – 추후에 마이다스 아이티에서 "midas eGen"교육에 관하여 공문으로 요청이 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함.
• 2011년도 민원행정 확인 · 컨설팅 결과 개선협조요청
  – 구체적인 사례를 교육자료로 확보하여 건축사실무교육 중 법규 및 윤리 교육에 포함하여 교육하기로 함.
• 제7회 국토 도시아카데미 전문가 과정 안내
  – 교육인증문제는 신중해야하므로 자기개발교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교육인증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연장자인 김용주 위원을 선임함.
• 제2호 : 2012년도 상근임직원 연봉책정(안) 협의의 건
  – 상박하후로 하되 직급간의 인상률이 피라미드구조가 되는 원칙으로 제3안을 기준하여 2~3급에도 근무평정결과를 일부 반영토록 함.
  ▷ 제3안 : 2~5급직원 일괄 기본 80만원 인상, 4~5급직원은 근무평정결과에 따라 2%~1% 추가인상율 반영
• 제3호 : 협회 경영진단 제안요청서 협의의 건
  – 경영진단 용역은 일반경쟁입찰로 하여 참가자격을 완화하고 추진일정을 조정하여 추진키로 함.
  – 제안서 평가위원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정도로 구성

하기로 하고, 대략적인 평가위원 구성(안)을 회장께 건의키로 함.

■ 제1회 주거복지위원회

제1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주거복지위원회 운영방안의 건
  - 주거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과 담당 위원을 지정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운영방안을 차기회의에 제시키로 협의함.
- 제2호 :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지원의 건
  - 협회 지원금의 지출은 협회 내 사업으로 명분과 실리가 명확해야 하나 본지원금은 일부 의문점이 제기된바, 협회지원금의 명목보다는 유관단체에 대한 협찬 형식으로 200만원정도 후원토록 협의함.

강성익 회장 '태국건축사협회(ASA) 컨벤션' 초청 참가

우리협회 강성익 회장과 대표단은 지난 4월 25일부터 4일간 태국건축사협회(이하 ASA)의 공식 초청으로 ASA 컨벤션에 참가, 양 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친목을 공고히 했다.

ASA 컨벤션(National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Forum, "Architect 2012")은 지난해 방콕에 벌어진 홍수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건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주제인 "Water Brick"이란 주제로 태국의 방콕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우리협회 대표단은 태국의 '마하 샤크리 시린디혼' 공주가 참석한 개막식과 컨벤션 참관, 회장주최 만찬 등에 공식 참석했으며, WA-Cup*2012 대회에 참석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또 두 단체는 지난 1년 동안의 주요활동 교류를 점검하고 앞으로 MOU에 따른 구체적인 교류 방향을 논의하는 KIRA-ASA 회의에서 더욱 양 단체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협회와 태국건축사협회는 지난 대한민국 서울에서 2010년 MOU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교류하고 있으며, 두 협회는 당시 회장에게 명예회원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WA-Cup : 2012년 4월 27일 태국에서 개최된 범아시아 건축사축구대회로 태국 2개 팀, 한국 2개 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일본, 인도의 7개국 건축사 팀이 참가, 말레이시아가 우승, 한국 B팀이 준우승했다. 이 축구대회는 90년대 말 한국의 강남동호회가 일본의 JIA와 동호회 차원의 건축사 축구교류를 시작, 뒤이어 중국이 참여하며 'AA-Cup'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지난해 동경 2011 UIA 대회 시 일본의 가즈오 이와무라 교수(당시 UIA 제4지역 부회장)가 제안하여 첫 대회가 개최됐다. 2013년 대회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됐다.

우리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력 체결

우리협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지난 5월 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강성익 회장과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 국가건축기술의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국토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지원과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현안과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수의 연구수행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분야에서는 저탄소 저에너지 그린홈 개발과 생태도시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 안전과 관련된 홍수나 지진, 건물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응하는 기술도 연구 개발하고 있다. 건기연은 건축분야의 다양한 연구실적이 실제 현장에 홍보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차에 이번 업무협력으로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강성익 회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MOU체결을 통해서 건축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앞으로 우리 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연구수행으로 국가 건축기술의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우리협회는 지난 2010년 환경부와 녹색설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도 MOU를 체결을 앞두는 등 건축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관련단체간 지속적인 협력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 있다.

광주시건축사회, 2012년 광주건축문화포럼 개최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심상봉)는 지난 3월 31일 전주대, 전주한옥마을 등 전북권역에서 '2012년 광주건축문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축사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일반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지역 대학생과 일반시민, 건축사 및 소속사무소 직원,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천안지역건축사회, 소년체전 선수단 격려금 전달

천안지역건축사회(회장 박정준)는 지난 4월 2일 제41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초·중학교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원의 격려금을 천안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류광선 천안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천안시건축사회 박정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 2명 등이 참여했으며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충남건축사회, 테마건축기행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최종옥)는 지난 4월 17일 회원과 충청남도 및 시군 건축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마건축기행' 행사를 개최했다.

기행지로는 서울 북촌마을, 창덕궁으로 전통 건축문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며, 이번 테마건축기행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유관단체와의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자리가 됐다.

제8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개최

'제8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축구대회'가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부여 구드래 잔디구장에서 개최됐다.

대전건축사축구동호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건축사회원들이 참석해 우승을 향한 열띤 경기가 펼쳤다.

광구건축사축구동호회가 우승을, 서울 송파건축사축구동호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진주시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 개최

진주시지역건축사회(회장 최선기)는 지난 4월 25일 진주시중식업연합회와 함께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무료급식봉사에는 건축사회 회원과 부인회 20여명이 참석해 자장면 300인분을 조리하고 배식, 설거지 하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최선기 회장은 "작은 사랑의 실천에 감사하며 밝은 웃음으로 반겨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작은 손길이지만 꾸준한 나눔의 실천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김남중)는 지난 4월 30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전주인재육성장학기금' 500만원을 전주인재육성재단에 전달했다.

전주인재육성 장학기금 전달식에는 전주시지역건축사회 김 회

장과 전주인재육성재단 황의옥 상임이사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지역 인재를 키우는 것이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에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대구건축사회, 유네스코 대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이택붕)는 지난 5월 8일 유네스코 대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네스코 대구협회에서 운영하는 창의적 체험센터에 참여하여 건축사로서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재능을 기부, 청소년들에게 건축에 대한 이해증진을 돕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기로 했다.

올 해는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이론수업 및 작가와의 만남, 현장답사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건축사회, '2012 추대회원 위로행사'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강석후)는 지난 5월 8일 '2012 추대회원 위로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추대회원 및 임직원 등 63명이 참여해 제2롯데월드 신축현장(123층/555m)을 견학하였으며, 미사리의 한정식당에서 식사 후 한강유람투어로 행사를 마쳤다

이번행사는 '5월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날'을 맞이해 서울시건축사회 회원 중 추대회원을 대상으로 '예우와 위로차원'으로 계획됐다.

건축계소식

서치호 건국대 교수 대한건축학회 회장 취임

서치호 건국대 교수(59세, 건축공학부 · 사진)가 지난 28일 중앙대에서 열린 '2012년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제3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월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당선된 서 회장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 박사를 취득했다. 또 청주대학교 이공대학 건축공학과 교수와 건국대 건축대학장과 건축전문대학원장,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회장,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해왔으며,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기술표준원 산업표준심의회 전문위원, 국토해양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건축학회는 발족한 지 67년 됐으며 회원으로 1만8천여 명이 소속돼 있다.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동의대학교 가야캠퍼스에서 개최된다.

19일은 강우방(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교수의 특별강연 및 나동욱 부산근대역사관장의 기회주제발표 후 논문발표가 진행되며, 20일은 동의대학교 및 기장군 · 해운대 건축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축역사학회(02-545-549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aah.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건축시공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한국건축시공학회에서는 오는 5월 18일 전북대학교에서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관련 논문 발표는 대학원 논문과 산업계 및 연구소 논문 발표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 주제는 건설특허 및 신기술, 시공기술 · 재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건축시공학회(02-745-5547) 및 홈페이지(www.kic.or.kr)를 참조하면 된다.

'2012 한국농어촌건축대전' 공모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농어촌지역에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역유산을 활용한 마을만들기'를 주제로 제7회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을 공모한다.

〈초대작가부문〉

• 공모목적 : 농어촌지역에 건축사들의 창의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작품을 공모
• 공모자격 : 국내 건축설계분야 교수 및 전문가
• 대 상 지 : 국내 농어촌지역(동지역을 제외한 읍, 면지역)
• 공모일정
  – 출품의향서 접수 : 5월 7일(월) ~ 6월 13일(수), 이메일 접수(krhjlee@ekr.or.kr)
  – 초대작가선정 발표 : 6월 22일(금)
  – 최종작품제출 : 8월 31일(금)

〈준공건축부문〉

• 공모작품 :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 완료된 건축물
• 공모자격 : 출품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자 및 건축주
• 대 상 지 : 국내 농어촌지역(동지역을 제외한 읍, 면지역)
• 공모일정
  – 온라인등록 : 5월 7일(월) ~ 6월 12일(화)
  – 1차 작품접수 : 6월 13일(수)
  – 2차 현장설명 : 7월 첫째 주 예정(추후공지)

〈계획건축부문〉

• 공모주제 : 지역유산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 공모자격 : 농어촌지역 건축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대 상 지 : 국내 농어촌지역(동지역을 제외한 읍, 면지역)
• 공모일정
  – 온라인등록 : 5월 7일(월) ~ 7월 10일(화)
  – 1차 작품접수 : 7월 11일(수) ~ 7월 12일(목)
  – 2차 작품접수 : 8월 21일(화)
  – 3차 프리젠테이션 : 8월 마지막 주 예정(추후공지)
• 문의 : 한국농어촌건축대전 홈페이지 http://arch.ekr.or.kr

새는 에너지 잡는 친환경 진공단열재 '에너백'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낭비'에 대해 민감해지고 있는 가운데 진공 단열재 에너백(ENERVAC)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에너백은 8배 강화된 단열효과로 인해 겨울철 주택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1/5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기존 단열재 대비 1/8 두께만으로 동일한 단열성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5%의 공간 확장 효과를 가져다준다.(내부면적 100㎡ 기준)

에너백이 이처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것은 소재 및 진공기술에 의한 것으로 에너백의 소재가 되는 흄드실리카는 8~20nm 크기의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열의 전달을 어렵게 하며, 또한 입자와 입자 사이 공간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내 진공상태를 만들어 줌으로써 열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의 형태는 다양한 파우더 소재를 판상형으로 성형한 것으로 일반 나무판 모양 같이 직각도가 확보되고 표면 평탄도 역시 뛰어나며 사용기간이 30년으로 길어 건축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건축용 단열재 적용을 위하여 차별화된 시공성 개선 및 석재, EIFS, 패널 등 다양한 외벽 마감 형태별 시공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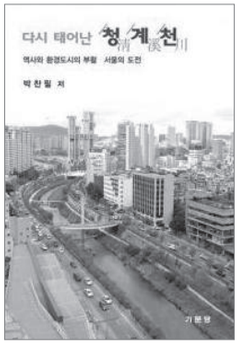
에너백은 2010년 국내 단열재 중 최초로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한 후, 2011년 올해의 녹색기술 제품 선정, 2012년 2월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로 추천되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품 우수성을 공인 받고 있다.

• 문의 : OCI, 02-7279647

신간안내

다시 태어난 청계천(淸溪川)

박찬필 저 | 261쪽 | 기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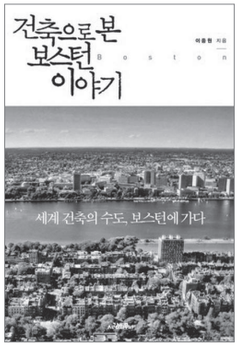


이 책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청계천의 의미를 살펴보고, 복원에 따른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조선시대 풍수사상으로 본 청계천의 역할에서부터 근대화로 인해 고가도로가 건설된 과정을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있으며, 복원의 계기와 필요성 그리고 복원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디자인, 홍수대책, 유지관리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청계천과 그 주변의 다양하고 개성적인 모습을 구역별로 나누어 자세한 지도 및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한강 주변과 하천의 재생 프로젝트 사례(난지한강공원 등)와 제주도 산지천 복원 등을 소개하고 있다.

• 문의: 기문당, 02-2295-6171

건축으로 본 보스턴이야기

이중원 저 | 320쪽 | 사람의무늬



이 책은 미국 건축의 출발점이자 세계 건축의 중심지로서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보스턴을 조망한 건축기행문이다. 저자는 11년간 보스턴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바라본 보스톤의 건축과 도시를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이야기하고 있다. 책을 읽다보면 보스턴을 대표하는 건축 일번지 '비콘 힐'의 오래된 자갈길을 거닐고, 작은 이탈이라 '노스 엔드'를 서성이며 녹지와 상업지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운타운'을 방문한 기분이 든다. 그 밖의 '펜웨이', '켄달 스퀘어' 등 보스턴의 여러 곳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저자가 강조하는 보스턴의 매력은 높고 화려한 건축물, 유명 건축사의 작품만은 아니다. 옛것을 존중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시민의식과 단기간을 고려한 건축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자세, 그리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삶의 터전, 넉넉한 녹지와 보행자를 배려한 걷기 좋은 거리 같은 것들이다.

• 문의: 사람의 무늬, 02-760-1252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
(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
(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남부지역건축사회/(043)543-9911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400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2-2084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
(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
(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
(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11.8.9일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방법

- 주소입력 : http://m.kira.or.kr
- 포털사이트 : 대한건축사협회 검색후 클릭시 자동연결
- QR코드 인식 후 접속

○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방법

· 메인 상단 탭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의 총5개 게시판을 탭으로 링크.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해당 게시판의 내용을 볼 수 있음.
· 메인게시판 : 각 게시판의 최근내용을 보여줌.
· 하단아이콘 : 대한건축사협회장의 인사말, 협회설립목적/연혁, 조직, 주요사업, 역대임원, 회원검색, 알림광장, 회원가입안내 등의 내용을 각각의 아이콘을 터치함으로서 볼 수 있도록 구현.
· 관련 사이트 : 각 회사의 로고를 회전하는 배너형식으로 구현,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 오시는 길 : Daum지도를 연동하여 확대축소가 가능한 지도로 표현
· PC버전보기 :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대한건축사협회의 PC버전 홈페이지로 이동

| QR코드 인식방법 |

큐알(Quick Response)코드는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바코드와 비슷한 것인데, 활용성이나 정보성 면에서 기존의 바코드보다는 한층 진보한 코드 체계이다. 아래 QR코드는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의 주소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단히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다.

○ QR코드 인식방법

스마트폰의 QR코드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QR코드를 읽어 들이면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입력 없이 바로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김은미_Kim, Eunmee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에메랄드 도시

뉴욕시 계획 부문이 녹색 구획 정리 법안을 통과시키다

새로운 녹색구획정리 법안은 통합된 광전 변환기술을 보여주는 건물=에너지(BUILDINGS=ENERGY) 전시를 위한 PERKIN+WILL의 디자인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할지 모른다. COURTESY PERKINS+WILL

뉴욕시의 도시계획 부서는 녹색구획정리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을 시의회와 시장에게 승인을 위해 제출했다.

새 구획은 구획 제한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았던 에너지 절약 건물 기술과 설계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제 건물 소유주는 용적률의 처벌 축소 없이 녹색 지붕을 설치할 수 있고, 태양 전지판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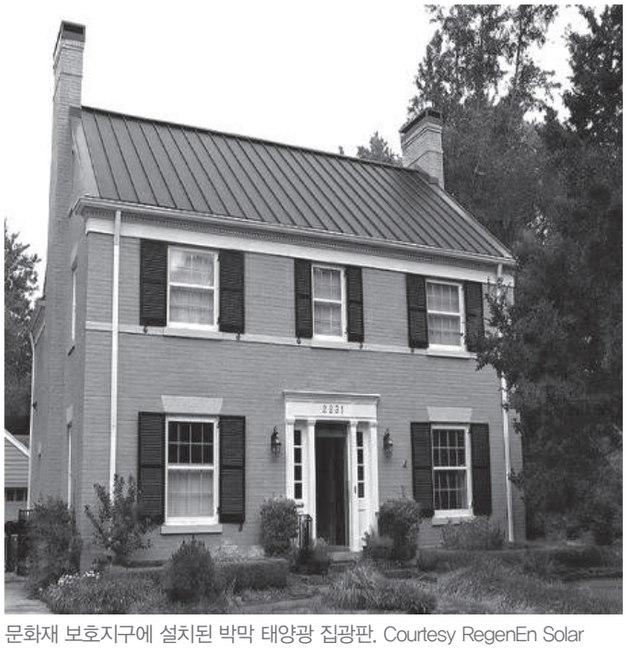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건물에 대한 디자인을 본 것에 대한 이해다."라고 도시 계획의 지속 가능성 분야의 책임자인 하워드 슬렛킨(Howard Slatkin)은 말했다.

렌조 피아노(Renzo Piano)의 뉴욕 타임즈 빌딩에 사용된 것과 같은 스크린이나 Grimshaw/Dattner의 Via Verde에 사용된 차양을 보면서, 계획 부문의 직원은 건축사가 태양열 흡수와 강한 빛을 줄여서 건물의 에너지 부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첨가 조치를 허용하는 텍스트를 개발시켰다. 스크린은 건물 정면의 30퍼센트 이상을 가리지 않는 수준까지 허용될 것이고, 차양은 거리의 벽을 넘어 60cm(2feet) 정도까지 높아지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붕 위에는 새로운 자유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높이 제한

Perkins+Will 디자인은 각각의 창문 위에 빛을 건물 내부로 산란시키는 돌출된 반사판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의 신규 녹색구획정리 법안은 현재 이런 디자인 발전을 고려한다.

위로 90cm(3feet)가 녹색 지붕을 위해 추가되었다. 그래서 층별(floor－to－floor) 높이 변경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온실은 교육 목적과 음식 생산을 위한 비거주 건물에 대해 허용되게 된다. 여기서 다시, 계획 부문은 시장에서 오는 신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슬렛킨(Slatkin)은 고담 그린스(Gotham Green)를 예로 든다. 고담의 생산품은 브루클린(Brooklyn)의 그린포인트(Greenpoint) 산업용 옥상에서 재배된다. 그리고 지역 배송을 통해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인다.



문화재 보호지구에 설치된 박막 태양광 집광판. Courtesy RegenEn Solar

온실은 빗물을 모으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유사하게, 푸른 지붕(blue roofs)를 만들기 위한 폭풍우 정체 시스템과 결합할 때, 옥상 접근을 위한 층(deck)이 권장될 것이다.

태양 전지판은 기본 평평한 지붕을 위한 4피트에서 경사지붕을 위한 18인치 사이 범위 내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도록 허용될 것이다. 벽면은 겨우 10인치도 안되게 계획되고, 표면의 20%가 넘지 않는다. 태양 전지판은 또한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는 6~14피트 높이의 상업지구의 격자구조물의 기둥 꼭대기에도 설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감독은 태양열 계획이 Staten섬과 같이 적은 에너지로 주택 거주자에 이익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절감을 줄 수 있는 외곽 자치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세금 우대 조치들은 초기 투자액을 상쇄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회사인 콘 에디슨(Con Edison)은 소유자의 자동차가 그리드에 여분의 에너지를 되팔 수 있는 전력 요금 인하 제도(net metering)를 고려하고 있다.

말하자면, 태양열 집광판이 지붕에 있었지만, 칸막이 벽과 몇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창문 세척 시스템과 같은 기계장비를 위한 법규를 갱신하기 위한 추가 언어에 대한 계획이 효과적이었다. 다른 변화들은 단열 목적을 위한 건물 재피복을 8인치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건물 소유주는 그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2년 3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642	5,642	93	186	9	27	5,744	5,855	1,646	1,646	227	454	56	168	29	116	18	123	1,976	2,507	7,720	8,362
서울	880	880	23	46	2	6	905	932	831	831	127	254	38	114	13	52	12	73	1,021	1,324	1,926	2,256
부산	479	479	12	24	2	6	493	509	112	112	20	40	2	6	2	8	2	15	138	181	631	690
대구	479	479	19	38	4	12	502	529	68	68	17	34	2	6	4	16	0	0	91	124	593	653
인천	278	278	4	8	0	0	282	286	68	68	6	12	1	3	0	0	0	0	75	83	357	369
광주	199	199	0	0	0	0	199	199	41	41	8	16	2	6	2	8	0	0	53	71	252	270
대전	268	268	6	12	0	0	274	280	31	31	6	12	5	15	0	0	1	14	43	72	317	352
울산	184	184	5	10	0	0	189	194	19	19	2	4	1	3	0	0	0	0	22	26	211	220
경기	797	797	1	2	0	0	798	799	240	240	20	40	2	6	2	8	1	5	265	299	1,063	1,098
강원	184	184	2	4	0	0	186	188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14	221
충북	221	221	3	6	0	0	224	227	36	36	2	4	1	3	2	8	1	9	42	60	266	287
충남	261	261	1	2	0	0	262	263	49	49	4	8	1	3	2	8	0	0	56	68	318	331
전북	256	256	5	10	0	0	261	266	24	24	4	8	0	0	1	4	0	0	29	36	290	302
전남	208	208	1	2	0	0	208	210	19	19	2	4	0	0	0	0	1	7	22	30	231	240
경북	388	388	4	8	1	3	393	399	38	38	3	6	1	3	0	0	0	0	42	47	435	446
경남	426	426	7	14	0	0	433	440	30	30	3	6	0	0	0	0	0	0	33	36	466	476
제주	134	134	0	0	0	0	134	134	15	15	1	2	0	0	0	0	0	0	16	17	150	151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8,362	100%	13
서울	2,256	33.9%	2
부산	690	7.9%	8
대구	653	7.7%	0
인천	369	3.8%	0
광주	270	3.7%	0
대전	352	3.7%	0
울산	220	2.6%	0
경기	1,098	12.2%	3
강원	221	2.6%	0
충북	287	3.0%	0
충남	331	3.1%	0
전북	302	3.0%	0
전남	240	1.9%	0
경북	446	4.6%	0
경남	476	5.0%	0
제주	151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5,855	2,507	8,362	
비율	70.02%	29.98%	100%	
사무소수	5,744	1,976	7,720	
비율	74.40%	25.60%	100%	